

# 리아후나

## 연차 대회 말씀





**“앨** 마는 아들 힐라맨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전파하라. 그들을 가르쳐 스스로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게 하라. 그들을 가르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신앙으로, 악마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게 하라.’ (앨마서 37:33) 주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위대한 대의를 믿는 신앙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그 빛으로 밤중에 우리를 이끄는 촛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이 낮에는 구름처럼 여러분 앞에서 가기를 바랍니다.”라고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제176차 반연차 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에서 말씀했다.



조셉 스미스 이세, 그랜트 롬니 클로슨,  
원작가로 생각되는 윌리엄 로저스의 그림을 본뜬

존 테일러 회장(1808~1887년)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주의 선지자요 선견자인 조셉 스미스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세상에 살았던 어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수행하였도다. ... 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보기에 위대하게 살다가 위대하게 죽었으니.”(교리와 성약 135:3)



**성스러운 비탈, 데이비드 린**

1856년 10월 23일, 윌리 손수레 부대는 눈과 몰아치는 바람 속에서 8킬로미터를 걸어 가파른 록키 리지를 올랐다. 누비 이불로 몸을 감싸기는 했지만 몇몇은 죽고 말았다. 그러나 그 부대는 그들의 머리 위에 떠 있는 덮개가 상징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소망과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다.

# 리아호나

2 제176차 반연차 대회 요약

## 토요일 오전 모임

- 4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을 전합니다  
고든 비 헝클리 회장
- 6 무거운 짐 진 자들을 고치심  
델린 에이치 욱스 장로
- 9 성전은 가족에 관한 곳입니다  
리차드 에이치 윈켈 장로
- 11 첫 번째 세대  
폴 비 파이퍼 장로
- 13 신앙, 봉사, 꾸준함  
데이비드 에스 벡스터 장로
- 15 인내의 힘  
로버트 시 욱스 장로
- 17 오 지혜로우라  
엠 러셀 밸라드 장로
- 20 제자가 됨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 토요일 오후 모임

- 23 교회 역원 지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24 거룩한 경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권능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 28 일요일은 올 것입니다  
조셉 비 위스틴 장로
- 31 영원을 향해 바라보십시오!  
일레인 에스 돌튼
- 33 속죄는 우리의 삶을 청결케 하고  
개선하며 성결케 할 수 있습니다  
쉐인 마텔 보웬 장로
- 35 십일조의 율법  
다니엘 엘 존슨 장로
- 37 개인적인 간증의 힘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 40 평안과 행복을 확실하게 해 주는 속죄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 신권 모임

- 43 신권 정원회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 46 대장부가 됩시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 49 위대한 행복의 계획  
마크스 비 내쉬 장로
- 51 그분은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스탠리 지 엘리스 장로

53 영적 자양분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56 우리의 신권 의무에 충실함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59 일어서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고든 비 헝클리 회장

## 일요일 오전 모임

- 62 굳도다 그 기초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69 구원의 계획  
엘 톰 페리 장로
- 72 수건 세 장과 25센트짜리 신문  
리차드 시 에즐리 감독
- 74 너희의 어린 자들을 보라  
마저릿 에스 리퍼스
- 76 “크고도 놀라운 사랑”  
앤소니 디 퍼킨스 장로
- 79 흠어진 이스라엘의 집합  
러셀 엠 넬슨 장로
- 82 산을 옮기는 신앙  
고든 비 헝클리 회장

## 일요일 오후 모임

- 85 방어진과 피난처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 89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 92 영으로 받음  
에이 로저 메릴 형제
- 94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감  
크레이그 에이 카든 장로
- 97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됨  
돈 알 클라크 장로
- 99 그리하여 그들이  
당신을 알도록  
키스 알 에드워즈  
장로

102 그러므로 이를 명심하라  
래리 터블류 기브슨 장로

104 그 땅에 다시 선지자들이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107 폐회 말씀  
고든 비 헝클리 회장

## 상호부조회 총회

- 108 그분의 사랑에 영원토록 둘러싸임  
보니 디 파킨
- 111 주님의 사랑을 기억함  
캐서린 에이치 휴즈
- 113 바라보고 손을 내밀며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옴  
앤 시 핑그리
- 115 그분의 사랑의 팔에  
고든 비 헝클리 회장

64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역원

- 119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 120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연차 대회를  
우리 삶의 일부로 삼음
- 122 아론 신권 및 청년 참모 지도서
- 125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 126 교회 소식



## 제176차 반연차 대회 요약

### 2006년 9월 30일 토요일 오전 모임

감리: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사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개회 기도: 메일 제이 베이트먼 장로. 폐회 기도: 리차드 제이 메이너즈 장로. 음악 제공: 태버나클 합창단, 지휘: 크레이그 제섭,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 리처드 엘리엇, 존 룡허스트, "영문 찬송가 265장, "Arise, O God, and Shine", 찬송가 25장,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를 위하여", 윌버그 편곡, 미발표, 찬송가 173장, "선한 영향 주는 삶", 쿤디 곡, 잭맨 편곡, 발표, 찬송가 27장, "이스라엘의 구주", 찬송가 174장,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 윌버그 편곡, 미발표, 찬송가 10장, "애통하는 이스라엘", 윌버그 편곡, 미발표.

### 2006년 9월 30일 토요일 오후 모임

감리: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사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개회 기도: 데일 이 밀러 장로. 폐회 기도: 진 알 쿡 장로. 음악 제공: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 연합 합창단, 지휘: 더글라스 브렌칠, 오르간 반주: 린다 마게즈, "모든 발자취엔 신앙이", 데일리 곡, 넬리 편곡, 미발표, "구유에서 나신 예수", 찬송가 121장, 케이스 곡, 잭슨 발표, "높은 산 언덕 위", 찬송가 2장, "들오라 만방 하늘 음성", 찬송가 167장, 더핀 편곡, 미발표.

### 2006년 9월 30일 토요일 저녁 신권 모임

감리: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사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개회 기도: 클라트 더블류 마스크 2세 장로. 폐회

기도: 더블류 크레이그 즈위크 장로. 음악 제공: 유타 브리검시티 멜기세덱 신권 합창단, 지휘: 엔 지오프레이 앤더슨, 오르간 반주: 클레이 크리스티슨. 영문 찬송가 330장, "See, the Mighty Angel Flying", 찬송가 43장 "위대하신 여호와여", 윌버그 편곡, 미발표, 찬송가 36장 "기뻐하라 너희 주는 왕이시라", 찬송가 79장 "어둠에 싸인 밤에", 윌버그 편곡, 미발표.

### 2006년 10월 1일 일요일 오전 모임

감리: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사회: 고든 비 힝클리 회장. 개회 기도: 칼 비 프랫 장로. 폐회 기도: 더블류 더글러스 셉웨이 장로. 음악 제공: 태버나클 합창단, 지휘: 크레이그 제섭,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 존 룡허스트, 찬송가 35장 "굳도다 그 기초", 찬송가 61장 "기도는 영혼의 소망", 어린이 노래책 16쪽, "주는 이 몸을 사랑해요", 찬송가 32장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 "How Lovely Is Thy Dwelling Place", 브람스 곡, 제섭 편집, 찬송가 34장 "감사하는 백성이", 윌버그 편곡, 미발표.

### 2006년 10월 1일 일요일 오후 모임

감리: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사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개회 기도: 제이 이 젠슨 장로. 폐회 기도: 도널드 엘 스타헬리 장로. 음악 제공: 태버나클 합창단, 지휘: 크레이그 제섭,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 보니 굿리프와 린다 마게즈, 영문 찬송가 15장 "I Saw a Mighty Angel Fly", 윌버그 편곡, 미발표, 찬송가 104장 "예수님

생각하오니", 윌버그 편곡, 미발표, 찬송가 13장 "오라 주의 자녀들", 찬송가 6장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윌버그 편곡, 미발표.

2006년 9월 23일 토요일 저녁 상호부조회 총회 감리: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사회: 보니 디 파킨. 개회 기도: 줄리 헤일즈. 폐회 기도: 테니스 아이 헤일즈. 음악 제공: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상호부조회 합창단, 지휘: 엘리자베스 발렌타인, 오르간 반주: 보니 굿리프, 영문 찬송가 70장 "Sing Praise to Him", 윌버그 편곡, 미발표, "When I Feel His Love," 페리 곡, Prime Recordings 발표 (솔로: 멜린다 락우드), 영문 어린이 노래책 62장 "Beautiful Savior", 윌버그 편곡, 미발표 (플룻: 지니 고케리츠, 잉글리쉬 호른: 보니 쉬로우더), "O Holy Jesus", 윌콕 곡, Sacred Music Press 발표.(하프: 터마러 오스왈드)

### 연차 대회 녹화 자료 구입

여러 언어로 된 연차 대회 모임 녹화 자료는 일반적으로 대회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배부 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연차 대회 말씀 인터넷 게재

인터넷 상에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대회 말씀을 접하고자 한다면 [www.lds.org](http://www.lds.org)에 접속하십시오. "Gospel Library"와 "General Conference"를 클릭한 후 해당 언어를 선택하면 됩니다.

### 가정 복음 교육 및 방문 교육 메시지

가정 복음 교육 및 방문 교육 메시지는 여러분이 방문하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에 가장 잘 맞는 대회 말씀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표지

소년과 함께 있는 그리스도, 칼 하인릭스 블록스

### 대회 사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연차 대회 장면들은 크레이그 다이몬드, 웰든 시 앤더슨, 존 루크, 매튜 레이어, 크리스티나 스미스, 레스 닐슨, 스코트 데이비스, 엠버 클러슨, 로드 보엠, 에밀리 리쉬먼, 제프리 머켈리스터, 더스틴 파이프, 바하마의 조셉 윌터 그리핀, 브라질의 러레니 포체토, 캄보디아의 트레보 라이트, 멕시코의 크리스천 배러건과 이스라엘 굿티예레이스, 필리핀의 대니 솔레타와 엘 카벨 파이팅, 러시아의 블라드미르 에고로프, 스코틀랜드의 마크 핀치 헤이덴그렌, 통가의 멜 나우가 찍었다.



#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제11호

26991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공식 잡지임

**재일화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정월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라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라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헨리 비 아이어링, 디아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편집인:** 제이 이 젠슨

**고문:** 게리 제이 클린, 요시히코 기무찌, 제랄드 앤 런던, 더블류 더글라스 섬웨이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스네호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신임 편집인:** 래리 힐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 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아담 시 울슨

**보조 편집인:** 수잔 배렛

**편집 스태프:** 크리스티 반즈, 린다 스탈 쿠퍼,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라렌 포터 곤트, 캐리 카스텐, 앨빈 레비, 멜리사 메릴, 마이클 알 모리스, 샬리 제이 오데커, 주디스 엠 팔러, 비비안 폴슨, 리처드 엠 톰니, 제니퍼 로즈, 돈 엘 샬, 재닛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워델, 캄발리 웹

**선임 비서:** 모니카 엘 디킨슨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외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캄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엘리 알 아로요, 클레트 네베커 오운, 브리타니 존스 빙, 허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안, 캐슬린 허워드, 에릭 피 존슨, 디니스 커비, 랜달 제이 픽스톤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

**배부 책임자:** 랜디 제이 맨슨

통 권: 제 488호, 제 43권, 제 11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6년 11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홍우광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외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로 바꾸고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교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liahona@ldschurch.org**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사모아어, 세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벨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히아티어, 헝가리어, 힌디어(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 2006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November 2006 No. 11.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 연사들(가나다 순)

- 고든 비 힝클리, 4, 59, 82, 107, 115
- 다니엘 엘 존슨, 35
- 달린 에이치 옥스, 6
- 데이비드 에스 백스터, 13
-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89
- 돈 알 클라크, 97
-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46
- 디아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37
- 래리 더블류 기븐스, 102
- 러셀 엠 넬슨, 79
- 로버트 디 헤일즈, 24
- 로버트 시 옥스, 15
- 리처드 시 예즐리, 72
- 리처드 에이치 윈켈, 9
- 리처드 지 스코트, 40
- 마거릿 에스 리퍼스, 74
- 마커스 비 내쉬, 49
- 보니 디 퍼킨, 108
- 보이드 케이 패커, 85
- 세인 엠 보웬, 33
- 스탠리 지 엘리스, 51
- 앤 시 핑그리, 113
- 앤소니 디 퍼킨스, 76
- 에이 로저 메릴, 92
- 엘 톰 페리, 69
- 엠 러셀 벨라드, 17
- 일레인 에스 돌튼, 31
- 제임스 이 파우스트, 20, 53
- 제프리 알 홀랜드, 104
- 조셉 비 워스런, 28
- 캐서린 에이치 휴즈, 111
- 크레이그 에이 카든, 94
- 키스 알 에드워즈, 99
- 토마스 에스 몬슨, 23, 56, 62
- 폴 비 파이프, 11
- 헨리 비 아이어링, 43

## 주제별 색인

- 가족, 9, 85
- 간증, 37, 62, 104
- 개인의 가치, 76
- 개척자, 82
- 견딤, 99
- 결속성, 43
- 경전, 24, 53, 62, 92, 111
- 계명, 102
- 교육, 59, 115
- 교회 성장, 4
- 구원의 계획, 49, 69
- 기도, 62, 82
- 기준(표준), 85, 102
- 남자다움, 46
- 도덕성, 102
- 동성애, 6
- 동정, 108
- 마음이 상함, 89
- 모범, 11
- 몰몬경, 24
- 배도, 79
- 배움, 92
- 보호, 74
- 봉사, 13, 17, 43, 53, 56, 62
- 부름, 17
- 부활, 28
- 사랑, 9, 74, 108, 115
- 사망, 28
- 상호부조회, 115
- 선교 사업, 4, 69
- 선지자, 104
- 선택의지, 89
- 성신, 37, 92, 97, 111
- 성약, 51, 79
- 성전, 4, 9, 31
- 속죄, 6, 33, 40, 99
- 순결, 31
- 순종, 11, 20, 40, 97

- 신권, 43, 51, 53, 56, 59, 94
- 신뢰, 56
- 신성한 성품, 76
- 신앙, 13, 35, 53, 62, 82, 115
- 십일조, 35
- 어린이, 74
- 역경, 6, 13, 85, 99
- 연차 대회, 104, 107
- 영성, 53
- 예수 그리스도, 6, 15, 24, 28, 46, 69, 76, 113
- 외설물, 6, 59
- 용서, 33, 76, 89
- 유혹, 49
- 위로움, 94
- 의무, 56
- 의식, 11, 94
- 이스라엘의 집합, 79
- 인내, 15, 89
- 자매됨, 108
- 자립, 115
- 자애, 15, 97, 113
- 직직, 72
- 제자됨, 20
- 지혜, 17
- 책임, 46
- 청렴, 46, 72
- 축복, 35
- 충실, 13
- 치유, 6
- 평화, 40, 107, 111
- 합당성, 31, 51, 53, 56, 59
- 행복, 40, 49
- 회개, 31, 33, 40, 49, 113
- 회복, 79
- 희망, 28, 76
- 희생, 20, 82

#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을 전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교회를 풍성하게 축복하고 계시며, 우리의 의무는 교회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형** 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또 한번의 연차 대회에서 교회의 힘과 영향력이 계속 성장해 가고 있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24년 전인 1982년에 저는 이것을 제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0월 연차 대회 때는 300 군데 이상의 장소에서 우리 위성 방송 서비스를 수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다른 여러 나라에 사는 회원들이 연차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모일 수 있는 스테이크 센터가 300개 이상 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제 저는 교회 소유의 위성 수신 장치를 구비한 장소가 83개국에 걸쳐 6,066개가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저는 교회가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전세계의 후기 성도들과 접촉하고 통신할 수 있는 능력도 증가하고 있는 것에 참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더 많은 침례가 나오기를 바라지만, 세계 어느 곳에서나 그런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160여 개 국가의 회원들이 거두어들이는 추수는 굉장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후기 성도가 별로 없던 지역에 지금은 충실하고 능력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이 지도자로 봉사하는 건실한 와드와 스테이크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능력의 한계 때문에 가고자 하는 곳에 전부 가지는 못하지만, 제일회장단, 십이사도, 칠십인들은 전세계에 있는 많은 스테이크에 위성을 통해 말씀을 전함으로써 이를 대신합니다.

상황은 변해도 우리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이 열리고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곧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간증을 전세계에 전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가져올 열쇠 및 권세와 더불어 신권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엄숙히 증명합니다.

우리는 최근 세계에서 123번째이자, 캘리포니아에서는 7번째인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성전을 새로이 헌납했습니다. 또한 솔트레이크 지역에서 또 하나의 성전 기공식이 있었습



니다.

우리는 솔트레이크 태버나클의 보수 공사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태버나클 합창단은 내년 봄 이 독특하고 훌륭한 시설에서 주례 방송을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템플스퀘어의 환경 보호를 위해 대규모 개발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막대하겠지만 이를 위해 십일조 기금이 지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계속해서 십일조와 헌금을 바침으로써 충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컨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풍성하게 축복하고 계시며, 우리의 의무는 교회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합창단의 노래가 끝

나면 우리는 이 훌륭한 대회를 통해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모든 모임 순서를 주님의 영이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영으로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무거운 짐 진 자들을 고치심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능력은 필멸의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에  
적용될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많은 이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사별한 사람, 장애자를 보살피  
는 사람, 또는 이혼으로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  
가 하면, 영원한 결혼을 갈망하는 사람, 알코  
올, 담배, 마약, 또는 외설물과 같은 습관성  
물질이나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  
다. 어떤 이들은 신체 또는 정신 장애를 갖고  
있으며, 동성에 문제로 씨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심각한 우울증을 겪거나 불완전하  
다는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이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음과 같은 애  
정어린 권유를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  
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28~30)

경전에는 구주께서 무거운 짐 진 자들을  
“고치신” 기사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분은 눈  
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  
고, 중풍 환자와 혈기 마른 자와 불구자를 고  
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악령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은 신체  
적인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이 “성함을  
얻었다” (마태복음 14:36; 15:28; 마가복  
음 6:56; 10:52; 누가복음 17:19; 요한복  
음 5:9 참조)는 기사를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이들의 육신의 병을 고쳐  
주셨지만, 다른 병에서 “성함을 얻기”를 바라  
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도 미루지 않으셨습니  
다. 그분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아픔과 질병  
을 고치셨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마  
태복음 4:23; 9:35 참조) 수많은 무리가 그  
분을 따랐고, 그분은 “그들의 병을 다 고치”(마  
태복음 12:15)셨습니다. 틀림없이 이 고침에

는 정서적, 정신적 또는 영적인 병을 앓고 있  
는 이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 모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회당에서 행하신 초기 설교에서, 예수님은  
이시아서의 다음 예언을 소리 내어 읽으셨습니  
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비탄에 빠  
진 자를 고치시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누가 복음 4:18) 예수님께서  
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고 선포하  
시면서, 육신의 병을 가진 이들을 고치시고,  
또 포로된 자를 건지시고, 눌린 자를 구하시  
며, 비탄에 빠진 자를 고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러한 성역을 베푸신 예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수많은 무리  
가 [예수의]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  
고자 하여” (누가복음 5:15) 왔던 때에 관해  
이야기해 줍니다. 다른 경우에는 그분이 “많이  
고치시며” (누가복음 7:21) “병 고칠 자들은  
고치” (누가복음 9:11) 셧다고 기록하고 있습  
니다. 이것은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  
을 받으려고” (누가복음 6:17) 허다하게 많은  
무리가 평원으로 내려왔다고 기술하고 있습니  
다.

신대륙에 있는 의로운 자들에게 나타나신  
구주께서는 다리 저는 자나 눈 먼 자나 다른  
육신의 병이 있는 자들을 앞으로 나아오게 하  
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어떻게든지 고난을 당  
하는 자” (제3니파이 17:7)들에게도 똑같은  
초대를 하셨습니다. “이리로 데려 오라. 그러  
면 내가 그들을 고쳐 주리라”(7절)고 하셨습니  
다. 물몬경은 어떻게 무리들이 “어떤 식으로든  
고난 당하는 모든 자들” (9절)을 앞으로 데려  
왔는지 말해 줍니다. 여기에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종류의 육체적, 정서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겪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경전은 예수님께서 “모  
든 사람을 고쳐주”(9절)셨다고 증거하고 있습  
니다.



구주는 우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것이나 그분이 “세상을 이기었”(요한복음 16:33)으로 “담대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분의 속죄는 죄값을 치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며, 그것은 그렇게 할 만큼 충분한 권능이 있습니다. 물론경은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그가 나아가사,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리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엘마서 7:11; 또한 니파이 후서 9:21 참조)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고자 하십니다. 그분의 비유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부상 당해 길가에 쓰러져 있는 우리를 발견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보살피 주십니다. (누가복음 10:34 참조) 형제자매 여러분, 그분의 속죄의 치유하는 권능은 여러분을 위한, 우리를 위한,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찬송가 “주여 큰 폭풍우 일고”의 기도하는 듯한 가사는 모든 것을 망라하는 그분의 치유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비탄하여 나 앞드려 밍니다  
내 맘에 번민 심하오니 깨셔서 구함소서  
홍홍한 물결 내 영혼 휩쓸어 가오니  
죽습니다 곧 난 죽습니다 급히 구해 주소서  
(찬송가 59장)

우리는 멜기세덱 신권의 권세를 통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사도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마태복음 10:1; 또한 마가복음 3:15; 누가복음 9:1~2 참조)는 권능을 주셨으며 그들은 나아가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누가복음 9:6; 또한 마가복음 6:13; 사도행전 5:16 참조)합니다. 칠십인 또한 병자를 고치기 위한 권능과 지시를 갖고 파송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9; 사도행전 8:6~7 참조)

구주께서는 고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었지만 그분의 신권 권세를 가진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 권세를 행사하는 것은 그 신권을 지닌 주님의 뜻에 의해 제약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장로들이 축복

해 주었는데도 그들이 “죽기로 정해져”(교리와 성약 42:48) 있기 때문에 치유되지 못한 사례들을 듣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그를 자만하지 않게 했던 “육체의 가시”(고린도후서 12:7)를 고쳐 달라고 간구했지만, 주님은 고쳐 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후에 바울은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9절)고 설명하셨다고 적었습니다. 바울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응답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9~10절)

병 고침의 축복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각 개인의 필요 사항에 맞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옵니다. 때때로 “병 고침”은 병 자체를 치유하거나 우리의 짐을 들어올려 줍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위에 놓여진 짐을 견디기 위한 힘이나 이해력 또는 인내가 주어짐으로써 “병 고침”을 받습니다.

앨마를 따랐던 사람들은 사악한 압제자의 속박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조를 간구했을 때, 주님은 결국에는 그들을 구해 주시겠지만, 그 동안 “곧 너희가 속박되어 있는 동안 참으로 너희가 너희 등에 그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 이는 내가 행할 것은 … 너희를 … 증인으로 서게 하려 함이요, 내 주 하나님은 진실로 내 백성을 그들의 고난 중에 돌아”(모사 이야기서 24:14) 보시어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경우에 사람들은 그들의 짐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사 “그들로 쉽게 그들의 짐을 지게 하시매, 그들이 주의 모든 뜻에 즐거이 인내를 가지고 복종하였”(15절) 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과 효력은 미망인이거나 이혼한 어머니들, 외로운 독신들, 무거운 짐을 진 돌보는 사람들, 중독자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짐을 진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선지자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모로나아서 10:32)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짐이 너무 커서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버림받은 느낌이 들어 폭풍 속에서 제자들처럼 이렇게 외치고 싶을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마가복음 4:38) 그와 같은 때에 우리는 그분이 하신 대답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40절)

우리의 짐을 없애 주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를 강화시켜 사도 바울과 같이 견디고 그것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는 것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능력은 필멸의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에 적용될 것입니다.

제가 연차 대회에서 외설물의 악에 대해 말한 후에(“외설물”, *리아호나*, 2005년 5월, 87~90쪽 참조) 이 중독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로 부터 여러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중 어떤 편지들은 외설물을 극복한 사람들이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독의 멍에 걸린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지배하는 죄의 어두움을 빠져 나온 저의 경험에서 얻은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1)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극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입니다. … (2) 회개 과정에서 도움과 힘의 가장 중요한 근원은 구주입니다. … (3) 매일의 집중적인 경전 연구, 정기적인 성전 예배, 그리고 진지한 명상이 수반되는 성찬 의식 참여는 참된 회개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모든 활동들이 구주와 우리의 관계, 그분의 속죄의 희생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분의 치유 능력을 믿는 신앙을 깊게 하고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 10월 24일자 편지)

구주께서는 “내게로 오라 …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를 얻으리니”(마태복음 11:28~29)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그 사람은 주님께로 향했으며 우리 각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외설물 중독으로 결혼 생활을 위협 받았던 한 자매는 고통에 찬 5년 동안, 어떻게 그녀가 남편 곁에 있었는지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구주의 영화로운 속죄의 은사와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저의 남편은 마침내 자유롭게 되었으며, 저 역시 그렇습니다.] 죄로부터 깨끗해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속박에서 구해 내기 위해 노력했던 그녀는 다음과 같은 충고를 적었습니다.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 그분은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이미 고통을 느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 짐을 지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여러분의 짐을 그분의 발 아래 놓고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영혼 깊은 곳에서 여러분의 고통이 그분의 평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2005년 4월 18일자 편지)

어떤 형제는 한 총관리 직원에게 속죄의 권능이 어떻게 그의 동성애 문제에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 적었습니다. 그는 성전 성약과 자녀들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심각한 범법 때문에 파문 당했습니다. 그는 복음에 따라 생활하려 노력할 것인지 아니면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길을 계속 갈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려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떤 일들을 겪게 될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그의 편지는 공감과 외로움과, 돌아오려 했을 때 영혼 깊은 곳에서 경험한 엄청난 고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용서를 간절히, 어떤 때는 한 번에 몇 시간 동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는 경전 읽기와 친절한 감독의 보살핌, 그리고 신권 축복을 통해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변화를 일으킨 것은 우리 모두에게 그분께 오라고 권유하시는 구주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과 그분의 속죄를 통해서였습니다. … 이제 저는 넘쳐 흐르는 감사를 느낍니다. 저의 고통은 때로는 제가 견딜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이었지만 그분이 겪으신 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았습니다. 한때 제 인생에서 어둠이 있던 곳에는 이제 사랑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가 가능하며, 치료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 주제에 관해 잘 알고 있고 또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들이 이 과정에 하나님 아버지를 포함시키는 것을 잊고 있다는 점입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또한 걱정됩니다. ... 왜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천적인 것인지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 때문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제 인생에 이 난관이 있다는 점이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2006년 5월 25일자 편지)

이러한 편지를 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것이 주는 “병 고침”이 죄로부터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많은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속죄는 또한 우리에게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견디는 힘을 주는데, 이는 우리의 구주께서 또한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엘머서 7:11)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 그리고 신권의 권능이 여러분의 고통을 치유하지 못하더라도, 속죄의 권능은 그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너희 영혼 속에서] 쉬게 하리니.” (마태복음 11:28~29)

우리가 지상 생활의 어려움들과 씨름하면서, 저는 선지자 몰몬이 그의 아들 모로나이를 위해 간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를 위해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들어 올리시기를 바라며, 또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 그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그의 영광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이 영원히 네 마음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노라.” (모로나이서 9:25)

그분께 와서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되라고 우리에게 권유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중 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며, 무거운 짐 진 자들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아멘. ■

# 성전은 가족에 관한 곳입니다

리처드 에이치 윈켈 장로  
칠십인 정원회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사랑은 그 전보다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히**클리 회장님이 방금 언급하셨듯,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123번째 성전이 최근 히클리 회장님에 의해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에서 헌납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은 새크라멘토와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8만 명 이상의 훌륭한 회원들을 위한 것입니다. 168,000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건물의 일반 공개 기간 동안 성전을 돌아보았습니다. 방문객들은 회원들이 세상 어느 곳보다 더 숭고한 이 건물에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오늘날 이 험한 세상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평안

과 소망을 그분을 통해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사랑은 그 전보다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성전은 가족에 관한 곳입니다. 아내 캐린과 저는 성전 봉사를 더 많이 하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커졌습니다. 또한 그 커진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부모, 형제자매, 숙모, 숙부, 사촌, 조상, 그리고 특히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영, 즉 가족 역사 사업의 영이며 성신에 의해 영감받을 때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합니다. 신권으로 인해 남편과 아내는 함께 인봉되고 자녀들은 영원히 부모에게 인봉되어 가족은 영원하게 되며 사망시 갈라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렸던 젊은 부모 시절에 아내와 저는 아이들에게 신앙개조를 모두 외우라는 목표를 주었습니다. 다 외웠을 때의 상이나 보상은 아빠와의 저녁 나들이였습니다. 우리는 첫째부터 셋째 아이가 그 목표를 이루어 기뻐했습니다. 일곱 살짜리 아이가 제일 먼저 신앙개조 13개를 다 외우자 우리는 같이 앉아 언제 어떤 활동을 할지를 정했습니다. 저는 직장과 사회 활동, 그리고 교회 책임들로 너무 바빠 약 2주일 간 아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밤새도록 문을 여는 볼링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날을 잡고 아침 5시에 활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을 먹은 후 시내에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그 날이 되었을 때, 저는 아주 이른 시간에 누군가가 제 어깨를 흔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뜨려는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시간 됐어요?” 자명종 시계를 보니 겨우 새벽 2시였습니다.

“가서 자거라, 얘야. 아직 아니란다.”

한 시간 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빠, 아빠, 이제 갈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아이를 되돌려보내면서, 저는 아이의 들뜬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후 새벽 4시, 우

리는 일어나 아침을 먹고 볼링장을 향해 떠났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자녀들과 주기적으로 그와 같은 기억할 만한 활동들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저는 종종 다시 과거로 돌아가 어떤 일들을 다시 할 수 있다면 하고 바라는 부모 중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처럼 저 또한 어떤 자녀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가족 모두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성전은 우리 모두에게 이 삶 이후에도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고 발전할 것이라는 한층 더 큰 희망을 줍니다.

성전에서 부여되는 인봉은 특별한 축복들을 약속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

는데, 그는 이보다 더 위안을 주는 교리를 가르친 적이 없었습니다. “충실한 부모들의 영원한 인봉과 진리의 대업에서 행하는 용감한 봉사에 대해 그들에게 주신 신성한 약속에 따라 그들 자신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구원 받게 될 것입니다. 양 뿔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맬지라도 목자의 눈은 그 양들을 향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 양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와 우리 속으로 다시 이끌어주는 신성한 섭리의 손길을 느낄 것입니다. 이 생이든 다음 생이든 그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공의에 대한 부채를 지불해야 하고, 자신들의 죄로 고통을 받을 것이며, 가시밭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죄를 뉘우친 탕자처럼 사랑이 많고 관대한 아버지의 품과 집으로 마침내 이르게 된다면, 고통스러운 경험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sup>1</sup>

이 말씀은 자녀들이 자신들에게로 인봉되는 부모들에게 얼마나 고무적인 소식입니까?

성전이 가져다 주는 다른 몇 가지 축복들을 살펴봅시다.

주님의 집은 세상으로부터의 피난처입니다. 세크라멘토 회원들은 건물의 일반 공개에 참석한 사람들과 다음과 같은 말을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들로 가득 차 있고 당장 마음을 쏟아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생각이 명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전에 있으면 혼란의 먼지가 가라앉고 흐릿한 안개가 걷히듯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sup>2</sup>

성전 안의 해의 왕국실은 평온과 고요와 아름다움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반성하고 숙고하며 기도하고 명상할 수 있는 조용한 안식처이자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숙고하고 명상할 때 우리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집중됩니다.

사무엘하 22:7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다윗의 말을 읽게 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나의

# 첫 번째 세대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성전은 우리가 청지기 직분을 다 하도록 축복해 줄 개인적인 계시의 장소입니다.

힝클리 회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속주가 모든 인간을 위해 희생 제물로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버림으로써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성전에서 대리 사업에 참여할 때,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장막 막편에 있는 분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는 한 발전할 방법이 없는 그들에게 작은 의미에서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sup>3</sup>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참으로 의미 있는 봉사입니다. 이는 돌아가신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실질적으로 더욱 우리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성스러운 존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 더욱 깊이 연구해 보시기를 권고합니다.”<sup>4</sup>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전에 참석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성전은 가족에 관한 곳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사실 또한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봉사의 모범을 그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성전은 그분의 거룩한 집입니다. 저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이자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우리의 중보자요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변호인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영원히 행복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성전을 자주 찾기를 바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올슨 에프 휘트니, Conference Report, 1929년 4월, 110쪽.
2. 보이드 케이 패커, “The Holy Temple,” *Tambuli*, 1992년 6월, 23쪽; *Ensign*, 1995년, 36쪽.
3. Discour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Volume 2, : 2000~2004 (2005), 265쪽.
4. *History of the Church*, 6권 363쪽.

폴 비 파이버 장로  
칠십인 정원회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첫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세대가 축복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세대요 선택 받은 세대가 됩니다.



**며** 칠 전 우리 가족은 식사를 하면서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열세 살 난 딸 클라리사는 모스크바에 있는 우리 지부에서의 성찬식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불안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딸에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안심시켰으며, 적어도 연차 대회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제 자신의 불안을 나타냈습니다. 클라리사는 제게 다음과 같이 조언해 주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아빠. 그냥 큰 지부라고 생각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매우 큰 지부의 회원들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세대 회원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살아 계신 선지자와 선견자 그

리고 계시자가 있는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상에 회복되었다는 메시지를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첫 번째로 듣고 받아들인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겸손해졌으며, 신앙을 행사했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침수로써의 침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짚어졌으며, 성신을 받았습시다.<sup>1</sup>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첫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세대가 축복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세대요 선택 받은 세대가 됩니다.<sup>2</sup>

교회의 제1세대 회원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이전에 걷지 않았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주위의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친구나 친척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들이 가치 있는가를 의심하며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침에 저는 그것이 가치가 있음을 확신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1세대 회원들은 교회와 자신들의 가족 안에서 특별하고도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1세대 회원들이 교회 회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sup>3</sup> 교회의 초기 시절 이래로 아마도 오늘날처럼 제1세대가 교회 총 회원 중에서 이렇게 큰 비율을 차지했던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간증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며 축복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우리는 복음 원리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얻고 우리의 간증



필리핀의 한 집회소에 도착한 가족.

은 강화됩니다.

여러분이 와드와 지부에서 왕국 건설을 위해 여러분의 간증, 재능, 능력, 강점과 힘을 사용할 때 여러분은 교회에 큰 힘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나누고 선교사로 봉사하며, 자녀들을 선교사로 내보내고 새로운 회원들을 환영하는 일에 훌륭한 모범이 됩니다. 여러분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친절한 손길을 뻗어 고무적인 봉사를 통해 그들을 들어올리고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들의 상당 부분이 여러분의 노력 없이는 행해질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제1세대 회원으로서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모범이 됩니다. 그들이 교회의 회원이건 아니건 간에 가정에서 복음에 따라 생활할 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 구주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좋은 일에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비록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것을 받아들일 정도의 충분한 신앙이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인내하고 친절하며, 그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돕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선하고 올바르게 행함으로써 여러분은 충실함과 의로움의 본보기를 확립할 것입니다. 그러한 본보기는 여러분의 삶을 형성할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가족과 후손들에게 표준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제1세대로서 여러분은 또한 복음을 듣거나 구원 의식을 받지 못하고 죽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주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의 열쇠는 그들을 대신하여 이 사업을 시작할 유일한 기회와 특권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그들을 찾기를 열망하고 있으며 그들의 기록을 찾는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일단 그들을 찾고 나서 합당한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은 성전에 참여하여 그들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의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들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조상들과 묶어 주고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영적인 권능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1세대 회원이므로 여러분이 내리는 각 선택은 중요합니다. 작고 사소하게 보이는 결정들이 여러분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 세대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한 젊은 1세대 회원인 크리스는 침례받은 바로 다음 날 직장에서 술을 마시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압력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전날 그가 침례를 받았고 주님과 약속을 맺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으므로 좋지 않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후에 그때의 사건을 떠올리며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제 내가 그러한 (침례) 약속을 맺은 지 사십 년이 되었다. 나는 참으로 내가 지혜의 말씀을 지켜왔다고 말할 수 있다 … 그때 내가 술을 마셨더라면 난 아마 그 이후로도 지혜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것이다.”<sup>4</sup>

그러나 크리스는 자신의 침례 약속을 지켰습니다. 후에 그는 충실한 회원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여덟 명의 자녀들을 복음 안에서 키웠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세대가 된 그의 충실한 후손들의 수는 수백 명이나 됩니다. 수십 명이 선교사로 봉사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가족 역사에 대한 그의 노력으로 복음의 축복의 문이 수백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열렸습니다. 1세대 회원 한 명이 내린 하나의 작은 결정이 수천 명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첫 번째 세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위치와 선을 위해 여러분이 가진

# 신앙, 봉사, 꾸준함

데이비드 에스 벡스터 장로  
철심인 정원희

자신의 신앙을 가꾸고, 봉사를 통해 발전하며 어떤 일이 있든 꾸준하고  
참여하게 견딜 때, 우리는 구주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39년 전, 주님의 선교사 두 명이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있던 우리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밝음과 겸손함, 그리고 신앙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그들이 우리 집에 있을 때면 우리는 언제나 사랑과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선 그 자체의 느낌이었습니

다. 그들의 가르침은 개인적이고, 진지하고 친숙한 것이었으며, 우리는 그 가르침이 참됨을 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주 후에 우리는 침례와 확인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교회 가족이 된 회원들과 지도자들은 그 즉시 우리를 우정과 친절함으로 맞아주었습니다.

그러하여 우리는 삶의 곳곳을 풍성하게 하고 축복해 주었던 복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길의 목적과 방향은 깊고도 영구적이며

평온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새로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소망에서 저는 오늘 그 길을 따라오며 배운 복음의 세 가지 기본 원리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동기를 부여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러한 신앙은 영적인 산소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내부로 자유롭게 흐르도록 할 때, 그 신앙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일깨워 활기를 주며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신앙이 유입되면, 우리는 민감하게 성신의 속삭임에 자신을 맞추게 됩니다. 우리의 정신은 밝아지고, 영적인 맥박은 빨라지며, 마음은 감동을 받습니다.

신앙은 소망에 원동력을 줍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비전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삶에서 또한 다른 것에서 최악이 아니라 최고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더욱 깊은 이해를 얻습니다. 절망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이러한 신앙은 하늘의 선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가꿀 수 있습니다. 성경 사전에 나와 있듯이, 종종 “신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간증을 들음으로써 불붙습니다.”<sup>1</sup> 그런 후에 신앙은 우리 자신에게 믿음을 갖게 하면서, 가꾸어집니다. 다른 모든 덕성들처럼, 신앙은 그것을 실천하고, 그에 따라 생활하며 마치 우리의 신앙이 이미 깊어진 것처럼 행동할 때 강화됩니다. 신앙은 의로운 소망, 믿음, 순종의 산물입니다.

이것은 물론경에 나오는 라모나이 왕의 부

영향력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릇된 선택을 하도록 유혹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합니다. 다행히도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회개와 그분의 아들의 속죄에 의지함으로써 실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습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것은 어쩌면 첫 번째 세대가 익혀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 방침입니다. 인내하시고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교회에서 우리는 교회 역사 초기의 개척자들에게 많이 읽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가족, 직장, 그리고 신앙에 대한 도전을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평범하지만 선한 삶을 살았고, 교회에서 충실하게 봉사했으며, 자신들의 가족을 축복했습니다. 그들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이제 그들의 후손들인 우리는 존경과 감사로 그들의 충실함을 되돌아봅니다.

그들의 유산은 제 1세대 회원이라는 점에서 동료인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충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첫 번째 세대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세대들을 축복할 선택 받은 세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과거와 미래 세대들도 여러분께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세대로 충실하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신앙개조 1:4; 교리와 성약 20:37 참조.
2. 베드로 전서 2:9 참조.
3. 교회 회원 및 통계 기록부에 따르면, 2006년 7월 현재 제1세대 회원이 교회 총 회원의 64퍼센트에 달했다.
4. *History of Heinrich Friedrich Christian Pieper and Emma Frieda Alber and their Family* (1987년), 29쪽.



친이 아론의 간증을 듣고 기꺼이 믿고 실천하여 겸손한 기도로 인도되어 “...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지거든, 내게 당신을 알려 주시겠나이까? ... 나의 모든 죄를 버리겠나이디 ... ”<sup>2</sup>라고 말한 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간증의 영에 감동되도록 우리 자신을 허락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고, 소망하며 깊이 생각하고 구하며 우리의 신앙을 가꾼다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봉사하면서 발전합니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받는 데 있지 않고 주는 데 있습니다.”<sup>3</sup>

비이기적인 봉사는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방종으로 인해 생긴 병마들에 대한 훌륭한 해결책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할 때 비통해하고 불안해하는데, 만약 그들이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 쪽으로만 관심을 더 둔다면 그들의 삶은 굉장히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자기 방종을 극복하는 해결책은 우리 자신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돕는 데에 있습니다. 해답은 우리가 침울할 때조차도 다른 이의

짐을 털어주는 삶을 사는 것에 있으며, 삶의 마차가 우리를 지나쳐가는 것 같다고 불평하는 대신 스스로 마차 바퀴를 어깨에 짊어지며 참여하는 데에 있습니다.

봉사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펼치는 것은 자신의 근심과 걱정과 문제들을 초월하도록 도와줍니다. 자신의 힘을 다른 사람들의 짐을 털어주는 것에 집중시킬 때,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신의 짐은 줄어들고 우리는 더욱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더욱 더 많은 실속이 있게 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삶의 폭풍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험악하고 좁은 길을 따라 조심스럽고 충실하게 나아갈 때조차도, 우리는 장애물과 어려움에 마주치게 됩니다. 며칠, 어쩌면 몇 달, 몇 년에 걸쳐 삶이 힘들기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뒤편 역경과 고뇌,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슬픔을 경험합니다. 때때로 그것은 우리의 정당한 몫 이상처럼 느껴집니다.

역경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굳건히 서서 끝까지 견디십시오. 흔들림 없이 꾸준하고 참되게 버티십시오. 삶의 회오리 바람 속에서

의 진정한 비극은 그 회오리 바람이 참된 길에 있는 우리를 날려 버리도록 허락할 때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들에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가장 잘 붙들어야 할 시기에 신앙을 포기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강렬한 기도가 필요한 바로 그 시기에 기도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덕을 소중히 여겨야 할 때 이를 무심히 내던져버립니다. 인간에게 버림받으시는 쪽은 하나님인데, 잘못 판단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과 안녕과 소망은 좋은 것을 굳게 붙잡는 것이라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어두움의 안개가 우리를 둘러쌀 때 하나님의 말씀인 쇠막대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만 길을 잃게 될 뿐입니다.

자신의 짐을 반석 위에 지었던 지혜로운 사람에게 대한 구주의 비유는 삶의 어려움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납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남는데, 이는 그가 확실한 기초 위에 짐을 세웠기 때문이며, 결정적으로 폭풍이 올 때 그가 그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 버니언은 천로 역정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용맹을 보고 싶은 이는 누구인가,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여기 있는 자는 불변할지니,  
바람이 불고, 날씨가 꺾어도,  
순례자가 되겠다는  
그가 처음 공언한 의지를  
약하게 만들  
절망이란 없다<sup>4</sup>

사도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sup>5</sup>

고린도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힘있는 간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짊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sup>6</sup>

무엇이 그러한 시각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바울이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sup>7</sup>

자신의 신앙을 가꾸고, 봉사를 통해 발전하며 어떤 일이 있든 꾸준하고 참되게 견딜 때, 우리는 구주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속죄의 넓고 깊은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교회 회원이라 함은 제자의 신분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강화되고 정결하게 되며, 새롭게 되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치유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주

1. Bible Dictionary, '신앙', 669쪽.
2. 갈마서 22:18.
3. Conference Report, 1935년 4월, 46쪽.
4. 천로 역정 (1997년), 295쪽.
5. 골로새서 1:23.
6. 고린도후서 4:8, 9.
7. 고린도후서 4:6.

# 인내의 힘

로버트 시 옥스 장로  
칠십인 회장단

인내는 그것과 연관된 용서, 관용, 신앙의 덕성을 키우고 힘을 갖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관문 역할의 덕성이라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미덕에 관해 알려주는 후일의 경전에 대해 참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몰몬경의 모로나에서 7장은 인내와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통찰을 줍니다. 몰몬은 만일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그가 아무것도 아님이라. 그런즉 그는 반드시 사랑을 가져야만 하느니라” 고 지적한 후에 계속해서 사랑,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의 열세 가지 요소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관한 열세 가지 요소 중 네 가지가 “인내”와 관련된 덕성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 제겐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모로나에서 7:45 참조)

첫째,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이것이 인내의 핵심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처럼,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 특성의 또 다른 한 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이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인내에 대한 분명한 표현입니다. (모로나에서 7:45) 이러한 정의를 담은 요소들로 볼 때, 우리의 영혼을 빛내 주는 인내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에 관한 한 크게 부족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옴은 인내의 모범적인 전형을 보여 줍니다. 자녀들을 포함하여 자신의 막대한 소유를 잃는 지경에 이르러서도 옴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환란과 고통 속에서도 “... 옴[은] 범 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욥기 1:21~22)

우리는 참으로 자주, 억압 받는 영혼이 실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도록” 힘을 간구해야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지?”라는 원망의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인내에 관한 가장 훌륭한 경전상의 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 인내, 그리고 견딤은 겟세마네에서의 그 고통스러운 날 밤에 그분께서 속죄의 고뇌 속에서 “...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39)라고 하신 말씀 속에 가장 잘 나타납니다.

그분은 진실로 고난을 겪으시고, 모든 것을 참고 견뎌 내셨습니다.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이다” (누가복음 23:34)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면서 인내에 관한 완전한 모범을 계속 보여 주셨습니다.

인내에 대한 이런 예들은 제3니파이에 있는, 목표가 되는 훈계를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 그런즉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 (제3니파이 27:27)

몇몇 경전 구절은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야고보서 1: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그의 백성을 징계하시기를 합당하게 보시나니, 참으로 그는 그들의 인내와 신앙을 시험하시느니라.” (모사 1:21)

모사이야서에서 베냐민 왕은 우리가 인내, 그리고 다른 미덕을 통해 성신의 이끄심을 따를 때까지는 “육에 속한, 하나님의 적”이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모사이야서 3:19 참조)

조셉 스미스는 “인내는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History of the Church*, 6권, 427쪽)

인내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추구할 만큼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미덕이 없는 사람들을 분류할 때 사용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는 품위 없는 부류에 드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육에 속한 하나님의 적이 되지 않다면, 하늘에 속하고 싶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르기를” 추구하고 싶다면, 인내는 분명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인내하지 못하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발작적인 격노로 자녀를 학대하여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부모에 관한 뉴스에서 그런 것을 봅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성급함이나 길거리에서의 분노의 표출은 폭력적인 사고를 초래하고 때로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처럼 극적이지는 않지만 흔하게 많이 일어나는 일은 천천히 움직이는 고객들의 줄, 끝없이 오는 판촉 전화, 또는 가르침에 느리게 반응하는 자녀들로 인해 화를 내고 불쾌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중 귀에 익은 것이 있습니까?

다행히도, 거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고려해 볼 만한, 대단한 인내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저의 한 평생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부모의 인내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청소년이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오토바이 대리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반짝거리는 새로운 오토바이를 배달 가게에 진열하여 세워 놓았습니다. 그는 모든 소년들이 하고 싶어할 일을 하려고 가장 가까이 있는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시동까지 걸었습니다. 그 다음, 그는 자신의 행운이 거기까지라고 생각하고 오토바이에서 뛰어 내렸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그는 내리면서 첫번째 오토바이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러자 도미노 게임처럼 오토바이가 전부 넘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 일하고 있던 곳의 칸막이 뒤에서 고개를 내밀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미소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야. 하나님 수리해서 팔면 되단다. 그러면 그 나머지 비용을 댈 수 있을 거야.”

제 친구의 반응은 부모의 인내를 잘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를 그리스도께 물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가 제시했던 단지 일곱 번이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 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21~22 참조)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 용서하는 것은 분명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인내와 신앙을 함께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인내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나치게 성급할 때는,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우리의 시간표가 그분의 것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Patience”, Ensign*, 1980년 10월호, 28쪽)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분의 목적과 방법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기를 참음성 있게 기꺼이 기다릴 때에만 우리는 신앙 안에

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급함은 너무나 선천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내라는 거룩한 덕성을 어떻게 키워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행동을 육에 속한 인간의 행동에서 우리의 인내심 많고 완벽한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으로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첫째, 회복된 복음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바꾸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하도록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1. 주제 목록에서 '인내' 라는 주제 밑에 수록된 구절들을 읽고 인내에 대한 그리스도의 모범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봅니다.

2. 인내라는 평가표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을 판단하기 위해 자신을 평가해 봅니다.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인내가 필요합니까? 이러한 자기 평가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나는 인내와 성급함의 예들에 민감해집니다. 인내심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4. 더욱 인내심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매일 재결심하고, 가족 중 누군가를 선택하여 우리의 인내심 개발 계획에 계속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일이 대단한 일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가치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을 극복하고 또 인내심 면에서 더욱 그리스도와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하고도 필요한 목표입니다. 우리 모두 부지런히 그리고 헌신적으로 이 길을 따라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은 살아 계신 선지자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며, 좀 더 그분처럼 되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증 드립니다. 아멘. ■

# 오 지혜로우라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봉사할 수 있는 단순한 방법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형** 제자매 여러분, 최근 물문경을 공부하고 있는 동안, 선지자 야곱의 한 가르침이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듯이, 야곱은 가족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 광야에서 낳은 아버지 리하이의 두 아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기적의 목격자였으며, 또한 그의 가족이 불순종과 반항으로 분열되었을 때도 지켜보았습니다. 야곱은 그가 니파이를 알고 사랑했듯이 레이맨과 레뮤엘을 알고 사랑했으며, 그들 사이의 불화는 그에게 개인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야곱에게 있어 그것은 이념, 철학이나 신학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성신의 은사

를 부인하며 ...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조롱하[는]" (야곱서 6:8) 것에 야곱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낼 때 그의 영혼의 고통스러운 변민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후, 작별을 고하기 바로 전에, 그는 오늘 아침 저의 메시지의 기본 주제가 되는 여덟 마디의 간단한 말을 합니다. 야곱의 탄원은 "오 지혜로우라, 내가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으리요" (야곱서 6:12)였습니다.

부모와 조부모되시는 여러분은 야곱이 당시 어떤 느낌을 가졌을지를 알 것입니다. 그는 그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그들이 그의 가족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한 명확히, 모든 영혼의 힘을 기울여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 ... 계속하여 협착한 길로 행하"(야곱서 6:11)지 않기로 할 때 일어날 일을 명확히 경고했습니다. 그는 경고하고 강권하며, 영감을 주고 동기를 주는 것 이외의 다른 생각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하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오 지혜로우라, 내가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으리요."

저는 세계 여러 나라의 교회 회원들을 만나 왔습니다. 저는 그토록 많은 회원들의 영과 활기에 감명 받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감동을 느끼며, 삶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업이 역동적으로 진척되고 있는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면에서 교회 회원들이 모든 일에 매우 지혜로워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회장단이 연차 대회 모임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중앙);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1보좌(오른쪽);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제2보좌(왼쪽).

주님께서는 무한하신 지혜로 교회를 비전문 성직자가 운영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위해 봉사할 책임이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름과 상황은 봉사하고 성장할 여러 가지 독특한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면서 때때로 바깥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사들 대부분은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덜 효과적인 분들도 계신 것이 사실이지만, 거의 모든 경우, 복음 안에서 뜻 깊은 봉사를 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나 열심히 봉사하는 나머지 삶의 균형을 잃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봉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들며, 힘이 너무 많이 소진시키는 불필요한 꾸밈과 장식으로 봉사를 번거롭게 합니다. 그들은 위임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각각의 책임 안에서 성장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들이 교회 봉사에 너무 많은 시간과 힘을 쏟으면 영원한 가족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

다. 직장의 작업 성과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나 다른 면에서나 유익하지 못합니다. 교회의 부름이 더 긴장된 노력과 특별한 집중을 요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일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봉사가 우리 삶의 주의를 요하는 다른 중요한 우선 순위를 대신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베냐민 왕의 다음 조언을 기억하십시오. “또 모든 일이 지혜와 질서 안에서 행해지도록 할지니, 이는 사람이 그가 가진 힘보다 더 빨리 달음질함이 요구되지 아니함이라.” (모사이야서 4:27)

저는 우리가 지혜롭게 잘 봉사할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과 원리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사람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적절히 봉사하는 것은 정확한 도움과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들의 개성, 장점, 관심사, 희망, 그리고 꿈과 같은 개인적인 면에서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사람을 이해하고 진실하게 봉사하는 것보다 프로그램만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교회 지도자 모임의 주요 목적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방법을 토의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평의회 모임과 회장단 모임의 의제가 사람들의 필요 사항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이제 대부분의 일상적인 정보와 조정은 전화,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항상 교회의 프로그램이 사람들을 향상시키고 격려하며, 돕고 가르치며, 사랑하고 완전케 하는 수단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큼을 기억하라” (교리와 성약 18:10) 프로그램은 도구입니다. 프로그램 관리와 인적 조직이 축복과 봉사의 대상인 사람들의 필요 사항보다 우선 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혁신적이 되십시오. 우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일할 때, 우리는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 영감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침서를 갖고 있으며, 그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게다가 생각하고, 창조적이며, 개인의 재능을 사용하게 하는 실질적인 기회가 그 지침서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라는 지시는 그것을 미화하고 복잡하게 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혁신이 반드시 확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단순화를 의미합니다.

선택의지의 영원한 원리가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하고 생각할 자유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더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수할 수도 있지만, 복음의 원리와 지침에 따르고 있는 한,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며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데 더 효과적이 될 것입니다.

혁신적이 된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을 지시 받아야 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내가 범사에 명령해야 함은 적절하지 아니함이라. 무릇 범사에 강요당하는 자는 게으르고 현명하지 못한 종이니” (교리와 성약 58:2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형제자매 여러분이 영감을 사용하기를 기대하며, 교회 정책과 원리의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봉사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신앙과 간증을 향상시키도록 돕기 위해 서로 조언하는 데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셋째, 일을 분담하고 책임을 위임하십시오. 일이 완성되도록 책임을 맡는 것과 스스로 그 일을 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로 정원회 회장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행하지 못한 가정 복음 교육을 자신이 직접 완수해야 한다고 느껴서는 안 됩니다. 방문 교육과 관련해 상호부조회 회장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지혜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된 가정 복음 교육 및 방문 교육이 아닙니다. 가정 복음 교육은 숫자나 가정 방문에 대한 보고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방문과 숫자는 측정하는 잣대일 뿐입니다. 가정 복음 교육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돌보는 봉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무 지명이 주어져야 하고, 책임이 위임되어야 하며, 회원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청지기의 직분을 완수하게 해야 합니다. 권고하고 조언하며, 설득하고 동기를 주십시오. 그러나 그들 대신 그 일을 하지는 마십시오. 비록 그것이 때때로 보고서에 덜 완전한 결과를 낳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발전하고 성장하게 하십시오.



넷째, 죄책감을 버리십시오. 죄책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지도자들과 교사들을 위한 적절한 동기 부여 기술이 아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책감을 조성함으로써가 아니라 사랑과 진지한 감사를 통해 항상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어떤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알아챌다”는 사고를 좋아합니다.

아직도 교회에서 자신이 봉사한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죄책감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여러가지 해야 할 일들과 우선 순위 사이에서 우리의 시간과 주의가 분산될 때 올 수 있습니다. 필멸의 존재인 우리는 단 순히 동시에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와 질서 안에서” (모사야서 4:27)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종종 그것은 다른 우선 순위를 처리하기 위해 한 가지 우선 순위에 대한 주의를 일시적으로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 가족의 요구 사항이 여러분의 모든 주의를 요할 것입니다. 다른 때는 직업적인 책임이 우선에 놓입니다. 교회 부름이 우선되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균형은 적시에 일을 할 때와 우리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우리의 준비나 기다림을 미루지 않는 데서 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함으로써 죄책감을 없애 주기 위해 오셨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앨마서 24:10 참조) 그분은 근심 있는 영혼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27) 기적적인 속죄를 통해 그분은 우리에게 “나의 명예를 메라! ...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마태복음 11:29)라고 권고하십니다.

속죄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작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구주께서 이미 우리의 죄책감의 짐을 지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 우리가 이해하고, 필요할 때 회개하며, 죄책감을 놓아 버리는 데 충분히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는 시간, 수입, 그리고 힘의 자원을 사려 깊게 할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작은 비결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만약 모르신다면, 지금이 알 기회입니다. 가족의 필요 사항이 무엇이든 또는 교회의 책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끝났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많은 일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배려를 요하는 다른 가족 문제, 준비할 다른 공과, 다른 점견, 참여할 다른 모임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보호하고 헝클리 회장님이 자주 주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권고에 따르는 일에 있어 현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 그 비결은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며, 영생을 추구함에 있어 여러분의 가족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을 지혜롭게 돕기 위한 시간, 주의, 그리고 자원을 우선 순위를 두어 할당하면서 스스로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여섯째, 회원들에게, 특히 최근 개종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여러 지도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헝클리 회장님은 교회의 모든 새로운 회원은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책임이 부여되는 새로운 회원

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들에게 교리를 배우고 친한 회원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교회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간증을 강화시키고 뜻 깊은 봉사를 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회복된 복음에 결속시켜 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봉사할 수 있는 단순한 방법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고되는 통계나 개최하는 모임이 아니라 구주께서 행하신 대로 한 번에 한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그 봉사의 혜택을 받은 개인들이 향상되고 격려되어 궁극적으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만이 줄 수 있는 평화와 기쁨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지 여섯 마디의 말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15)

오늘날은 여러 면에서 야곱의 시대와 같습니다. 저의 권고는 야곱의 것과 같습니다. “회개하고 마음의 뜻을 다하여 와서, 하나님께 합하기를 그가 너희에게 합하심같이 하고” (야곱서 6:5)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지혜로워지십시오. 교회의 부름을 완수하는 데 지혜로워지십시오. 시간을 사용하는 데 지혜로워지십시오. 모든 책임의 균형을 이루는 데 지혜로워지십시오. 오 지혜로우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사업을 성취하도록 돕는 지혜의 축복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분은 살아 계시며,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이며, 우리는 그분의 사업에 관여하고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기원하고, 우리의 책임을 지혜롭게 이행해 나가길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제자가 됨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이 생과 영원의 가장 위대한 축복 중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제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 것입니다.



구주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성역을 베풀었을 때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분은 베드로의 어선에 올랐고 해안에서 조금 나아가기를 청했습니다. 말씀을 끝낸 후에, 그분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베드로에게 호수의 안쪽으로 가 깊은 물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순종했으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와서 도와달라고 그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모두가 잡힌 고기의 수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누가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sup>1</sup> 그들은 주님

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disciple(제자)이라는 단어와 discipline(수련)이라는 단어 모두 같은 라틴어 어근 *discipulus*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실습이나 연습을 강조합니다. 자기 수련과 자제는 참으로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랐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좋은 예를 보였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관되고 영구적인 특성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구주에 대한 순종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많은 것을 내포합니다. 그것은 순결입니다. 십일조입니다. 가정의 밤입니다.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이 생에서 평화와 내세에서 영생을 주시겠다는 구주의 위대한 약속을 생각해 볼 때, 제자가 되는 것은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불하지 않을 수 없는 대가입니다. 비교해 보건대, 제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축복된 약속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부름을 받아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따르고 지상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 극기를 의미합니다.<sup>2</sup> 나사렛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치셨듯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sup>3</sup>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sup>4</sup>

에창되는 초등학교 노래의 가사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울려 퍼집니다.

주 예수를 닮으려고  
주 길을 따라 가리  
주님처럼 나도-사랑하리라.<sup>5</sup>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중에서 우리 모두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몇 가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1.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sup>6</sup>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기회를 찾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 가족, 친구, 또는 심지어 낯선 사람을 위해서라도 매일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돌보시고 잃어버린 양들을 걱정하는 선한 목자였습니다.<sup>7</sup> 우리는 외롭거나 활동이 저조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3. 예수님은 불쌍한 나병 환자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가졌습니다.<sup>8</sup> 우리도 동정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 슬퍼”<sup>9</sup> 해야 한다고 물론

경은 상기시켜 줍니다.

4.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한 사명과 아버지의 위대한 사업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모두 “어느 때에나 ... 하나님의 증인이”<sup>10</sup> 될 수 있습니다.

5.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그에게] 오”<sup>11</sup>도록 권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보살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구주의 참된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할 특권을 가졌습니다. 교리와 성약에서는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기를 두려워 말지어다. 이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자기 목숨을 다시 찾을 것임이니라.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고자 아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sup>12</sup>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sup>13</sup>였던 제자 스테반의 기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스테반은 예루살렘에서 그를 신성모독으로 거짓 고소한 적개심을 품은 청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습니다. 스테반은 구주의 신성함에 대해 간증했으며 그가 군중에게 회개를 외쳤을 때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를 갑자기 공격했습니다.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sup>14</sup>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말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sup>15</sup>였습니다.

멕시코 교회의 초창기에, 그리스도의 제자인 충실한 지도자 두 명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목숨을 잃은 그 두 사람은 라파엘 몬로이와 빈센테 모랄레스였습니다.

멕시코 혁명 동안, 라파엘 몬로이는 작은 멕시코 산마르코스 지부의 회장이었고 빈센테 모랄레스는 그의 제1보좌였습니다. 1915년 7월 17일, 그들은 사파타 추종자들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만약 무기를 버리고 이상한

종교를 단념한다면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몬로이 형제는 무기를 가지지 않았다고 말하고는 다만 주머니에서 성경과 물몬경을 꺼냈습니다. 그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지닌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것은 오류에 대한 진리의 무기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기를 발견할 수 없게 되자, 무기 숨긴 곳을 밝힌다는 이유로 그 형제들에게 잔인한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그러나 무기는 없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그 작은 마을의 변두리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체포자들은 그들을 총살하기 위해 큰 물푸레나무 옆에 세웠습니다. 책임자는 만약 종교를 버리고 사파타를 추종한다면 자유를 주겠다고 그들에게 제안했지만, 몬로이 형제는 “내 종교는 목숨보다 더 소중하므로 그것을 버릴 수는 없소”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총살될 것이라는 말이 돌아왔고, 다른 요구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라파엘 형제는 처형되기 전에 기도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형 집행인들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보호해 주시며 지도자 없이 남겨질 그 작고 어려운 지부를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그는 구구해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신 그분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형 집행인들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sup>16</sup> 그 후에 집행인들은 몬로이 형제와 모랄레스 형제를 총살했습니다.<sup>17</sup>

몇 년 전, 저는 한 스테이크의 회장단을 개편하기 위해 멕시코에 갔습니다. 접견을 하는 동안, 저는 라파엘 몬로이의 후손 중 한 분을 만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분이 지닌 간증의 깊이와 복음에 대한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몬로이 형제의 나머지 후손들에게 일어난 일을 그에게 물었을 때 그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선교 사업을 했으며 교회에서 계속 충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초창기에 조셉 스미스와 하이럼 스미스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인 에드워드 파트리지의 충실함은 교리와 성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sup>18</sup> 1833년 7월 20일에, 에드워드는 이제 방금 아이를 출산한 연약한 아내와 함께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명의 폭도들이 들이닥쳐 그를 대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길거리로, 이어서 이미 찰스 알렌이 잡혀 있는 광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약 300여명의 폭도들은 대변인을 통해 에드워드와 찰스에게 물몬경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을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에드워드 파트리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저의 종교를 위해 고통을 당해야 한다면, 제 앞서 다른 사람들이 겪은 것보다 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어느 누구도 상하게 한 적이 없으므로 떠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 상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폭행한다면, 무죄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 후 폭도들은 에드워드와 찰스에게 조제 탄산칼리와 살이 타들어가는 산이 포함된 뜨거운 타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붓고, 이어서 그 타오르는 타르에 달라붙는 것털을 뿌렸습니다.<sup>19</sup>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그 몇 년 후 46세의 에드워드의 죽음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그는 미주리 주 박해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었으며, 희생이 요구되었던 사람들 중 한 사람입니다.”<sup>20</sup> 에드워드 파트리지는 많은 의로운 자손들 안에 계속 살아 있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회회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회회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매일 그리스도같은 삶을 사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고려하지 않고 비이 기적이고 영웅다우며 고결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 집에 왔을 때, 그들은 일상적인 생의 부담을 이겨낼 수 없었으며 담배, 술, 마약, 그리고 방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결국 그들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말할지 모릅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능력이나 지위도 없어요. 교회는 처음이고 재능과 능력도 부족해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또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변화하기에는 너무 늙었어요. 이미 살 만 큼 살았어요. 왜 노력해야 하죠?” 변화하기에는 결코 너무 늦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명성, 부 또는 높은 학식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악한 죄를 버리고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님께서 “용서가 낳는 기적”<sup>21</sup>이라 칭한 것을 누리도록 요구합니다. 이것은 회개를 통해서만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버리고 매일 진리와 의의 추종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sup>22</sup>

많은 사람들은 제자가 되는 대가가 너무 높으며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은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보이는 것처럼 무겁지 않습니다.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지고 갈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sup>23</sup>

제자로서 우리의 진정한 권리는 그분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때 오게 됩니다.

제자가 되는 축복은 대가를 기꺼이 치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목적없이 방황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 험악하고 좁은 길을 꾸준히 견도록 우리의 삶에 목적을 부여합니다. 제자가 됨으로써 우리는 슬플 때 위로 받으며, 마음의 평안과 봉사에서의 기쁨을 얻으며,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 교회 역원 지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더 넓도록 해 줍니다.

구주의 제자가 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구원의 원리와 의식을 우리의 마음과 정신으로 알고 믿게 됩니다. 제자가 됨으로써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러한 구원의 원리를 회복하신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심오한 사명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권의 열쇠와 그 권세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로부터 현재의 선지자인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까지 교회의 회장들을 통해 계승되어 왔다는 사실을 기뻐합니다.

구주의 제자가 됨으로써 우리가 만족, 행복, 그리고 성취와 함께 이 세상에서 그분이 하신 평화의 약속을<sup>24</sup> 누리게 된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제자가 됨으로써 우리는 인생의 난관을 대처해 가는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생과 영원의 가장 위대한 축복 중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제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진리에 대한 깊은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주

1. 누가복음 5:1~11 참조.
2. 엠마서 39:9 주 “나” 참조.
3. 누가복음 9:23.
4. 누가복음 14:27.
5. “주 예수를 닮으려고”, *어린이 노래책*, 40쪽.
6. 사도행전 10:38.
7. 마태복음 15:24; 요한복음 10:1~12 참조.
8. 마가복음 1:40~42 참조.
9. 모사이야서 18:9.
10. 모사이야서 18:9.
11. 마가복음 10:14.
12. 교리와 성약 103:27~28.
13. 사도행전 6:8.
14. 사도행전 7:55.
15. 사도행전 7:60.
16. 누가복음 23:34.
17. Rey L. Pratt, “A Latter-day Martyr,” *Improvement Era*, 1918년 6월호, 720~726쪽 참조.
18. 교성 124:19 참조.
19. B. H. Roberts, *A Comprehensive History of the Church*, 1:333; Andrew Jenson, *Latter-day Saint Biographical Encyclopedia*, 4 vols. (1901~1936), 1:220 참조.
20. 교회 정사, 4:132.
21. *용서가 낳는 기적* (1969년), 362쪽 참조.
22. 제3니파이 27:27.
23. 마태복음 11:28~30.
24. 교성 59:23.



**참**으로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세계 곳곳에서의 임무를 위해 곧 선교사 훈련원을 떠나게 되실 이 분들 각자가 달고 계시는 선교사 명찰에 주목하셨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힝클리 회장님의 요청에 따라 이제 제가 교회의 총관리 역원, 지역 칠

십인 및 교회 부부 보조 조직 회장단에 대한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고든 비트너 힝클리 형제를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토마스 스펜서 몬슨 형제를 제일회장단 제1보좌로, 제임즈 에스드라스 파우스트 형제를 제일회장단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스펜서 몬슨 형제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보이드 케네스 패커 형제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린,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형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일회장단 보좌와 십이사도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로널드 티 할버슨, 데일 이 밀러, 에이치 브라이언 리차즈, 도널드 엘 스타헬리, 데이비드 알 스톤, 에이치 브루스 스투키, 로버트 제이 웨튼, 리차드 에이치 윈컬 장로에게 해임의 뜻을 전합니다.

이 형제님들의 봉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저희와 함께 표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칠십인 가운데 세사르 에이 에스 밀테르, 민혜기, 그리고 마사유키 나카노 장로에게도 감사를 표하며 해임의 뜻을 전합니다.

이에 저희와 함께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지역 칠십인으로 에릭 더블류 코우피쉬케 장로님을 지지하고자 합니다.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다른 총관리 역원들과 지역 칠십인 및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헝클리 회장님, 모두 만장일치로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의 지속적인 신앙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

# 거룩한 경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권능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신성한 기록들은 구주에 대해 증거하며 우리를 그분에게 인도합니다.



**거**룩한 경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전의 필수적인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는 데 있습니다. 이 후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전은 구약전서, 신약전서, 물문경, 교리와 성약, 그리고 값진 진주입니다. 이러한 신성한 기록들은 구주에 대해 증거하며 우리를 그분에게 인도합니다. 이것이 이노스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주님께 경전을 보존해 주시도록 신앙으로 간구했던 이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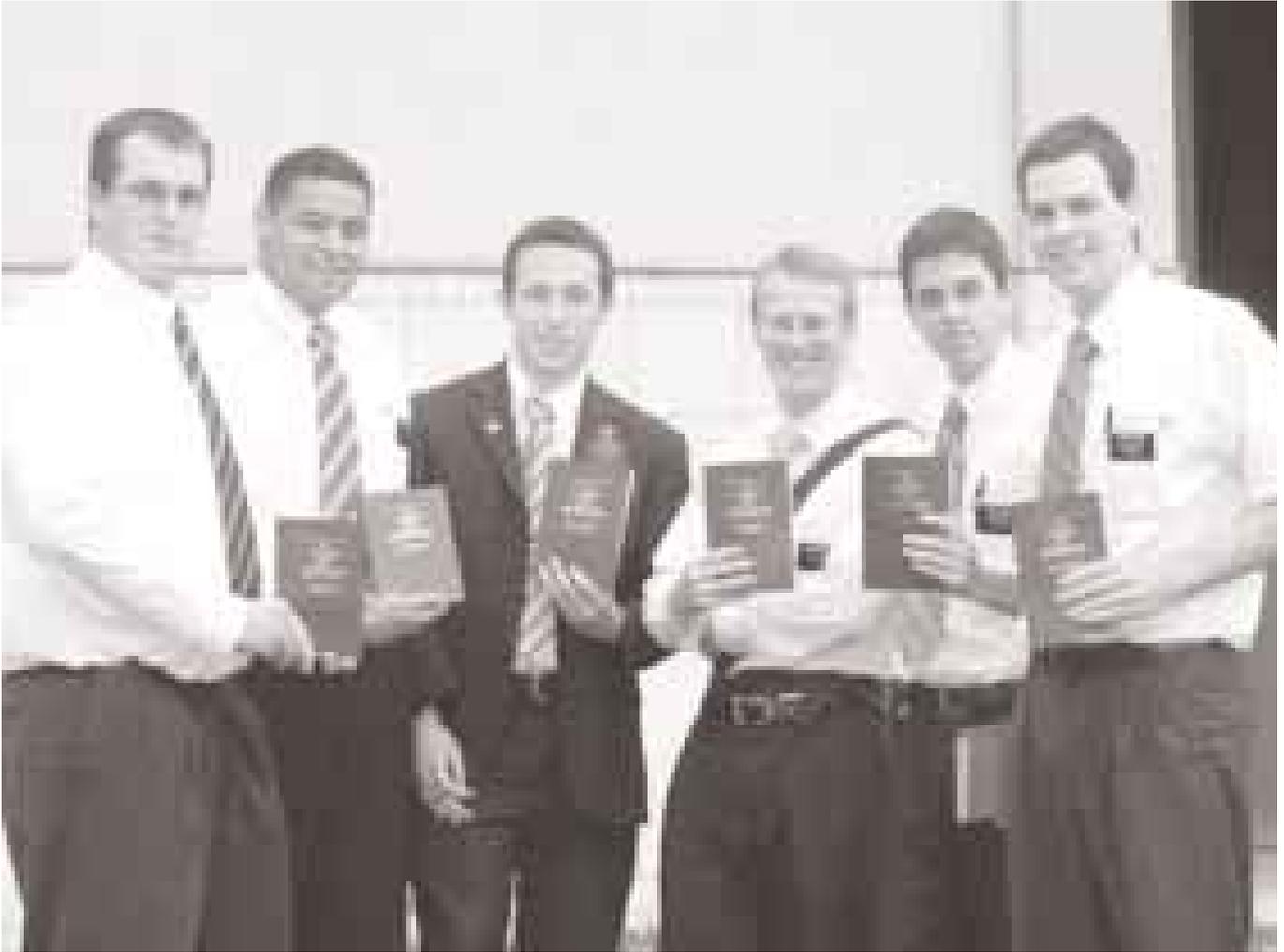
저와 함께 물문경의 표지를 열어보시겠습니까?

까? 표제지를 보면 계명으로 말미암아, 예언과 계시의 영에 의하여 기록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출현했으며, 그 번역은 하나님의 은사, 즉 성신에 의한 것입니다. 이 책은 주님께서 행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님의 성약을 알 수 있도록 주어진 위대한 일들을 보여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책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페이지를 넘겨, 소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예언적인 기록이 성령에 견줄 수 있는 거룩한 경전임을 알게 됩니다. 이 책에는 충만하고 영원한 복음이 담겨 있고, 구원의 계획이 설명되어 있으며, 우리가 이 생에서는 평화를, 다음 생에서는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 해야만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 책은 “모든 사람이 [구주에게로] 나아가 그의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 각자에게 약속해 줍니다.

우리 시대에 이 성스러운 책이 지닌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모든 경전의 목적에 관한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물문경의 첫번째 책인 니파이전서의 첫 페이지에서, 우리는 기원전 600년경에 리하이 가 가족을 데리고 광야로 피신하라는 지시를



브라질 상파울루의 선교사들이 자신의 물몬경을 보여 주고 있다.

하나님께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리하이가 아주 멀리 가기 전에 주님께서는 그의 아들들을 돌려 보내라고 명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경전, 즉 낫쇠판을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리하이의 아들들이 목숨을 걸고, 그것을 얻기 위해 그들의 모든 세상적인 재물을 잃을 만큼 너무 중요했습니다! 결국, 주님의 도움과 니파이의 신앙으로 인해 기적적으로 판들이 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니파이와 그의 형제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아버지인 리하이는 기뻐했습니다. 그는 거룩한 경전을 “처음부터” 탐구하기 시작했고, “그 기록이 바람직[하고], 참으로 ... 크나큰 가치가 있어 [리하이와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녀들에게 주의 계명을 보존해 줄 수 있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sup>1</sup>

참으로, 낫쇠판은 리하이의 조상들의 기록

으로 거기에는 그들의 언어, 계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이 가르친 복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판을 탐구하면서, 리하이는 우리 모두가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것을 배우게 됨을 알았습니다.

- 우리는 누구인가
  -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위한 예언
  -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따라야 하는 계명, 율법, 의식, 그리고 성약들
  - 끝까지 견디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예롭게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 이러한 진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리하이와 니파이 모두에게 쇠막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나타내주는 시현을 보여주실 만큼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모두가

이런 튼튼하고, 휘지 않으며, 완전히 믿을 만한 안내자를 붙잡는 것이 구주께 이르는 험하고 좁은 길에 머무는 유일한 방법임을 배웠습니다.

물몬경의 여러 장이 이런 교훈, 즉 경전을 탐구하고 그것을 인용하는 것을 적용하는 리하이와 니파이에게 할애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경전, 특히 우리 시대에 복음의 회복과 그들의 기록, 즉 물몬경의 출현에 대한 이사의 예언의 중요성을 그들의 가족들과 우리들이 이해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물몬경은 리하이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문명이 어떻게 경전을 중시하거나 또는 경시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속박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피신하여 신성하게 설계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여행하라고



리하이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리하이의 자녀들은 극히 반대되는 두 무리로 나뉘어졌습니다. 의로운 니파이를 따랐던 사람들, 즉 니파이인들은 그들이 레인맨인들을 떠났을 때 경전을 지니고 있었고, “그들의 영혼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밝혀졌습니다.”<sup>2</sup>

그러나 레이맨과 레뮤엘,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레이맨인들은 경전을 거부했고 무지와 불화 그리고 파멸의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서기 400년경에는 니파이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불신에 빠져들었으며, 멸망되어, 이로써 약 1000년간의 니파이인의 문명은 끝이 났습니다.

이더서는 기원전 2200년경 바벨탑 시대에 구대륙을 떠났던 야렛인들의 문명에 대한 역사를 전해줍니다. 주님께서는 신성하게 설계된 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여행하도록 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야렛인들이 의로웠을 때 그들은 축복을 받았으나,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했을 때 주님의 영은 그들과 함께 애쓰기를 그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의 길을 벗어나

기원전 600년경에 서로를 멸망시켰으며, 이로써 약 1,600년 간의 야렛인의 문명은 끝이 났습니다.

리하이는 야렛인의 멸망 즈음에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몇 년 후에, 또 다른 문명, 즉 물레크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야렛인으로 기록된 마지막 생존자, 코리엔투머라는 이름의 왕을 발견했습니다. 물레크인은 경전을 가져오지 않았고, 따라서 약 400년 후에 모시아아와 니파이인들이 그들을 발견했을 때, 물레크인의 언어는 전파되어 있었으며,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의 성서 기록이 담긴 낫쇠판과 함께 니파이인을 보내셨음을 알았을 때, 물레크인들은 기뻐했으며 니파이인의 문명에 스스로 합류했습니다.

이러한 문명의 운명은 경전에 기록된 대로 온 세상에 전하는 간증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거나 그에 따라 살지 않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낮은 길로 빠지게 되며, 개인, 가족, 그리고 민족으로

서 잃어버린 자들이 됩니다.

티끌에서 나는 음성처럼, 주님의 선지자들은 오늘날 세상의 우리에게 경전을 꼭 붙들라고 외칩니다! 경전을 공부하고, 그에 따라 행하며,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기십시오. 흠을 잡지 마십시오. 경전은 우리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sup>3</sup>

만일 구주께서 오늘날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과거 지상에 계셨을 때 가르치셨던 것처럼 경전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나사렛의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sup>4</sup> 나중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려운 질문을 하였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라고 하셨습니다.<sup>5</sup> 그리고 부활 후에 엠마오로 가시는 길에, “[그분의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했습니다.<sup>6</sup> 예나 지금이나 그분의 제자들에게는 “성경을 연구하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라는 그분의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sup>7</sup> 그 증언은 성신에 의해 생기는데, 이는 “성신의 권능으로 [여러분이]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sup>8</sup>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경전이 그분 안에 있는 “한 현명한 목적을 위하여”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위해] 간수되고 보존”되어 왔음을 간증 드립니다.<sup>9</sup> 리하이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낫쇠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세월에 의해 더 이상 흐려지지도 아니할 것이라”<sup>10</sup> 주님께서는 경전을 보전하여 “친히 정하신 때에” 전하시겠다고 이노스와 성약하셨습니다.<sup>11</sup> 물론경에 관해 선지자 모로나이도 이것들이 “기록된 후에는 인봉되었고, 파괴되지 않도록 주께로 감춘 바 되었나니”라고 기록 하셨습니다.<sup>12</sup>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경전은 예언과 약속을 전해주고 있으며, 그것들은 우리 시대에 성취되었습니다.

얼마나 영화로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할 때, 우리는 경전을 탐구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면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최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새로운 시각과 귀로 경전을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구명 빛줄입니다. 철의 장막의 어둠 뒤편에서도 성도들은 경전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살아 남았습니다. 세상의 다른 지역에서도 회원들이 한동안 교회에 참석할 수 없었을 때, 그들은 경전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지난 세기에 있었던 모든 전쟁과 오늘날 일어나는 다툼 속에서도 후기 성도는 경전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생존해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경전이 주어져 나의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리라. 무릇 그들은 내 음성을 들을 것이요, 나를 보게 될 것이요, 잠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오는 그 날을 견디리니, 이는 내가 정결한 것같이 그들이 정결하게 될 것임이니라.”<sup>13</sup> 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천 년 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sup>14</sup> 지금이 그 때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경전을 필요로 합니다. 구주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값으라” 하는 예비적인 모세의 율법을 통해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sup>15</sup>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가혹한 율법에 따라 생활하고 있으며, 그 증거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날의 테러와 파괴, 심지어 대량학살에 대한 해답이 경전에 있다고 담대히 선언하는 바입니다. 구약전서에 나오는 복음이 신약전서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예인들이 몰몬경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교리와 성약 및 값진 진주는 현재 이 시대에 있는 복음의 충만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모세서에서 아브라함서까지 구주께서 오시리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니파이전서부터 모로나이서까지, 그리고 조셉 스미스부터 우리가 사랑하는 살아 계신 선지자,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오래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며, 다시 오실 것임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옛 것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 졌습니다.”<sup>16</sup> 거룩한 경전을 통해 그분의 새롭고도 영원한 복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sup>17</sup>,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sup>18</sup>,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이 요구되느니라”<sup>19</sup> 이는 바로 이것이 “비탄에 빠진 자를 낫게 하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sup>20</sup> 하기 위해 기쁨부음을 받으신 우리 구주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몰몬경의 끝에서 모로나이는 그의 백성들의 마지막 잔류민을 상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잊지 않고 주의 영을 잃지 않았다면, 전멸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모로나이가 경전의

축복을 요구할 것을 우리에게, 즉 여러분과 저에게, 간청하며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또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내가 너희를 권면하거니와, 너희는 혹 이 기록이 참되지 아니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진대,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

또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되리라.”<sup>21</sup>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때가 찬 후일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려워지든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니파이전서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참되고 충실한 사람들은 대적이 이 지상에 풀려나왔을 때 그가 날리는 불화살에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sup>22</sup> 세상의 모든 혼란에도 불구하고, 구주께서 몰몬경 시대에 오셨듯이 그분의 성전에 오실 때, 참되고 충실한 사람들은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에 속하기를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주

1. 니파이전서 5:10, 21.
2. 앨마서 5:7.
3. 교리와 성약 68:4.
4. 누가복음 4:17, 21.
5. 마태복음 22:29.
6. 누가복음 24:32.
7. 요한복음 5:39.
8. 모로나이서 10:5.
9. 앨마서 37:4, 14; 또한 니파이전서 9:5; 몰몬의 말씀 1:7 참조.
10. 니파이전서 5:19.
11. 이노스서 1:16.
12. 몰몬경, 표제지.
13. 교리와 성약 35:20~21.
14. 이사야 30:8.
15. 마태복음 5:38; 또한 제3니파이 12:38 참조.
16. 제3니파이 12:47.
17. 마태복음 22:39.
18. 마태복음 5:44; 또한 제3니파이 12:44 참조.
19. 교리와 성약 64:10.
20. 누가복음 4:18.
21. 모로나이서 10:4~5.
22. 니파이전서 15:24 참조.

# 일요일은 올 것입니다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구주의 삶과 영원한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과 함께 재회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간증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에 깊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의 말과 사랑의 표현과 기도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몇 가지 개인적인 추억에 젖어들고 싶습니다.

저는 훌륭하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제 아버지(조셉 엘 워스린)로부터 저는 노력과 동정심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대공항시절 제가 다니던 와드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걱정하셨고 단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진실된 소망으로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아버지는 지칠 줄 모르고, 고통 받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돌보시고 축복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은 이상적인 감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지인들은 그분이 얼마나 활동적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 분이 아버지는 세 사람 몫의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좀처럼 고삐를 늦추지 않으셨습니다. 1938년,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당시 아버지는 성공적인 사업가였습니다.

그랜트 회장님은 그날 감리 감독단을 재조직하려 하며 아버지가 리그랜드 리차즈 형제님의 보좌로 봉사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깜짝 놀란 아버지는 그분들이 이에 대해 먼저 기도해 보실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랜트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워스린 형제님, 연차 대회의 다음 모임까지 단 30분이 남았고, 저는 좀 쉬고 싶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아버지는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후 23년간 봉사하시면서, 9년은 감리 감독으로 봉사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연세가 69세였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저는 마침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종종 아버지께 대해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그리웁습니다.

저의 어머니(매들린 비트너) 또한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셨습니다. 유년 시절 뛰어난 운동선수이자 최우수 단거리 선수였던 그분은 항상 온화하고 자애로우셨지만, 그 걸음을 따라잡기란 매우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종종 “서두르

라”고 말할 때면 저희는 더 빨리 걸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제가 미식축구를 할 때 빠른 가속력을 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큰 기대를 거셨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찮은 사람이 되지 말아라. 더 잘 해야 한다.”고 하시던 말씀이 여전히 떠오릅니다. ‘하찮은 사람’이란 말은 게으르고 자신의 잠재력에 못미치는 사람에 대해 어머니가 쓰시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87세에 돌아가셨고, 저는 종종 그분을 생각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머니가 그리웁습니다.

저의 여동생 주디스는 작가이자 작곡가요 또한 교육자였습니다. 동생은 복음과 음악과 고고학을 포함해 많은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동생의 생일은 저보다 며칠 빠릅니다. 매년, 저는 동생에게 땀땀한 1달러짜리 지폐를 생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사흘 후, 동생은 50센트를 저에게 생일 선물로 주곤 했습니다.

주디스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이 그리고 자주 생각이 납니다.

이제 저의 아내 엘리사입니다.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친구의 부탁으로, 그녀의 동생 프랜시스를 데리러 그녀의 집에 갑니다. 엘리사가 문을 열었고, 최소한 제 쪽에서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녀도 분명 무언가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는 그녀의 첫마디가 “난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I knew who you was)” 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전공은 영문학이었습니다.(역자 주: “I knew who you was”는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며, “I knew who you were.”가 맞음.)

지금도 저는 여전히 그 다섯 마디의 말을 인간의 언어 중 가장 아름다운 말로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테니스를 좋아했고 그녀의 서브는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저는 함께 테니스를 치



인류 역사상 지혜롭고 훌륭한 많은 영혼들이 있었고 그 중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구주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을 때, 그분은 누구도 해 본 적이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살았던 모든 의인과 악인을 위해 사망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sup>6</sup>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무덤에서 일어났을 때, 그리스

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보이지도 않는 공은 칠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포기했습니다.

아내는 저의 힘이자 기쁨이었습니다. 그녀로 인해 저는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남편, 그리고 더 좋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하여 여덟 자녀를 두고 65년이라는 삶을 함께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완벽한 결혼이라는 것이 존재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의 결혼이 그러했다고 생각합니다.

헝클리 회장님께서서는 제 아내 엘리사의 장례식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영혼에 고통을 줍니다.

그분이 옳았습니다. 엘리사가 저의 가장 큰 기쁨이었듯이, 이제 그녀의 사망은 저의 가장 큰 슬픔입니다.

외로울 때면 저는 영원한 것들에 대해 생각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위안을 주는 영생의 교리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생 동안 저는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처럼, 저도 첫 번째 부활 주일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부활에 관한 구절을 경전에 표시했고 그 주제에 관한 후일의 선지자들의 주요 말씀들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영과 육신이 다시 그 완전한 형태로 재결합되는 것입니다.<sup>1</sup>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헤어져야 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과 육체로 있을 때 사귀던 자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sup>2</sup>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최상의 상태인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sup>3</sup> 라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때, “이 죽어야 하는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일으키심을 만나니 ... [우리는] 다시는 죽을 수 없”<sup>4</sup>습니다.

최상의 상태로 사는 삶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으며, 지상에서 빈번히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의 부담도 없는 그런 삶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sup>5</sup>이라 했습니다.

도는 모든 사람이 그 은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숭고한 행위로 그분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을 잃은 자들의 영혼을 값어치는 괴로움과 슬픔을 달래 주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금요일이 얼마나 암울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끔찍한 금요일에 땅은 진동하고 캄캄해졌습니다. 무서운 폭풍우가 땅을 내리쳤습니다.

그분의 목숨을 노렸던 악한 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가 없으니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분명 흩어져 없어질 것이라며 의기양양해 했습니다.

그날, 성소의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비탄과 절망에 무기력해졌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던 위대한 그분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금요일에, 사도들은 황폐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물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들의 구주인 예수님께서 악인의 처분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적들에 의해 무력해진 그분을 어찌할 도리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 금요일에, 인류의 구주는 굴욕과 상처를 입고 학대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의 영혼을 갹아먹는 괴로움과 슬픔으로 가득 찬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암울했던 날이 바로 그 금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슬픈 날의 운명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에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의 사슬을 힘차게 끊으셨기 때문에, 절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무덤에서 일어나 인류의 구주로서 영광스런 승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한없이 흐르던 눈물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괴로움과 슬픔의 기도를 읊조리던 입술이 이제는 경이로운 찬양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망은 단지 새롭고도 놀라운 존재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증거로써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그들 앞에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우주 자체가 파괴되고 세상이 산산 조각난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날들, 즉 우리만의 금요일들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결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이 느껴지는 파탄의 시간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금요일들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망을 이기신 분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일요일은 올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어두운 비탄 속에서도 일요일은 올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비통할지라도 일요일은 올 것입니다. 이 생에서 또는 다음 생에서, 일요일은 올 것입니다.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았던 사람들의 개인적인 간증들을 갖고 있습니다. 구대륙과 신대륙의 무수한 사람들이 부활하신 구주를 증거했습니다. 그분의 손과 발, 옆구리의 상처를 느꼈습니다. 그분을 껴안으며 그치지 않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활 후, 제자들은 다시금 새로워졌습니다.



그들은 전세계를 돌며 영광스러운 복음의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했다면, 그들은 흩어져 원래 살던 곳이나 일터로 돌아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그분과의 관계는 잊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위험, 조롱,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궁전, 성전, 회당으로 들어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부활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찬미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마지막 간증으로 바쳤습니다. 그들은 사망의 순간에 자신들의 입술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며 순교자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은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로 인해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무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의 아버지는 저의 어머니를 포옹하실 것입니다. 그날 저는 제 사랑하는 엘리사를 제 팔로 다시 안게 될 것입니다.

구주의 삶과 영원한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과 함께 재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하신 메시아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할 것입니다.

사망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엄숙하

게 간증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sup>7</sup>고 가르쳤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망을 삼키고 이[길]”<sup>8</sup>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속주로 인하여 우리는 가장 암울한 금요일 한가운데에서도 소리 높여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sup>9</sup>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에게 오는 고통한 외로움을 말씀하셨던 히클리 회장님은 고요한 밤에 우리의 영혼에 “모든 것 잘되리라”고 평안을 속삭이는 세미한 음성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고귀하고 진실된 복음의 교리와 사랑하는 선지자가 약속하셨던, 저의 영혼에 위로와 평화를 속삭여 주신 성신의 은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 깊은 슬픔 속에서도, 저는 영광된 복음 안에서 기뻐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복음을 회복하도록 택함 받았던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선지자 고든 비히클리 회장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우리가 자애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로서 받게 되는 값진 은사들과 우리 모두가 무덤을 깨치고 승리로 부활할 밝은 날의 약속을 이해하며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무리 암울한 금요일이라도 일요일은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저의 기도입니다. 아멘. ■

#### 주

1. 엘머서 11:43 참조.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1998년) 92쪽.
3. 스펜서 더블류 김볼, *스펜서 더블류 김볼의 가르침*, 에드워드 엘 김볼 편집, (1982년) 45쪽.
4. 엘머서 11:45.
5. 고린도전서 15:14.
6. 요한복음 5:28~29.
7. 고린도전서 15:19.
8. 고린도전서 15:54.
9. 고린도전서 15:55.

# 영원을 향해 바라보십시오!

일레인 에스 돌턴  
본부 청년 회장단 제2보좌

“깨끗하고 순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십니까?”



우리 첫 손자가 태어났을 때, 우리 가족은 모두 서둘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장남 매튜가 갓 태어난 사랑스러운 사내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제게 아주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채드와 함께 신생아실 창가에 서서, 우리는 참으로 깨끗하고 순결하며 하늘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이 작고 새로운 영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고, 우리는 잠시나마 위대한 영원의 계획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 신성함이 분명히 보였고, 저는 채드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겠니?” “그럼요, 엄마, 정말 알겠어요.”라

고 아들은 경건히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이 참으로 강렬했기에, 저는 모든 청남과 청년, 독신 성인, 그리고 참으로 유일한 사람 한 사람이 합당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의 중요성을 느끼고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이 지상에서의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바로 개인적인 합당함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사명은 우리가 지상에 오기 오래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전세에서 우리는 유희와 시련이 가장 큰 시대에 지상에 살도록 “부름을 받고 예비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극한 신앙과 선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우리가 “선을 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sup>1</sup> 우리는 아버지의 계획을 이해했고 그것이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옹호했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의 사명들이 유희와 시련과 고난으로 가득하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충만한 복음과 살아 계신 선지자들, 그리고 성신의 인도로 축복받으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의 성공이 우리의 합당함과 순결함에 의해 결정되리라는 것을 알고 이해했습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경에서 라모나이의 부친은 “내가 어찌하여야 그대가 말한 이 영생을 얻겠느냐?”<sup>2</sup> 라며 간절히 물었습니다. 그런 후 그는 “당신을 알기 위해 나의 모든 죄를 버리겠나이다”<sup>3</sup> 라고 주께

언약했습니다. 라모나이의 부친이 자신의 존재와 자신이 포함되는 위대한 계획을 이해하게 되자 그의 마음은 합당함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합당해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줄 여러 가지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모든 축복을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해줄 일들을 행합니다. “주(개) ...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보리라”<sup>4</sup> 이것이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유희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sup>5</sup> 우리는 신앙으로 인해 악을 피할 수 있습니다. “빛은 빛과 결합하”고 “덕은 덕을 사랑하”기에 악은 우리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sup>6</sup>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뿐만 아니라 회개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표준대로 생활하고 지속적인 성신의 동반과 인도를 받기 위한 자격을 부여해 줄 일들을 해야 합니다. 영은 거룩하지 않은 성전에는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sup>7</sup>

제가 아는 한 청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 세상에서 표준대로 생활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예요. 너무 힘들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알기에 합당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한 청소년 그룹은 “나는 힘든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모토를 채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 인도의 근원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성약을 지킴으로써 힘을 얻습니다. 그들은 잘못을 범했을 때 변화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모두가 회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구주께서는 용서를 약속하셨습니다.<sup>8</sup> 매주, 우리 각자는 성찬을 취하며 “항상 [구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고<sup>9</sup> 성약함으로써 깨끗하고 순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길을 곧고 좁게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이 주어졌습니다. 그 길은 명백합니다. “이는 내 명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sup>10</sup>

38년 전 남편과 저는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집행하신 결혼식을 통해 맺어졌습니다. 그날 그분이 주신 가르침과 권고는 우리의 삶에 지침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되어 성전을 떠난 우리는 성전 근처의 공원에서 우리가 받은 지혜로운 말씀들을 일지에 기록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부부로서 그리고 가족이 함께 아침저녁으로 잊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항상 완전하고 정직한 십일조를 바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매일 경전을 읽고 그 원리들을 실생활에 적용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또한 합당함을 유지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면서 즉각적인 축복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해야 합니다. 자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합당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후 38년 동안, 우리는 많은 “즉각적인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습관과 의로운 관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나아가는 길에 굳건히 서도록 매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후일에 [선지자] 주신 하나님 ... 감사하오며”라고 말합니다.<sup>11</sup>

개인적인 합당함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또 궁극적으로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sup>12</sup> 상속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

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sup>13</sup>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몸소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갈 수 있을 만큼 합당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합당할 때, 우리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전 또한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과 행복의 약속들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지상의 사명은 그분의 것이 됩니다.

바로 지난 달, 우리 막내 아들 채드는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하기 위해 아름답고 합당한 여성과 함께 성전에 갔습니다. 아들이 그녀의 손을 잡고 단에 무릎을 꿇을 때, 저는 양 옆에 있는 거울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이렇게 속삭이고 싶습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겠니?” 하지만 이번에는 영이 그렇게 속삭여 주었기에 제가 상기시켜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귀한 장자의 명분을 지닌 청소년 여러분, 영원의 창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있는 자신을 보십시오. 합당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보십시오. 미래의 여러 세대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한 구속과 권능의 힘이 있기에 합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sup>14</sup>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앨마서 13:3 참조.
2. 앨마서 22:15.
3. 앨마서 22:18.
4. 아브라함서 3:24~25.
5. 앨마서 37:33; 제3니파이 7:18 참조.
6. 교리와 성약 88:40.
7. 힐라맨서 4:24.
8.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2001년), 30쪽 참조.
9. 모로나이서 4:3.
10. 마태복음 11:30.
11.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찬송가 6장.
12. 교리와 성약 84:38, 35~37절 또한 참조.
13. 교리와 성약 121:45.
14. 요한계시록 3:4, 또한 5절 참조.

# 속죄는 우리의 삶을 청결케 하고 개선하며 성결케 할 수 있습니다

웨인 마텔 보웬 장로  
칠십인 정원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 모두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그의 속죄는 무한합니다.



**아**이다호 주 아이다호 폴스에는 아름다운 공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공항들 중의 하나인 이 공항은 스네이크 리버 밸리 상류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저는 젊은이로서 2년간의 선교 사업을 마친 후 칠레로부터 바로 이 공항으로 돌아와 저의 가족과 재회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봉사하라는 부름에 답하는 충

실한 성도들로 인해 비슷한 장면들이 수천 번 이 공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공항은 그 도시와 지역의 매우 유용하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공항 근처에는 프리먼 공원이라고 하는 매우 유용하고 아름다운 또 하나의 장소가 있습니다. 스네이크 강이 이 공원을 따라 약 2마일 정도 흐릅니다. 그곳에는 그 공원을 가로질러 강변을 따라 보도가 몇 마일 정도 있습니다.

프리먼 공원에는 야구 및 소프트볼 경기장, 어린이들을 위한 그네, 그리고 가족 모임을 위한 야외 편의 시설이 세워진 녹색 잔디가 넓게 펼쳐져 있으며, 산책하는 연인들을 위한 아름다운 길은 나무와 수풀로 가득합니다. 공원에서 강을 내려다보면 높은 대지 위에 하얗고 깨끗하게 서 있는 장엄한 아이다호 폴스 성전을 볼 수 있습니다. 천연 화산암을 뚫고 흐르는 스네이크 강의 힘찬 물소리는 이 공원을 참 매력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곳은 제가 제 아내 리넷과 함께 산책하고 편안히 쉬기 위해, 또 생각하고 명상하기 위해 찾는 좋아하는 장소들 중 하나입니다. 그곳은 매우 평화롭고 영감을

주는 장소입니다.

제가 아이다호 폴스의 지역 공항과 프리먼 공원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 곳 모두 같은 종류의 땅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답고 유용한 두 장소 모두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쓰레기 매립지는 쓰레기를 지층 사이에 묻는 곳입니다. 웹스터 사전은 매립지를 “저지대를 높이기 위해 지층 사이에 폐기물을 묻는 쓰레기 폐기 시스템”이라고 정의합니다.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제11판. [2003년], 699쪽)

또 다른 매립지의 정의는 “쓰레기를 묻어 땅을 개선한 곳”입니다. 개선의 정의는 “그릇된 또는 부적합한 행위로부터 되돌리다, ...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구제하다”입니다. (1039쪽)

저는 제 일생의 대부분을 아이다호 폴스에서 지냈습니다. 저는 50년 이상의 세월 동안 두 곳의 매립지에 많은 쓰레기를 제공했습니다.

만일 어느 날 제가 아이다호 폴스 공항의 활주로나 프리먼 공원의 잔디 한 가운데에 포크레인을 타고 나타나 큰 구덩이를 파기 시작한다면 시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만약 그들이 내게 무얼 하고 있는냐고 묻는다면 저는 제가 수년 동안 배출했던 오래된 쓰레기를 파내고 싶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은 제게 개인의 쓰레기를 찾아 확인할 방법은 없으며 그것은 오래 전에 매립되고 묻혔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제게 그 쓰레기를 파낼 권리가 없으며, 제가 쓰레기를 활용해 만든 매우 아름답고 유용한 것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저는 그들이 저를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오래된 쓰레기를 파 내기 위해 왜 그토록 아름답고 유용한 것을 파괴하려 할까 궁금해 할 것입니다.

자제력을 잃고 온통 지저분한 것들로 뒤덮인 나머지 용서받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인생을 개선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또는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너무 여러 번 다시 죄에 굴복했기 때문에



끝없는 듯한 그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또는 삶은 변화시켰지만,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선지자 엘마는 기도문에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언급하며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에 그가 나아가사,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리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그가 사망을 짊어지시리니, 이는 그의 백성을 결박하는 사망의 줄을 푸시려 함이요, 또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리니, 육체를 따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좇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심이니라.”

“이제 영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따라 고난을 받으심은 자기 백성의 죄를 지심으로, 그의 구원의 능력을 좇아 그들의 범법을 지워 버리려 하심이니, 이제 보라,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증거니라.” (엘마서 7:11~13).

니파이의 형제 야곱 또한 속죄에 대해 말씀하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무한한 속죄라야만 하리니, 무한한 속죄가 아니고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지 못할 것이라. 그런즉 사람들에게 임한 첫째 심판이 그대로 끝없이 계속되었어야만 하리라. 또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이 육체는 필연코 누워 썩고 부서져 그 어미 땅으로 돌아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으리라.” (니파이후서 9:7)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 모두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그의 속죄는 무한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즉 여러분에게도 적용됩니다. 그것은 참으로 여러분을 청결케 하고 개선하며 성결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한함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이고 완전하며 전체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완전한 용서의 약속에서 제외될 습관, 중독, 배반, 범법, 배도나 범죄는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약속입니다.” (“용서의 밝은 아침”,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19~20쪽)

매립지가 저지대를 개간하기 위해 공들여 층마다 폐기물을 끼는 헌신적인 노력과 주의를

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또한 지속적으로 그 층마다 회개의 치료하는 은사를 사용하는 그와 같은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아이다호 폴스의 시 지도자들이 누군가 자신의 낡은 쓰레기를 파내려 하는 것을 언짢게 여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죄를 통해 기능케 된 회개의 은사로 인해 우리의 삶이 청결케 되고 개선되고 성결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죄 안에 머물기로 선택할 때 슬픔을 느끼십니다.

우리가 이 값진 은사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만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개선해 주신 우리 삶의 아름다움과 유익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속죄는 실재하며, 그분은 용서의 기적을 통해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개개인을 다시 청결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십일조의 율법

다니엘 엘 존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여러분의 신뢰를 주님께 두고, 그분께서 “그것으로 이제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저는 완전한 십일조를 내는 것에 대해 개인적인 간증을 아직 언지 못한 분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일조를 내지 못하는 데는 응급 의료 상황, 부채, 자동차나 가택 수리, 교육비, 그리고 보험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그리고 이와 유사한 다른 이유들은 매우 현실적이며 우리 중 대부분은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매일 살면서 부딪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한정된 재정 자원에 큰 부담이 되므로 우리가 이러한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주님께 우리의 십일조를 바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원한 율법에 대한 순종심의 부족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발전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순종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신체적 및 현세적인 축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님은 언젠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일조가 그분의 율법이며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광이요 특권이자, 우리의 안전과 약속이며, 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생활하는 데서 오는 위대한 축복입니다. 이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약속을 거부하는 것이며 더 중한 바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수롭지 않은 실수가 아니라 범법입니다.”<sup>1</sup>

**그렇다면, 십일조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백성의 십일조의 시작이 되리라. 그러한 후에, 이같이 십일조를 바친 자들은 해마다 그들의 모든 수익의 십분의 일을 바칠지니, 이는 나의 거룩한 신권을 위하여 영원토록 그들에게 항구적인 율법이 되리라.”<sup>2</sup> 십일조는 바쳐도 되고 안 바쳐도 되는 현금이 아니며, 또한 우리의 연간 수익이나 수입의 20분의 일 또는 그 외의 다른 분량을 바치는 것도 아니라 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이 율법은 단순히 ‘그들의 모든 수익의 십분의 일’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익이란 이윤, 보수, 증가액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고용된 사람의 임금이며, 사업을 운영 해서 생긴 이윤이며, 성장하거나 생산해서 늘어난 증가분, 또는 그 밖의 다른 출처에서 생긴 수입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과거에도

있었듯이 ‘영원토록’ 불변하는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sup>3</sup>

**십일조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교회의 충실한 회원은 십일조를 그들의 지부 회장단이나 와드 감독단의 일원에게 냅니다. 그러면 주님의 선지자의 지시 하에 이러한 기금을 모아서 전세계에 있는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합니다. 성전의 건축, 전세계적인 선교 사업을 위한 기금, 집회소의 건립과 유지 및 다른 가치 있는 용도들이 바로 십일조 기금을 사용하는 예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그분의 백성들에게 십일조를 바치라고 요구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현세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경전에 기록된 그분의 다음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귀를 기울여 들으라, 오 너희 나의 백성들아. 곧 모든 복 가운데서 가장 큰 것으로 내가 복을 내리기를 기뻐하는 너희 곧 나의 말을 듣는 너희여, 주 너희 하나님이 이르노라.”<sup>4</sup>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대저 이같이 주께서 이르시나니—나 주는 나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끝까지 의와 진리로 나를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노라.”<sup>5</sup>라고 하셨습니다.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그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바라시는 축복들에 적용되는 율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분은 회복을 담당한 그분의 선지자에게 이 율법들의 원리를 밝히셨습니다.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늘에서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축복을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율법을 순종하였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sup>6</sup>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나 주는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내 말을 지킬 수밖에 없으나,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아무 약속도 받지 못하느니라.”<sup>7</sup>라고 하셨



습니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필멸의 삶 동안 현재적 영적 시련을 겪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진실로, 이러한 시련들은 이 필멸의 시험 기간에서 지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시험을 견뎌 내기 위해서뿐 아니라 위안과 번영까지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그분의 축복이 필요하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따라서 태초부터 제정된 십일조의 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전을 통해 아브라함이 이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축복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거의 2,000년 전에 구주께서 이 대륙의 주민들을 방문하신 동안 되풀이하여 말씀하셨던 똑같은 율법을 현재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너희는 모든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이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을 너희에게 열고, 너희에게 복을 받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삼키는 자를 꾸짖으리니, 그가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밭에 있는 너희의 포도나무도 기한 전에 그 실과를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또 너희가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sup>8</sup>

얼마나 놀라운 율법입니까! 그분의 자녀들을 세속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능과 방편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목시도 원하시는 그분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며 바라기도 하는 그러한 축복들에 대한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열쇠는 십일조의 법입니다. 진실로,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들은 십일조를 낼 형편이 안 된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처음 십일조를 내는 것에는 신앙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 우리는 그것을 뉘으로써 십일조에 대해 배웁니다. 진실로, 저는 우리가 가진 작은 것 중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리라는 신앙을 가짐으로써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sup>9</sup>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 율법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아직 완전한 십일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오늘부터 여러분의 지역 신권 지도자를 통하여 주님께 완전한 십일조를 내시기를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다른 어떠한 재정적 의무보다도 주님께 십일조를 바치는 것을 우선 순위에 두시기를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신뢰를 주님께 두고, 그분께서 “이제 나를 시험[해보라]”<sup>10</sup> 말씀하신 것처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리고 주님께 십일조를 바치는 의무를 다른 모든 재정적 의무보다도 최우선 순위에 두신다면, 여러분은 진실로 하늘의 창을 열고 “받을 곳이 없도록”<sup>11</sup> 축

복을 부으시는 주님의 비할 데 없는 권능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이 매우 성스러운 십일조의 법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얻게 될 것이며, 이 율법에 계속하여 순종할 때 여러분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완전한 십일조를 내시는 분들에게 저는 여러분의 충실함에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이미 증인이시며 이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십일조를 낼 때마다 주님과 맺은 개인적인 성약은 강해질 것입니다.

저는 십일조의 법과 주님께서 이 법에 관하여 주신 약속의 실재성에 대한 제 개인적인 간증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축복이 실제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He Did It with All His Heart, and Prospered,” *Tambuli*, 1981년 8월호, 3쪽; “President Kimball Speaks Out on Tithing,” *New Era*, 1981년 4월호, 6쪽 참조.
2. 교리와 성약 119:3~4.
3. Conference Report, 1964년 4월, 35쪽.
4. 교리와 성약 41:1 참조.
5. 교리와 성약 76:5.
6. 교리와 성약 130:20~21.
7. 교리와 성약 82:10.
8. 제3니파이 24:10~12; 또한 말라기 3:10~12 참조.
9. “Opening the Windows of Heaven,” *Ensign*, 1998년 11월호, 59쪽.
10. 제3니파이 24:10; 또한 말라기 3:10 참조.
11. 제3니파이 24:10; 또한 말라기 3:10 참조.

# 개인적인 간증의 힘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의 확고한 개인적 간증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동기를 부여할 것이며 세상을 축복할 것입니다.



**물** 문경에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배를 지으라는 명을 받은 젊은 니파이에게 관한 글을 읽습니다. 그는 즉시 이 계명에 순종했으나, 그의 형제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내가 바야흐로 배를 지으려 하는 것을 보고는 나에게 불평하기 시작하여 이 르기를, 우리 동생은 바보로다, 이는 그가 배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함이라, 그뿐 아니라 그는 또한 이 큰 물을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는도다 하였더라.” (니파이전서 17:17)

그러나 니파이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를 지어본 경험이 없었지만, “주께서 ...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 길을 예비하실 것” (니파이전서 3:7) 이라는 강한 간증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이러한 강한 간증과 동기부여를 받은 니파이는

신앙이 없는 형제들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큰 물을 건널 배를 지었습니다.

저는 의로운 동기가 주는 힘에 대해 유년 시절에 얻은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의 혼란 후에, 저의 가족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던 동독에 정착했습니다. 4학년 때, 저는 학교에서 제 1 외국어로 러시아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러시아어는 킬릴 문자이기 때문에 배우기가 무척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11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아버지의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갑자기 동독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 당시 미국의 점령지였던 서독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곳 학교에서는 러시아어가 아니라 영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러시아어를 배우는 것도 어려웠지만, 영어는 저에게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구강구조가 영어를 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무척 애를 쓰셨습니다. 부모님은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어는 확실히 제 언어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어린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자전거를 타고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비행술에 대해 제가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읽고, 연구하고, 익혔습니다. 제 가장 큰 소망은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객기나 전투기의 조종실에 있는 제 자신

의 모습을 미리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바로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려면, 영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제 구강구조가 바뀐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영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많은 노력과 끈기와 인내를 요했으나, 영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의롭고 강한 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동기와 생각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진실성에 대한 간증은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력한 동기를 주는 힘입니다. 예수께서는 선한 생각과 합당한 동기의 힘을 다음과 같이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 (교리와 성약 6:36)

예수 그리스도와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배우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간증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실재와 진리와 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속죄, 그리고 후일의 선지자들의 신성한 부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간증은 우리가 의롭게 살도록 동기를 주며, 의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간증은 더 강화될 것입니다.

## 간증이란 무엇입니까?

간증에 대한 한 가지 정의는 “어떤 것이 참되다는 익숙한 증언”입니다. 그 기원은 라틴어 *testimonium*이며 단어 *testis*는 증거를 의미합니다. (“Testimony,” <http://www.reference.com/browse/wiki/Testimony>;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제11판 [2003년], “testimony,” 1291쪽)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들에게 간증이라는 용어는 우리의 종교적 표현에 있어 편안하고 친숙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애정이 깃들고 정감이 가는 단어입니다. 그 말 자체가 항상 어떤 성스러움을 지니고 있습니

다. 우리가 간증을 대해 말할 때, 우리는 논리적이고 단조로운 사실들을 나열하기보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느낌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영의 은사로서 특정 개념들이 참되다는 것을 성신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간증은 이 후기에 행해지는 주님의 사업의 참됨과 신성에 대해 성신으로부터 오는 확실한 지식 또는 확신입니다.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계시된 진리에 대해 영속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확신입니다.” (메리온 지 롬니, *New Era*, “How to Gain a Testimony,” 1976년, 5월호, 8쪽)

우리는 간증을 전할 때, 복음의 메시지가 절대 진리임을 선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상대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시대에, 절대 진리에 대한 선언은 그리 대중적이지 못하고, 편견이 있어 보이며, 시의적절하지 않은 듯 합니다. 간증이 인간의 영원한 결말로 이어지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사물”에 대한 간증은 담대하고, 진실되며,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 타협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복음 교리의 메시지를 선언한다면 좋아할 것입니다. 복음 진리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우리 삶의 닻입니다. 그것은 북극성처럼 한결같으며 신뢰할 수 있습니다. 간증은 매우 개인적이며 우리 각자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은 다음과 같은 분명하고도 단순한 진리를 항상 포함할 것입니다.

-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 조셉 스미스는 후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시킨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 물몬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고든 비 힝클리 회장과 그의 보좌들, 그리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은 이 시대의 선지자요, 선견자며, 계시자입니다.
- 우리가 성신의 권능과 은사로 이러한 진리

와 구원의 계획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얻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모로나이서 10:5) 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어떻게 간증을 얻습니까?

우리 모두는 간증을 얻는 것보다 간증에 대해 말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압니다. 간증을 얻는 과정은 수확의 법칙에 근거를 둡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7) 어떤 좋은 것도 노력과 희생 없이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면, 우리와 우리의 간증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얻을 때, 우리는 기량과 인격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간증은 논리나 이성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세상의 재물로 살 수 없고, 선물로 받거나 조상들로부터 상속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후기 성도는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아들이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 책임이 있습니다.” (“Fear Not to Do Good,” *Ensign*, 1983년 5월호, 80쪽)

이 확실한 지식과 확고한 신념의 근원은 신성한 계시입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 (요한계시록 19:10)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영에게 말할 때 이러한 간증을 얻습니다. 우리는 문화, 인종, 언어, 또는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우리의 간증과 신념의 근원이 될 흔들림 없는 잔잔한 확신을 얻을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보다 이러한 영의 속삭임이 우리의 간증이 서게 될 참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간증의 핵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성한 사명을 믿는 신앙과 그에 대한 지식일 것입니다. 그분은 경전에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6)

그렇다면 우리는 성신의 증거에 기초를 둔

개인적인 간증을 어떻게 연습니까? 경전에 그 방침의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믿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물몬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를 격려해 줍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능력을 일깨우고 환기시켜, 참으로 내 말을 시험하기에 이르며, ... 아주 작은 신앙을 행사하려 할진대, 참으로 설혹 너희가 믿기를 바라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을지라도.” (앨마서 32:27) 혹자는 “저는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자 하는 소망만 가지더라도 신성한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 아닌 진실한 소망이어야 합니다.

**둘째: 경전을 탐구하십시오.** 의문을 갖고, 그것을 연구하며, 경전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다시금, 물몬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훌륭한 조언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함으로써 “이제 만일 너희가 자리를 내주어 씨앗 하나가 너희 마음에 심어졌다면,” 그 좋은 씨앗은 불신앙으로 거역하지 않을진대 “너희 가슴 속에서 부풀기 시작하리니.” 이 좋은 씨앗이 “[너의] 영혼을 크게” 하고 “[너의] 이해력을 밝혀[주리라].” (앨마서 32:28)

**셋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즉 계명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싶다면, 학술적인 논쟁에 가담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열의 없는 연구로도 충분치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배운 후에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16~17)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15)

**넷째: 깊이 생각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연차 대회 모임 중 하나가 끝난 후, 멕시코 치와와 테크놀로지코 스테이크의 회원들과 선교사들이 사진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시오.** 성신으로부터 지식을 받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성신의 속삭임을 인식하도록 도울 것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물론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너희가 이 기록을 읽게 되거든, 너희는 아담이 창조된 때로부터 너희가 이 기록을 받게 될 때까지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셨던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너희 마음에 깊이 생각하라.

“... 너희는 혹 이 기록이 참되지 아니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진대, 그는 성신의 관능으로 너희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 (모로나이서 10:3~4 참조).

그리고 선지자 엘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나는 내가 말한 이러한 것이 참된 줄을 아노라. 이에 너희는 내가 어떻게 그러한 것의 확실함을 안다고 생

각하느냐?

“보라, 내가 여러 날을 금식하고 기도하며 나 스스로 이러한 일을 알고자 하였느니라 ... 주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그것들을 내게 나타내 주셨음이니, 이는 내 안에 있는 계시의 영이니라” (엘마서 5:45~46 참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엘마는 2,000여년 전에 금식과 기도를 함으로써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오늘날 그와 같은 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 간증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간증은 올바른 시각과 동기 부여를 제공해주고 목적 있는 삶과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견고한 기초가 됩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확신의 원천이며, 좋은 때든 나쁜 때든 언제나 참되고 충실한 동반자입니다. 간증은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의 이유를 제공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낙관주의 정신과 행복을 신장시키고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간증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의를 선택하도록 동기를 줍니다. 그것은 하

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게 하고 또한 우리가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야고보서 4:8 참조)

우리의 개인적인 간증은 보호하는 방패이며, 쇠막대처럼 어둠과 혼란 가운데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니파이의 간증은 그가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견디며 헤아림 받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여건에 상관없이 불평하거나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려웠음에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주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겠나이다. 이는 주께서 ...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실 것 [을] ... 내가 압니다.” (니파이전서 3:7).

주님께서 니파이를 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지금은 우리의 때이고, 우리의 날들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확고한 개인적 간증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동기를 부여할 것이며 세상을 축복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를 간증하며 주님의 사도로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

# 평안과 행복을 확실하게 해 주는 속죄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중심에 둘 때, 진정으로 지속되는 행복과 더불어 힘과 용기, 그리고 가장 어려운 고난을 극복할 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각자가 현세에 사는 동안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선지자들은 분쟁과 유혹들의 심한 정도가 더해져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가르치셨습니다.

평안과 행복을 찾기 위한 잘못된 방법과 올바른 방법을 암벽 등반에 비유하여 설명 드리

겠습니다. 험한 암벽을 “단독 등반”이라는 방법으로 오르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장비나 동료나 안전장치도 없이 홀로 등반합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의 기술과 역량에 의지합니다. 이 사람들은 높은 위험을 수반한 아슬아슬한 삶이 주는 긴장감을 즐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언젠가는 추락으로 인해 심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들은 성신의 인도에 의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예방조치 없이 인생의 도전과 유혹을 마주하는 많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오늘날처럼 고된 세상에서 그들은 중요한 율법을 어기고 고통스럽고 파괴적인 결과를 겪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혼자 힘으로 해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방법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암벽을 타는 더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두 명의 등반가가 어려운 코스를 등반할 때, 선등자는 몇 피트마다 암벽에 확보물을 설치하며 올라갑니다. 그의 밧줄은 고리로 중간 확보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후등자로 불리는 그의 동료는 매우 안정적인 위치에 자리를 잡고 안전을 확보합니다. 선등자는 후등자가 밧줄을 고정하고 주의 깊게 조정하는 동안 보호를 받

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선등자는 앞서 바위를 오르는 동안 그의 안전이 확보됩니다. 실수로 밧줄 헛디디게 되더라도 중간 확보물이 추락을 안전하게 막아 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대화와 신호를 주고받음으로써 후등자는 앞선 선등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그에게 격려와 용기를 줍니다. 그들의 목표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함으로써 안전하고 유쾌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시험을 거쳐 증명된 기술과 장비를 사용합니다. 필수적인 장비에는 튼튼한 안전 벨트, 믿을 수 있는 밧줄, 암벽 표면에 고정할 다양한 종류의 중간 확보물,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백목가루 주머니, 적절한 등산화 또는 선등자가 가파른 암벽에 밧줄을 부착시킬 수 있는 특수 등산화 등이 포함됩니다.

이 두 등반가들은 암벽 등반의 원칙과 기술을 공부했습니다. 그들은 경험이 많은 등반가로부터 교습을 받았으며 적절한 움직임과 장비 사용을 연습하여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등반 코스를 함께 계획했으며 어떤 식으로 협력할지 결정했습니다. 선등자는 적절한 거리만큼 등반하여 가장 안전한 적합 지점을 찾아 밧줄을 고정하고, 후등자가 설치된 밧줄의 길이 만큼 따라 움직이는 동안 밧줄을 끌어올립니다. 후등자가 선등자의 위치까지 오면 이 과정은 반복됩니다. 다른 사람이 몇 피트마다 확보물을 설치하며 오르는 동안 한 사람은 밧줄을 고정시키고 뜻하지 않은 추락에 대비합니다. 기술을 요하는 암벽 등반이 아슬아슬하고 위험하게 보이지만, 이러한 예비책들을 올바른 원리에 따라 사용하면 암벽을 타는 일은 유쾌한 경험이 되며 안전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중간 확보물은 여러분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밧줄과 밧줄을 확보물에 고정시키는 고리는 그러한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계명을 배우고 그 계명을 지키며 위험을 피할 계획을 세웠다면 여러분은 사탄의 유혹에 맞서서 보호 받을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법법에 맞서 여러분을 강하게 할 성품을 개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발을 헛디



다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회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안전이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주께서 여러분의 삶에 선동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 하늘의 반석이니 … 누구든지 문으로 들어와서 나로 말미암아 오르는 자는 결코 떨어지지 아니함이니라.”<sup>1</sup> 그분은 인생의 가장 힘든 장애물 너머로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위험한 세상에서 그분의 율법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중간 확보물이 되어 두려움을 없애고 성공을 보장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분명 여러분에게 평안과 행복을 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중심에 둘 때, 진정으로 지속되는 행복과 더불어 힘과 용기, 그리고 가장 어려운 고난을 극복할 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은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안전한 등반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여기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약속은 없지만, 주님의 때에 해결책이 나타나고 평안이 찾아올 것이며 행복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성장을 위한 경험들은 지속적인 평안과 행복이 있는 인생의 무대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장면들에 불과합니다. 슬픔, 상심, 실망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것들이 인생의 실체는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들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과소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배워야 할 교훈이 매우 중요할 때, 시련은 긴 시간에 걸쳐 계속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 초점을 흐리게 하도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놀랄 만큼 가치 있는 것일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와 적용은 여러분이 인생의 계단을 오르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 영광스러운 목적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한 관점

은 고난과 어려움이 적절한 역할을 하도록, 즉 더 높은 단계의 성장과 달성을 위한 발판이 되도록 해 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당면하게 되는 모든 성장을 위한 경험에 있어, 여러분이 그것을 원하던 그렇지 않은 간에, 그분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도록 기꺼이 그분께 맡긴다면 여러분의 발전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영의 인도를 받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분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 현세의 경험으로부터 가장 큰 행복을 누리고 가장 높은 곳에 이를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평안과 행복은 의로운 삶이 주는 소중한 결실입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가능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실수를 범합니다. 그것들은 영원한 율법의 위반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공의는 질서를 유지해 주는 하나님 아버지



의 행복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암벽 등반가에게 작용하는 중력과도 같이 항상 존재합니다. 공의는 영원한 율법이 지켜질 때는 친구가 됩니다. 율법을 간과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반대로 대응합니다. 공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축복을 얻을 것을 보장합니다. 공의는 또한 여러분이 어진 모든 율법에 대한 응보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여러분은 축복을 받지만, 이전의 순종이 현재의 범법을 무마해 줄 방도는 없습니다. 범법은, 올바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비참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속죄가 여러분을 이 절대적인 곤경에서 풀려나도록 해 줄 수 있습니다.

범법에 대한 공의의 요구는 끊임없는 회개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얻어지는 자비를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회개와 순종은 속죄가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한 기적을 행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구속주께서는 공의로써 여러분 개개인의 빛을 탕감하시고 회개라는 자비로운 방편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속죄를 통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함으로써 얻는 것을 유지하도록 하는 절대적 공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로 여러분은 범

법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속죄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홀로 힘들게 얻으신, 무한하고 영원한 결과를 가져온 이기심 없는 행동이었습니다.<sup>2</sup> 속죄를 통해 구속주께서는 죽음의 시슬을 끊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마지막에 구속주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죄는 악마의 지배 아래 영원히 사는 것을 막아 줄 수 있습니다. 속죄는 회개와 순종을 통해 용서를 받기에 합당한 모든 자들에게 승영의 문을 열어 줍니다.

속죄의 위대함을 생각하면 가장 깊은 경외심과 크나큰 감사와 깊은 겸손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은 여러분이 더 큰 평안과 행복을 위해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끊임없이 잘못을 회개하도록 하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무리 부지런히 노력한다 해도 인간의 생각으로 속죄의 영원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거나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속죄가 구주에게 끼쳤을 고통과 분노와 괴로움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비할 수 없는 임무를 감당하는 그분의 아들을 보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극히 일부만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주님의 속죄에 대해 진지하게 공부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현세에서 그분의 계명대로 살고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실한 가족 구성원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리하이는 그의 아들 야곱에게 “... 거룩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면전에 거할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다”<sup>3</sup>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공덕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 곧 여호와이셨습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는 그분께 영체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유일한 독생자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온전하고 죄 없는 삶을 사셨고 따라서 공의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우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께 순종할 때 그분의 자비는 공의에 진 우리의 빛을 대신 갚아 줍니다.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해도 우리는 실수를 범할 것이므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후에”<sup>4</sup> 그분의 은혜에 의해 구원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구속주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헤아릴 수 없는 대가의 고통을 치르시고 우리의 구속주요 증보자이자 마지막 심판자가 될 권리를 취하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삶에서 그분이 항상 여러분의 “선등자”가 되시도록 하십시오. 그분의 율법의 안정적인 확보물은 여러분이 직면할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과 성공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각한 범법 가운데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해의 왕국에서 승영의 면류관을 얻어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모세서 7:53.
2. 교리와 성약 133:50, 52~53 참조.
3. 니파이후서 2:8.
4. 니파이후서 25:23.

# 신권 정원회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정원회의 힘은 그 구성원들이 의로움 안에서 얼마나 완전하게 결속되어 있는가에 상당 부분 달려 있습니다.



**이** 훌륭한 신권 모임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신권 정원회의 일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사실이 별로 놀랍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게는 매우 놀랍습니다. 저는 한 작은 지부에서 아론 신권 집사로 성임 받았습니 다. 그 지부에는 단 한 가족만 있었고 예배당은 없었습니다. 모임은 저희 집에서 가졌습니다. 저는 유일한 집사였고 제 형은 유일한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봉사하지 않고, 혼자서 신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원회가 없던 그 작은 지부에 만족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후에 가족은 대륙을 건너, 많은 신권 소유자와 건실한 정원회가 있는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세월이 흐르면서 정원회의 힘은 정원회에 속해 있는 신권 소유자의 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것은 구성원들의 나이나 성숙도에서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원회의 힘은 그 구성원들이 의로움 안에서 얼마나 완전하게 결속되어 있는가에 상당 부분 달려 있습니다. 건실한 신권 정원회의 결속력은 제가 경험했던 어떤 스포츠 팀이나 클럽, 세상의 다른 어떤 조직의 결속력과도 달랐습니 다.

모사이야서에 기록된 엘마의 말씀은 제가 가장 건실한 신권 정원회에서 느꼈던 결속력을 가장 근접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가 그들에게 서로 다툼이 없어야 할 것과 단합과 서로에 대한 사랑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함께 땀어지고, 한 신앙과 한 침례를 가지고 한 눈으로 앞을 바라볼 것을 명하였더라.”<sup>1</sup>

엘마는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러한 결속력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 수 있는지도 말해 주었습니다. 엘마는 그들에게 회개와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주를 믿는 신앙이 아니면 아무 것도 전파하지 않게 했습니다.<sup>2</sup>

엘마가 가르쳤던 점과, 또 제가 보아 온 단합된 모든 신권 정원회에 해당되는 점은 바로 구성원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 함께 땀어지는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주님께서 정원회 회장들에게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 것을 명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리

와 성약 107편에서 각 정원회 회장의 의무를 설명하시면서 거의 같은 말을 사용하십니다. 집사 정원회 회장은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의무를 “성약에 따라 주어진 대로”<sup>3</sup> 가르쳐야 합니다. 교사 정원회 회장도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의무를 “성약에 주어진 대로”<sup>4</sup> 가르쳐야 합니다. 제사 정원회 회장, 즉 감독은 “사십팔 명의 제사를 감리하며 그들과 함께 평의회에 앉으며, 성약에 주어진 대로 그들의 직분의 의무를 그들에게 가르치”<sup>5</sup>라고 명을 받았습니다.

장로 정원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받습니다.

“또 장로들의 직분을 관장하는 회장의 의무는 구십육 명의 장로를 감리하며, 그들과 함께 평의회에 앉으며, 성약에 따라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니라.”<sup>6</sup>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정원회가 “성약에 주어진 대로” 가르침 받기를 원하셨는지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성약은 엄숙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성약을 맺고 지키면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충실히 돕겠다는 성약과 함께 신권을 받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주어 그분의 교회로 인도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고 회개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영생, 곧 하나님의 은사 중 가장 큰 은사를 상속받는 데 꼭 필요한 용서와 정화된 마음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모든 성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분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정원회의 모든 공과가 신앙과 회개에 관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인가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사와 참여자들이, 교실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고자 하는 결심과 신앙이 생기도록 주님의 영을 불러오길 항상 소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러한 소망은 정원회가 모임을 갖는 공과 교실 밖에서도 계속됩니다. 참으로 단결된 정원회에서는, 그런 소망이 장소와는 상관

없이 회원들에게 전달됩니다.

저는 그런 일을 오래 전 제가 공과를 가르치도록 부름 받았던 한 집사 정원회에서 보았습니다. 그 집사들 중 몇몇은 종종 정원회 모임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정원회뿐 아니라 모든 정원회에서, 가르치는 일은 열쇠를 가진 회장의 임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와 함께 평의회에 앉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받은 사람에게 “제가 뭘 가르쳐야 할까요?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라고 물어 봄으로써 권고를 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회장에게 정원회 회원들을 가르치는 책임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회장의 권고를 따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는 하나님께서 어린 정원회 회장에게 맡겨진 임무를 존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사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빈 의자가 있었고 거기엔 녹음기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작동 중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빈 의자 옆에 앉았던 소년이 녹음기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 소년이 자리를 떠나려 할 때, 왜 공과 내용을 녹음했는지 물었습니다. 그 소년은 웃으며 다른 집사가 자기에게 그날 정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년은 친구가 공과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녹음기를 집에 있는 친구에게 가져다 주려 했습니다.

저는 어린 정원회 회장에게 부여된 임무를 신뢰했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도움이 왔습니다. 성신이 교실 내 정원회 회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한 친구의 신앙을 강화하고 회개로 이끌기 위해 그 중 한 명을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녹음기를 가지고 간 집사는 성약에 따라 배웠으며, 성약에 따라 그의 친구와 동료 정원회 회원을 돕기 위해 도움의 손길을 뻗었습니다.

신권 정원회 회원들은 교실에서 배우는 공과뿐 아니라 더 많은 방법을 통해 배웁니다. 정원회는 봉사하는 조직이며, 정원회 회원들은 봉사를 통해 배웁니다. 정원회는 회원 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힘은 회원들의 숫자 이상으로 배



가됩니다. 모든 정원회에는 신권 봉사를 수행할 권세와 책임을 지닌 지도자가 있습니다. 저는 재난 시 도움을 주러 가라는 지명을 받은 정원회에 부여되는 권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구제 활동을 체계화하는 교회의 효율성에 대해 놀라움과 감탄을 표현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전세계의 신권 정원회 사업을 감독하는 사람들의 권세를 존중하기 때문에 모든 신권 봉사에는 권능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원회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려 할 때 권능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적은 정원회 회원들에게 신권 봉사를 행할 때도 일어납니다. 어느 일요일, 한 집사 정원회 회장은 정원회 모임 전 일찍, 그의 보좌들과 서기와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평의회에서 기도하며 생각해 본 후, 회장은 한 집사를 지명하여 한 번도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집사를 다음 정원회 모임에 초대하도록 해야 한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집사의 아버지는 교회 회원이 아니며 어머니는 교회에 관심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명을 받은 집사는 그 소년에게 연락하라는 회장의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가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그것이 힘든 일인 듯 주저하며 갔습니다. 그가 정

원회에 오라고 권유한 그 소년은 가족들이 이사 가기 전 몇 번만 정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저는 그 집사 정원회가 모임을 가진 곳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모임 중간에, 모르는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 누군가를 아느냐고 물으며 한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 이름은 정원회 회장으로부터 한 마리 잃은 양을 쫓아가 돌보라는 부름을 받은 소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대신 그 소년에게 감사하다고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몇 년 전 그 소년이 집사 정원회 모임에 초대할 아이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아이는 이제 다 컸지만 아직도 저에게, 교회로 자신을 초대할 집사 얘기를 한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으며, 저 또한 그렸습니다. 어린 정원회 회장은 정원회의 잃어버린 회원에게 도움을 주라는 영감을 받았었습니다. 그는 봉사할 한 소년을 보내라는 영감도 받았었습니다. 그 회장은 주님께서 하실 만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어린 회장은 성약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봉사해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다해 한 사람의 신권 소유자를 훈련한 것입니다. 마음이 뗏어졌으며 그 마음은 20년 후에도,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어도 여전히 뗏어져 있습니다. 정원회의 결속은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사업을 하며 만들어질 때 지속됩니다.

강한 정원회의 특징 중 하나는 회원들 사이의 유대감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돕습니다. 정원회를 결속하려는 주님의 목적을 기억할 때 정원회 회장은 그런 유대감을 가장 잘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론 그들이 서로를 도울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것, 그보다 훨씬 더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그분의 일을 의 안에서 행하도록 서로를 고양시키고 격려하는 데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이해할 때 정원회 내에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우리의 방식이 바뀔 것입니다. 가령, 교사 정원회 회원들의 농구 방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원회 회원들은 단순히 이기는 것보다는 유대감을 쌓길 원할 수 있습니다. 잘 하지 못해서 매번 빠지는 소년과 같이 경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 소년이 참여한다고 하면, 견제를 덜 받는 선수, 특히 득점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 소년을 염두에 두고 패스를 좀 더 많이 할 것입니다. 20년 후, 그 경기의 승패는 기억 못할 지 몰라도, 그들이 어떻게 또 왜 같이 경기를 했는지, 또한 누구의 팀이었는데는 기억할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것이 아니니라.”고 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유대감을 원하시는 이유를 알면 장로 정원회 파티 계획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개종하신 분이 준비한 파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복음을 알게 된 것이 그에게 일어난 가장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회원이 아직 아닌 이웃과 친구들을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그들과 얘기하며 느낀 유대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파티에서 신권 형제들과의 유대감보다 더 많은 걸 느꼈습니다. 주님은 그분께서 이 세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그분의 제자들을 첫 번째 십이사도 정원회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sup>8</sup> 그래서 그날 밤 한 파티에서 같은 방식으로, 저는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동료이며,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론 신권 형제였을 때 저는 한 신권 지도자로부터 그와 같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

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신권 형제 사이의 지속적인 유대감을 쌓는 법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식림지의 주인과 이야기하여 우리가 오후 동안 나무를 잘라 다발로 만들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 나무 다발은 남편을 잃은 분들이 추운 겨울에 불을 댈 수 있도록 해 줄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권 형제들과의 유대감이 준 따뜻함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제가 구주께서 하실 일을 하고 있었다는 느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분과의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약에 따라 생활한다면, 우리는 이 생에서 정원회를 통해 그런 소중한 유대감을 쌓을 수 있으며, 영광 중에 가족과 함께 영원히 그 유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권 정원회에서 하나가 되어 단합하라는 주님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은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도움으로 좋은 정원회가 훌륭한 정원회로 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러한 것을 원하십니다. 저는 그분께서 성약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할 더 강한 정원회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그러시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심을 압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가 평생 만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속죄 하셨음을 압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으며, 살아 계십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교회를 이끄십니다. 그분은 신권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교회 내의 열쇠를 가진 자들에게 영감을 주어 각 정원회의 회장들을 부르십니다. 저는 신권과 그 모든 열쇠가 조셉 스미스에게 회복되었음을 간증합니다. 저는 오늘날 그 모든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교회 회장에게 전달되었으며, 그는 지상에 있는 모든 신권의 주재자임을 엄숙히 증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 드립니다. 아멘. ■

**주**

1. 모사이야서 18:21.
2. 모사이야서 18:20 참조.
3. 교리와 성약 107:85.
4. 교리와 성약 107:86.
5. 교리와 성약 107:87.
6. 교리와 성약 107:89.
7. 교리와 성약 38:27.
8. 마태복음 4:19.

# 대장부가 됩시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칠십인 회장단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우리는 ... 방종의 티끌에서 일어나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오래 전 우리 형제들이 소년들이었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는 포괄적 인 암 제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죽음의 문턱까지 가셨습니다. 어머니의 목과 어깨의 조직 대부분을 제거해야 했고, 그 때문에 어머니는 오랫동안 오른 팔을 쓸 때마다 매우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수술 후 일 년쯤 되던 어느 아침에 아버지는 어머니를 모시고 전자 제품 가게에 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지배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옷 다리는 기계의 사용법을 어머니에게 보여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아이언라이트 (IronRite)라고 하는 그 기계는 무릎으로 의자에 달린 페달을 누르면 가열판 뒷면에 부착된 롤러가 아래로 내려가 회전하면서 셔츠나, 바지, 드레스 및 다른 옷 종류들을 다림질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특히

팔 사용에 한계가 있는 한 여인을 위해 (남자 아이 다섯 명이 있는 우리 가족의 엄청난 옷들을) 더욱 쉽게 다림질해 주었을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지배인에게 그 기계를 구입하겠다고 현금을 지불하자 어머니는 너무나 놀라셨습니다. 수의사인 아버지의 수입은 좋았지만 어머니의 수술과 약물 치료로 재정 상황이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형편에 어떻게 그걸 사요? 그 돈이 어디서 났죠? 이제 우린 어떻게 생활해요?” 결국 아버지는 근 일 년 동안 점심을 먹지 않고 돈을 모았다고 어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다림질을 하다가 멈추고 침실로 가서 팔의 통증이 멈출 때까지 울지 않아도 돼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그것에 대해 알고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의 희생과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행동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잘 알기 때문에 마음 속으로 “진정한 대장부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선지자 리하이는 반항하는 아들들에게 “나의 아들들아, 티끌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대장부가 되어라!” (니파이후서 1:21)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레이먼과 레뮤엘은 어른이 되었지만 품성과 영적인 성숙도 면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들과 같았습니다. 힘든 일을 하라고 하면 투덜대고 불평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고쳐주려는 사람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들을 소

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폭력을 일삼았고 사람들을 부당하게 곤경에 빠뜨리거나 학대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오늘날도 그와 같은 태도를 지닌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의 최고 목표가 자기 자신의 쾌락인 듯이 행동합니다. 방임적인 사회 도덕은 인간을 소위 구속에서 벗어나게 했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기보다 혼외의 자녀를 갖고 동거하는 생활을 용인합니다! 구속을 피하는 것은 영리하지만 타인의 복리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너무 고지식한 일이라 여깁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일하고 성취하는 삶이 선택 사항입니다. 소위 “중립 기어 상태의 젊은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현상을 연구하고 있는 한 심리학자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기술했습니다.

“저스틴은 한두 해 동안 대학에 가서 부모님의 돈 수천 달러를 허비한 후, 파분해져서 집으로 돌아와 고등학교 시절에 쓰던 자신의 옛 방, 똑같은 침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제 그는 킹코스라는 복사 가게에서 한 주에 16시간 일하거나 스타벅스에서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 그의 부모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 ‘저스틴, 넌 26살이야. 그런데 학교에도 안 다니고, 직업도 없고, 여자 친구조차 없어. 네 삶의 목표는 도대체 뭐니? 언제쯤에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 건데?’

“저스틴이 되받아친다. ‘뭐가 문제죠? 저는 경찰에 붙잡혀 간 적도 없고, 두 분께 돈을 달라고 한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달이세요?’<sup>2</sup>

그것을 어떻게 포부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우리는 표류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모로나이서 9:6 참조) 우리는 방종의 티끌에서 일어나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한 소년이 대장부가 된다는 것, 다시 말해 강하고 유능하여 일을 추진하고 창안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훌륭한 포부입니다. 좀 더 나이 든 우리에게 훌륭한 포부는 진정한 남자다움의 이상을 현실로 만든



는 것이며,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남자다움은 상당 부분 여성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우리가 추구할 이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다. 남녀간의 결혼은 그의 영원한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자녀들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sup>3</sup>

수년에 걸쳐 저는 여러 나라의 교회 회원들을 방문해 왔습니다. 환경과 문화는 달랐지만 모든 곳에서 저는 매우 어린 일부 숙녀들을 포함하여 우리 여성들의 신앙과 능력에 감명 받았습니다. 그들 중 많은 여성들이 놀랄 만한 신앙과 미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전을 잘 압니다. 그들은 준비 되어 있고, 자신에 차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문해 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여성들과 어울리는 남자들이 있

는가? 우리의 젊은 형제들이 이러한 여성들이 우리러보고 존경할 수 있는 합당한 동반자로 발전하고 있는가?

1998년 4월 연차 대회의 이 신권 모임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께서는 젊은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은 특정한 권고를 주셨습니다.

“장차 여러분이 결혼할 그 여성은 여러분을 상대로 커다란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녀의 남은 여생을 대부분 결정지을 것입니다. ...

“교육을 받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훈련을 받으십시오. 세상은 대체로 여러분이 지녔다고 판단되는 가치만큼 지불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서한에서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디모데전서 5:8)’<sup>4</sup>

고결함은 대장부가 되는 데 있어 기본입니다. 고결함은 진실함을 뜻하지만 또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언약과 성약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제일회장단의 보좌였으며 고결한 분이셨던 앤 엘튼 테너 회장님은 그분의 조언을 구했던 한 사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 한 젊은이가 제게 와서 이런 말로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과 매년 얼마씩 지불해야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지불이 밀려 있고, 저는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갚으려면 집을 잃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약한 것은 지켜야 합니다.’

“집을 잃게 되는데도요?”

“저는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님이 계약한 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님의 부인은 성약이나 언약을 지키지 않는 남편과 함께 집을 소유하기보다는 약속을 지키고, 의무를 다하며... 집을 빌려야 하는 남편을 더 원할 것입니다.”<sup>5</sup>

훌륭한 사람도 때때로 실수를 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모범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노력하지만 실패합니다. 정직과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치 있는 목표가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남자다움은 언제나 일의 결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 곧 그 사람의 노력에 의해 결정됩니다.<sup>6</sup>



비록 어느 정도의 희생을 하고, 언약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쾌락을 뿌리친다 할지라도 진정한 남자에겐 그것이 보람 있는 삶이 됩니다. 그런 남자는 많이 주더라도 더 많이 받게 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가운데 만족한 삶을 삽니다. 참된 남자다운 삶이야말로 바람직한 삶입니다.

대장부가 되라는 권고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가시관을 쓴 예수님을 데리고 나왔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요한복음 19:4~5) 빌라도가 자신이 한 말의 중대한 의미를 다 알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참으로 그 때에도, 오늘날처럼 남자다움의 극치로 사람들 앞에 서셨습니다-보라 이 사람이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물으신 다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제3니파이 27:27; 또한 제3니파이 18:24 참조)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남자로서 따를 수 있는 어떤 일을 하였습니다습니까?

예수님은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대적 악마와 마주했을 때 예수님은 “유혹에 [굴하지] 아니하”(모사이야서 15:5)셨습니다. 그분은 경전을 가지고 이렇게 대응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태복음 4:4) 복음의 계명과 표준들 또한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구주처럼 유혹에 저항하기 위해 경전에서 힘을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육에 속한 사람”(모사이야서 3:19)을 완전히 버리고 아버지께 자신의 뜻을 굴복하셨습니다.(모사이야서 15:7 참조) 그분은 “육체를 따라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추며, 그에게 순종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아버지께 증거함”(니파이후서 31:7) 보이기 위해 침례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사도행전 10:38)셨습니다. 그분은 “병든 자를 낮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고, 온갖 질병을 고치시는 것과 같[이]”(모사이야서 3:5) 거룩한 신권의 권능을 사용해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가복음 10:44, 45) 그분을 따르는 중으로서 우리는 사랑과 봉사를 통해 그분의 왕국에서 위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악과 잘못에 두려움 없이 대항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도다”(마태복음 21:12~13)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여 (마태복음 4:17 참조) 용서받을 것(요한복음 8:11, 알마서 5:33 참조)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스러운 것들을 지키며 경교의 음성을 높이는 데 확고히 서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살피라고 맡기신 자들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대장부, 즉 주님과 같은 대장부가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예컨대, 제임스 이 파우스트, “가족이 직면하는 도전”,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4년 1월 10일, 1~2쪽, Eduardo Porter 및 Michelle O'Donnell, “Middle-aged, No Degree, No Wife, 뉴욕 타임즈, The Atlanta Journal-Constitution에서 출판, 2006년 8월 6일, A7쪽; Peg Tyre, “The Trouble with Boys,” *Newsweek*, 2006년 1월 30일, 44~51쪽 참조.
2. Leonard Sax, “Project Aims to Study Young Men Stuck in Neutral,” *Washington Post, Deseret Morning News*에서 출판, 2006년 4월 3일, A13쪽, “국제 조사국에 따르면 [미국 내의] 22세에서 34세 연령 사이의 젊은 청년 중 3분의 1이 여전히 부모의 집에서 살고 있다. 이는 지난 20년간의 수치에서 대략 100퍼센트 증가한 것이다.”
3.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4. 고든 비 힝클리, “장차 결혼하게 될 여성에게 어울리는 합당한 생활을 함”, *리아호나*, 1998년 7월호, 49쪽.
5. Conference Report, 1966년 10월, 99쪽; 또는 *Improvement Era*, 1966년 12월, 1137쪽.
6. 1830년 말, 성도들이 커틀랜드를 버리고 떠난 후에 주님은 올리버 그랜저라는 사람을 불러 제일회장단을 위해 커틀랜드로 돌아가서 몇 가지 끝내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하셨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그는 나의 교회의 제일회장단의 빛 값의 일에 힘써 싸우라. 주가 이르노라. 그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니, 이는 그의 희생은 그의 증진보다 내게 더욱 신성한 것임이니라. 주가 이르노라.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나의 종 올리버 그랜저를 경멸히 여기지 말지이다. 도리어 나의 백성의 축복이 영원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이다.” (교리와 성약 117:13, 15)

# 위대한 행복의 계획

마커스 비 내쉬 장로  
침실인 정원희

물고기에게 물이 필요한 것처럼 참되고 깊은 행복을 얻기 위해  
여러분에게는 복음과 성신의 동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은 청남 여러분처럼 제가 집사였을 때, 저는 아버지와 함께 송어 낚시를 하러 산 속 개울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제 낚시 줄 끝의 낚시바늘에 미끼를 달면서 물고기가 미끼를 먹으려고 할 때 물고기 입에 낚시바늘이 걸리도록 하지 않으면 물고기가 도망가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낚시바늘에 걸리도록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자, 아버지는 물고기가 미끼를 먹으려고 할 때 낚시바늘을 흔들어서 미끼를 떨어뜨릴 수 없도록 그것이 물고기 입에 깊숙이 박혀야 하며, 물고기가 미끼를 먹으려 할 때 낚시대를 재빨리 잡아당기면 낚시바늘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물고기를 잡고 싶었기 때문에 그 개울의 둑 위에서 모든 근육을 긴장시킨 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서서 낚시줄 끝에 물고기가 미끼를 먹으려

고 한다는 신호가 오는지 살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난 후 저는 낚시줄 끝에서 미동을 느꼈고, 물고기와의 격렬한 싸움을 예측하며 순간 있는 힘을 다해 낚시줄을 잡아 당겼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입에 낚시바늘이 단단히 박힌 불쌍한 송어 한 마리가 물 밖으로 끌려나와 제 머리 위를 지나 제 뒤 땅바닥에 털썩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두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물 밖의 물고기는 비참합니다. 아가미와 지느러미, 꼬리는 물 속에서는 잘 움직이지만, 땅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둘째, 그날 제가 낚은 불운한 그 물고기는 속아서, 매우 위험하며 치명적이까지만 한 무언가를 가지 있거나 적어도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입질이라도 해 볼만큼 흥미로운 것이라 여겼기에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론 신권 형제 여러분, 여기서 배워야 할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삶의 기본적인 목적은 리하이아가 가르쳤듯이 “기쁨을 갖기 위함”(니파이서 2:25)입니다. 기쁨을 얻기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자신이 신성한 특성과 영적인 필요 사항을 상속했으며, 참되고 깊은 행복을 얻기 위해 여러분은 물고기에게 물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복음과 성신의 동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생(사도행전 17:28 참조)이기 때문에, 잘못을 행하고 그것이 옳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본성에 모순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이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만큼만 주어진다는 사실은 말하자면 여러분의 영적 DNA의 일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여러분이 복음에 따라 생활하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만큼, 여러분은 물 밖의 물고기처럼 비참해질 것입니다. (모사 이야기서 4:30 참조) 엘마는 그의 아들 코리엔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니었느니라. 또 이제 내 아들이, ... 속된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은 ...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자요, 또 하나님의 본성과 상반되게 나아갔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행복의 본질과 상반되는 상태에 있느니라.”(엘마서 41:10~11)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되는 것, 즉 그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거부하여 성신의 동반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행복의 본질에 반대되는 상태임을 유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실상 오직, 즉 둘도 없는 오직 하나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엘마서 42:8)입니다. 만약 그와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하거나 복음에서 편리해 보이는 부분에만 따라 생활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선택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하신 충만하고 눈부신 기쁨과 행복을 박탈해 갈 것입니다.

이제 낚시에 대한 제 경험에서 배운 두 번째 교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 속 개울에 사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끌려 나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길에 놓여진 미끼들을 주의해야 하듯이, 여러분과 저는 행복하며 복음 중심적인 생활에서 멀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현명해져야 합니다. 리하이아가 깨달았듯이, 악마는 “만인을 자신처럼 비참하게” 되는 길을 찾고 있으며, 우리가 불결하고 악한 것에 관여하면 우리를 “사로잡을 힘”을 얻게 된다(니파이서 2:27, 29)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합당치 못한 것에 조금이라도 관여하는 미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사탄은 낚시바늘을 걸기 위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걸려드는 아주 위험



한 낚싯바늘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시대를 실제로 본(물문서 8:35 참조) 고대 선지자 모로니는 여러분과 제게 “... 악한 은사나 부정한 것은 손대지 말라”(모로니서 10:30)고 날카롭게 경고했습니다. 음악, 인터넷, 영화, 잡지, 그리고 술, 마약, 담배에는 불결하고 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남 여러분, 악하고 불결한 것은 건드리지조차 마십시오! 이러한 것들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교묘하고 훨씬 더 갑자기 걸리게 하는 낚싯바늘이 숨어 있습니다. 그 낚싯바늘을 빼내는 것은 극심하게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앎마는 회개의 과정이 자신을 “죽음에 가까이 이르도록”(모사야 27:28)했다고 묘사했습니다. 참으로 그는 어느 것도 “나의 고통같이 것처럼 격심하고 그처럼 쓰디쓴 것”(앨마서 36:21)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사악하고 불결한 일에 관여했던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믿는 앎마의 신앙은 그를 회개로 이끌었으며 앎마는 그 회개의 직접적인 결과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을 통해 “... 나의 기쁨같이 그처럼 훌륭하고 감미로운 것은 있을 수 없느니라”(앨마서 36:21)고 말할 정도의 행복을 경험했다는 교

리적이며 역사적인 사실에서 희망을 얻으십시오. 회개를 통해 주님을 찾을 때,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권능을 부여해 주는 복음 원리입니다. 구주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이 개인적인 변화를 일으킬 때, 여러분의 이러한 행동은 힐라맨이 말했듯이 “[여러분에게] 구속주의 권능,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힐라맨서 5:11)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하고자 할 때, 앎마가 말했듯이 우리의 사랑 많으신 구주께서는 “그의 이름을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각 사람을 구원할 모든 권능”(앨마서 12:15)을 갖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강력하며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는 희망찬 교리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비참함을 피하기를 기대하시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가 인간의 설득에 넘어가 116쪽에 달하는 물문경의 원고를 잃어버렸을

때, 조셉은 비참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 너는 충실했어야 하였나니, 그리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자기 팔을 펴서, 대적의 모든 불화살을 막도록 너를 떠받쳐 주고 고난의 때마다 너와 함께 해 주었으리라”(교리와 성약 3:8)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남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충실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떠받쳐 줄 것입니다. 그 후 선지자는 회개한다면 용서받으리라는 것을 상기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기억하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준 그 명령에 반하여 행한 바를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는 아직도 택함을 받고 있나니 ...”(교리와 성약 3:10)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그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밤 저는 여러분이 진실로 행복해지고, 악과 그로 인한 비참함을 피하기 위해 복음에 따라 생활하도록 권유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악하고 불결한 일에 관여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 바라시는 변화를 일으키십시오. 저는 그분께서 비길 데 없는 권능으로 여러분이 성공하도록 해 주실 것을 증언합니다.

이 권능을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은 지속되는 행복을 수확하고 구속주의 반석 위에 삶의 기초를 세우게 되어 악마의 화살들과 세상의 폭풍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힐라맨이 가르쳤듯이 그것들은 “너희를 이겨 비참과 끝없는 재난의 심연으로 너희를 끌어내리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세워진 반석으로 인함이라, 이는 확실한 기초이니 만일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기초”(힐라맨서 5:12)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의 뜨거운 간증을 전합니다. 그분은 행복과 치유를 위한 유일하고 확실한 기초인 반석이십니다. 그분은 살아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시며,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아멘. ■

# 그분은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스탠리 지 엘리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우리 각자는 언젠가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우리의 신권 봉사와 청지기 직분에 대한 결산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몇**년 전 엘리스 자매와 저는 브라질 상파울루 북 선교부를 감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은 우리가 3년 동안 집을 떠나 있게 될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사업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휴스턴에 있는 집과 회사를 팔기보다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변호사에게 위임장을 준비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위임장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할 권세를 주는 법적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가진 사람은 우리의 집이나 다른 자산을 팔거나, 우리 이름

으로 돈을 빌리거나, 우리의 돈을 쓰거나, 또는 우리 회사를 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물건에 대해 그렇게 큰 권능과 권세를 준다고 생각하니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뢰하는 좋은 친구이자 동업자인 사람에게 위임장을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 권능과 권세를 매우 잘 행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했을 일들을 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즉 그분의 권능과 권세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사업에 관한 모든 일에서 그분을 대신해 행할 권능과 권세를 맡입니다!

이 신권 권능으로,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열쇠를 지닌 분들의 승인을 받아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의 의식, 다시 말해 죄 사함을 위한 침례, 확인과 성신의 부여, 신권 부여와 다른 사람들의 신권 직분 성임, 성전 의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게 신뢰하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우리가 신권을 받기 전에 우리는 이미 준비되고 검증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회개하고, 침례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임을 때까지 겪은 경험의 수준은 다릅니다. 그러나 신성한 절차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기도

를 했고 신권 열쇠를 행사하는 분들과 접견했습니다. 우리는 각 단위 조직의 교회 회원들에게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권세를 지니고 있으며 성임할 권한을 부여 받은 분에게서 성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신권을 신중하게 다루십니다. 그분의 권능과 권세를 행사하는 것은 성스러운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를 얻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은 여러분을 신뢰하시며, 또한 저를 신뢰하십니다!

신권을 받을 때, 우리는 성약을 통해 그렇게 합니다. 성약은 상호간의 약속입니다. 그분은 특정한 조건 하에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서는 항상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일반적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보다 더 많이 주십니다. 그분은 무척 관대하십니다.

우리가 벨기세택 신권을 받을 때 우리는 소위 신권의 “맹세와 성약”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두 가지를 약속하고 주님도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충실하여 ... 이 두 신권을 얻고,” “[우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으로 성결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모든 것에서 끝까지 충실하다면 “내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리라”고 그분은 약속하십니다. (교서 84:33~41 참조)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신권 봉사를 통해 그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충실하게 성공적으로 신권 봉사를 하도록 도우시기 위해 주님께서서는 지시와 경고를 주십니다. 그분은 경전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의 지도자들과 성신의 속삭임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경전에는 신권 소유자들에게 주는 지시와 경고가 담긴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구절 중 하나는 교리와 성약 121편에 있습니다. 그 몇 가지 구절에서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게 신권은 의로움으로써만 행사될 수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분은 지속적인 성신의 동반을 갖는 데 있어 자애와 미덕이 중요함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121편에는 또한 우리의 신권 권능을 잃게 하는 태도와 행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명예를 갈망”하고, “우리의 죄를 은폐”하려 하며, “우리의 교만” 또는 “헛된 야망을 만족”시키려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 하면, 우리는 신권 권능을 잃게 됩니다.(35~37절 참조) 그 시점부터 우리는 사제술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 사탄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게 될 것입니다.

신권 소유자들은 교리와 성약 121편을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현대의 선지자들이 우리가 합당함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지침서로 주신 이유를 이해하기란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합당함을 유지해야 하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언제 신권을 사용하도록 요청 받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 매튜는 다섯 살 때 이웃집 수영장의 높은 다이빙대 꼭대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쳐서 두개골 골절과 뇌진탕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응급 치료를 받기 위해 구급 헬기에 실려 휴스턴 의료 센터로 급히 후송되었습니다. 저는 신권의 도움이 즉시

필요했습니다. 우리 가정 복음 교사와 신권 지도자 두 분 모두 그 순간에 합당한 상태였으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매튜에게 축복을 주었고 이들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카우트에서 말하듯이 “준비되어 있으십시오.”

우리는 분명 사제술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우리 시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 (디모데후서 3:5) 하는 자들이 있을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권 소유자로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신권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예가 될 수 있을까요? 가정 복음 교육을 하는 대신 단순한 방문만 합니까? 의식이나 성입에서 누군가를 축복하는 대신 기도만 합니까?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방법대로 행하기 위해 먼저 간구하지 않고 자신이 아는 최선의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니파이를 통해 우리에게 “먼저 …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주를 위해 아무것도 행하지 말아야”(니파이후서 32:9) 한다고 권고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수년 전에 저는 텍사스 휴스턴 북 스테이크 회장단의 보좌로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저는 달란트의 비유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야 했으므로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한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또 한 사람은 두 달란트를,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았습니

다. 왔을 때 결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섯 달란트를 받아서 열을 돌려준 종은 둘을 받아서 빚을 돌려준 사람과 함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주의를 사로잡은 것은 하나를 받은 종이었습니다. 그는 그 하나를 잘 보관해 두었다가 주인에게 무사히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주인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 (마태복음 25:14~30 참조)

이 일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잘 보관하려고 노력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 대한 기혹한 반응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은 제게 주님께서는 변화를 기대하신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우리 각자는 언젠가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우리의 신권 봉사와 청지기 직분에 대한 결산을 드리게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저의 경우, 텍사스 휴스턴 북 스테이크는 제가 부름 받았을 때보다 해임되었을 때 더 나아졌을까요?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생산적이 되고,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 (요한복음 15:5) 그분의 종과 그분의 영으로부터 받는 지시를 따르며, 그분의 신권을 그분의 방법대로 행사한다면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권 형제 여러분, 우리의 구주,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알고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신권 권능과 권세를 주시으로써 우리를 신뢰하셨습니다. 저는 이 진리에 대한 증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그분의 방법대로 행하기 위해 이 권능을 사용하길 기도합니다.

헝클리 회장님과 몬슨 회장님, 그리고 파우스트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들 모두가 선지자요, 선견자며, 계시자라는 개인적인 간증을 드립니다. 저는 그분들의 권고를 몸서 듣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영적 영양분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우리는 영적 영양분, 즉 충분한 복음과 거룩한 신권의 권능에 대한 지식에서 오는 영양분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유타 중부에 위치한 우리 마을 동쪽의 아름답고 풀이 무성하며 높은 산 계곡에서 매년 여름마다 소에게 풀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소들은 영양분의 보충을 위해 암염을 찾아야 했습니다. 암염은 멀리 떨어진 암염 갯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긴장한 말 위에 길마를 지우고 그 길마에 암염을 가득 실어서 암염지에 소금을 보충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짐 실는 말을 “느림보”라고 부른 데는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암염을 실은 “느림보” 위에 저를 앉혔습니다. 제 손에 고삐를 쥐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할아버지의 말을 타고 할아버지를 따라 산 위로 말을 몰고 갈 수 있었습니다.

제 말 “느림보”는 속도가 느렸지만 것처럼 무거운 짐을 날랐기 때문에 저는 말을 재촉하

지 않았습다. 말을 타고 산 위로 올라가 암염지로 가서 짐 내리는 말에서 암염을 내리는 데는 하루 종일이 걸렸습니다. 날이 더워지자 땀에 젖은 제 두 다리는 실려 있는 암염 덩어리에 닿아서 따끔거리곤 했습니다. 개울을 건널 때는 말에서 내려 물로 다리를 씻어 말리면 따끔거리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의 하루 내내 노래를 부르곤 하셨습니다. 주로 시온에 관한 노래를 부르셨는데, 제게 깊은 인상을 주었던 노래는 “당신의 친구들을 내게 보여 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 주겠네”라는 곡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돌이켜 보니 소금을 산 계곡으로 나르는 일은 즐거운 경험이었고, 암염에서 나온 보충 영양분은 소들을 건강하게 해 주었습니다.

자양분은 동물과 인간, 모두에게 성장과 회복을 촉진시키는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할아버지의 소는 암염에 있는 영양분을 필요로 했지만, 인간은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인간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sup>1</sup>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기]”<sup>2</sup> 때문에 영적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인간의 영은 사랑을 필요로 하며, 또한 “믿음의 말씀과 ... 좋은 교훈으로 양육”<sup>3</sup> 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영양분은 침례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켜 줍니다. 이러한 준비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들고자 하며”,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였음을 진실로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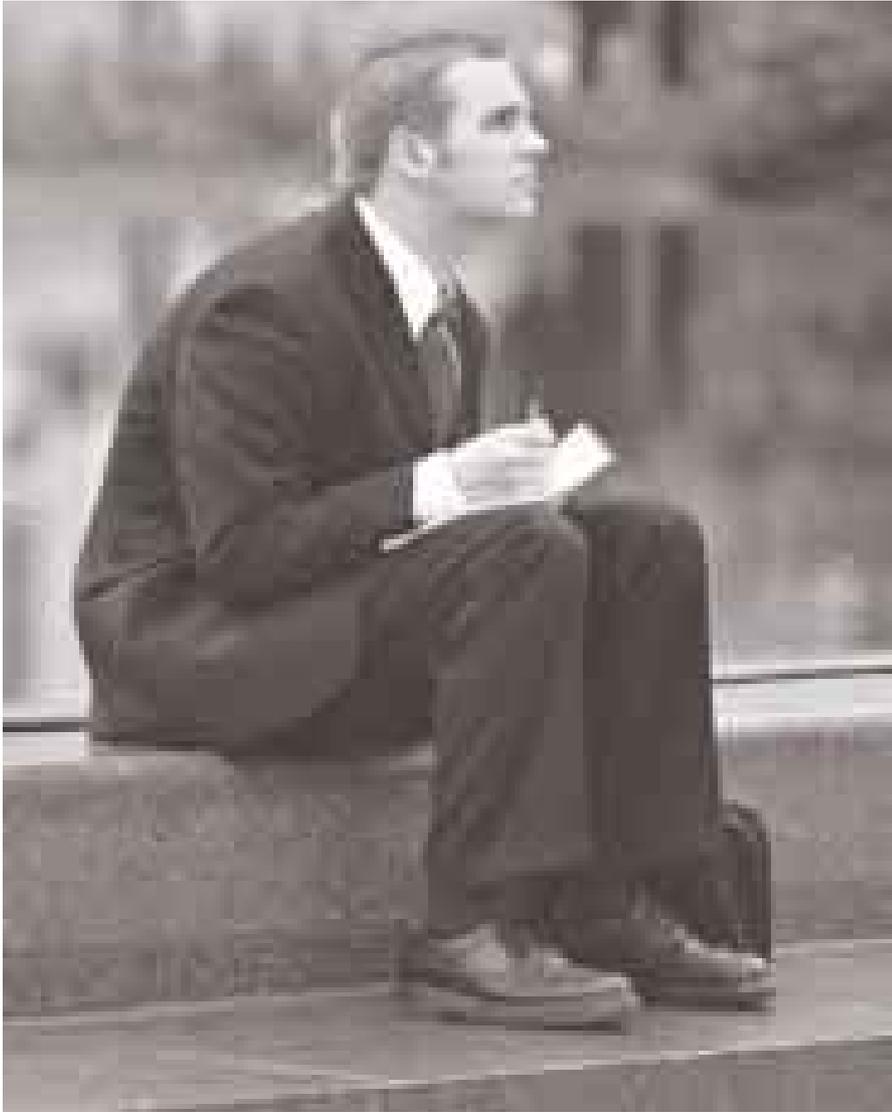
의 행위로써] 나타내는 것이 포함됩니다.”<sup>4</sup>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적 자양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시고, 예수는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이시며, 성신은 우리의 보혜사라는 간증입니다. 이 간증은 성신의 은사를 통해 확인됩니다. 이 간증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신뢰의 영적 자양분을 얻으며, 이것이 하늘의 축복을 낳습니다. 영적인 자양분은 여러 가지 근원에서 오지만 시간 제약상 딱 세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몇 년 전 막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한 청년은 매일 30분 동안 경전 공부를 하여 자신을 강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신약전서를 읽기 시작했을 때 그는 걸림돌에 맞닥뜨렸습니다. 그는 기대했던 영적인 고양을 느끼지 못했으며, 어떠한 통찰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때 학교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와 몇몇 친구들이 농담을 나누고 있었는데, 어떤 부분은 그리 재미있지도 않고 정말 부끄러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여기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상스러운 말도 몇 마디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이 일을 생각하던 바로 그때 마태복음의 다음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sup>5</sup> 그는 이때 영이 자신을 이 말씀으로 이끌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성경 읽기를 중단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라는 그의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는 경전을 읽었고, 성구들을 표시하며, 경전을 즐기가지 했지만, 경전에 있는 권고대로 생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경전을 읽고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생활하려 노력하자 그는 곧 자신의 삶의 여러 영역들이 어떻게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sup>6</sup> 경전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반영시킴으로써 그는 중요한 영적 자양분을 추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불확실한 물리적 환경에서 우리는 영적 자양분, 즉 충분한 복음과 거룩한 신권의



권능에 대한 지식에서 오는 자양분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지식이 우리의 영혼에 스며들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 해 전에 한 제사 정원회는 봉사 프로젝트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모으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사 중 한 명인 짐은 참여하는 일에 들떠 있었으며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음식을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사들이 예배당에서 모이기로 한 날이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동시에 나갔다가 늦은 저녁 정해진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짐의 수레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는 다소 진지해 보였고, 몇몇 소년들은 그를 놀렸습니다. 이를 보고 짐이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아는

고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봐, 짐. 내 차를 좀 보려무나. 녀석이 말썽을 좀 부리고 있거든.”

그들이 밖으로 나왔고, 고문은 짐에게 마음이 상했는지 물었습니다. 짐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음식을 모으러 나갔을 때 정말 많이 얻었어요. 제 수레는 꽉 찼거든요. 예배당으로 돌아오다가 우리 와드 구역에 살고 계시는 한 이혼한 비회원 아주머니의 집에서 멈췄어요.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설명하니깐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분은 제게 줄 것을 찾기 시작했죠. 냉장고를 열었는데 거의 텅 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찬장들도 비어 있었어요. 결국 그분은 작은 복숭아 통조림을 하나 찾아냈어요.

“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주위에는 먹을 것을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는데 그분은 제게 그 복숭아 캔을 건네 주었어요. 저는 그것을 받아서 수레에 넣고 길 위로 계속 올라왔어요. 그 구역의 절반쯤 올라왔을 때 온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전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음식을 전부 그분께 드렸어요.”

고문이 말했습니다. “짐, 오늘 밤 네가 느꼈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게 바로 봉사란 거란다.”<sup>7</sup> 짐은 이기심 없는 봉사의 자양분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많은 영적 자양분은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주님의 사업에 온전히 몰두할 때 옵니다. 영적 자양분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줄 때 옵니다. 한 세기 전, 제이 골든 김볼 장로가 미국 남부 주의 선교부를 감리했을 때, 그는 장로들의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방해받지 않도록 숲 속 한적한 곳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장로들 중 한 명이 한쪽 다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살갓이 벗겨지고 다른 쪽 다리보다 적어도 두께가 두 배로 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장로는 숲 속에서 열리는 이 특별한 신권 모임에 참여하기를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장로가 그를 데리고 이 모임 장소로 왔습니다.

김볼 장로가 선교사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선교사들이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신앙을 통해 아픈 사람들을 고칠 권능과 권세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그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믿지 않습니까?” 라고 그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다리가 부은 그 젊은이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나머지 이야기를 김볼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장로님 나무 그루터기에 앉았으며 장로들이 그 주위로

모였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붓고 제가 병자 축복을 했습니다. 그는 바로 장로들이 있는 앞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고 병에 걸린 다른 모든 장로들도 기름 축복을 받고 모두 나았습니다. 우리는 그 신권 모임을 마쳤고 장로들은 자신들의 직책을 임명받았으며,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있었습니다.”<sup>8</sup> 그들은 신앙의 영양분을 보충 받았으며 선교 사업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되살아났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 영적 자양분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신성한 인도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는다면 그 효능과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sup>9</sup> 우리는 온갖 형태의 중독과 오염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몸을 깨끗이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하거나 오염된 음식은 결코 먹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택 방법으로 우리는 좋지 않은 맛을 지닌 것을 읽거나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영적인 오염의 상당 부분은 인간의 저속한 속성을 강하게 암시하거나 생생하게 묘사하는 인터넷, 컴퓨터 게임, 텔레비전 쇼와 영화를 통해 옵니다. 우리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힘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노스는 영혼이 주려서 온종일 부르짖었고, 또한 밤이 되도록 자신의 영혼을 위해 간구했습니다.<sup>10</sup> 그는 영적 진리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영적 자양분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sup>11</sup>

오늘 저녁 우리는 영적으로 강화되고자 하는 기대를 안고 이곳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간에 이 거대한 회중 속에서 하나님의 신권으로 만났습니다. 저는 우리가 주의 종인 선지자들



대회를 위해 모인 필리핀 청년들.

을 통해 오는 그분의 말씀에 항상 주리고 목마르기를 바라며, 또한 매주 성찬 모임에 참석해서 우리의 성약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론 신권을 지닌 각 청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모든 요소를 여러분 내부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잠자고 있기도 한 이러한 요소들은 외부로부터 강화되고 영양분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요소들은 물질적이며, 어떤 요소들은 영적입니다. 인간의 영은 자신의 영원한 여행, 곧 어디서 왔고, 왜 이곳 필멸의 세상에 존재하며, 기쁨과 행복을 얻고 자신의 운명을 실현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영적 자양분으로 우리의 영을 채우는 것은 영원히 계속되고, 우리와 함께 영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엠올레크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이 생을 떠날 때에 너희 몸을 소유하는 그 동일한 영, 그 동일한 영이 저 영원한 세상에서 너희 몸을 소유할 능력을 가질 것임이니라.”<sup>12</sup>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헌신과 의로움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정월회에서, 지부에서, 와드에서, 또 스테이크에서 여러분의 부름을 매우 잘 수행하고 계시기에, 교회는 성장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사업이 세계 전역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권을 통해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

도록 부름 받거나 지명 받은 가족과 그 밖의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신성한 선택의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는 그분께서는 “누구든지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리라”고<sup>13</sup>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성약에 충실하고 참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가족 관계에 있어서 특히 배우자에게,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도 완전히 헌신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온 생애 동안 이 사업의 참됨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나누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겸손한 종으로서 의롭게 전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주

1. 누가복음 12:23.
2. 욥기 32:8.
3. 디모데전서 4:6.
4. 교리와 성약 20:37.
5. 마태복음 12:36.
6. Carl Houghton, "What Am I Doing Wrong?" *Tambuli*, 1988년 5월, 42~43쪽; *New Era*, 1987년 9월호, 12쪽.
7. Robert B. Harbertson, "The Aaronic Priesthood: What's So Great About It", *New Era*, 1990년 5월호, 49쪽.
8. In Max Nolan, "J. Golden Kimball in the South," *New Era*, 1985년 7월호, 10쪽.
9. 마태복음 5:13.
10. 이노스서 1:4.
11. 요한복음 4:14.
12. 앨마서 34:34.
13. 교리와 성약 132:47.

# 우리의 신권 의무에 충실함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일회장단 제 1보좌

삶에 축복을 가져다주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단지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몇** 주 전 저희 와드의 금식 간증 모임에서 저는 뒷줄에 앉아 있던 한 어린 소년이 간증을 전하기 위해 용기를 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소년은 서너 번 정도 일어났다 앉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어깨를 펴고 회중석 통로를 용감히 지나 단상으로 나아갔고, 두 개의 계단을 밟고 올라가 연단에 올라 두 손을 연단 위에 올리고 회중을 바라보며 미소지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돌아서서 두 개의 계단을 다시 내려가 어머니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오늘밤 이 커다란 키퍼린스 센터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며 그 어린 소

년의 행동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말씀할 특권을 갖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도서에 나와 있는, 제가 좋아하는 한 구절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저는 **의무(本分)**라는 고상한 말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의 전설적인 인물이었던 로버트 이 리 장군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의무는 우리 언어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단어입니다. … 여러분은 그 이상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그 이하를 행하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in John Bartlett, *Familiar Quotations* [1968년], 620쪽)

우리 각 사람은 우리가 지닌 신성한 신권과 관련된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아론 신권을 지니고 있든, 멜기세덱 신권을 지니고 있든, 많은 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신권에 관한 계시에서 “그러즉 이제 모든 사람은 자기 의무를 배우고 자신이 임명된 그 직분을 부지런히 행하기를 배울지어다.” (교리와 성약 107:99)라고 권고하시면서 우리의 책임을 친히 요약해 주셨습니다.

저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권을 받는 모든 청년이 그 신권을 존중하고 또 신권이 부여될 때 전해지는 의무에 충실할 것을 소망

하는 바입니다.

51년 전에 당시 옥덴 남 스테이크 회장이셨고 나중에 십이사도 정원회 보좌가 되셨던 윌리엄 제이 크리칠로우 이세 형제님이 연차 대회의 신권 모임에 참석했던 형제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신임과 명예, 그리고 의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단순한 교훈은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루퍼트라는 소년이 길가에 서서 이상하리만치 많은 사람들이 급히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그는 그들 중에서 친구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급히 어디로 가는 거야?”

그 친구가 멈추어 말했습니다. “아직 못 들었나?”

“아무 이야기도 못 들었는데.”라고 루퍼트가 대답했습니다.

친구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임금님께서 왕실의 에메랄드를 잃어버리셨어. 어제 한 귀족의 결혼식에 참석하실 때 그 에메랄드를 가느다란 금줄에 달아 목에 걸고 오셨대. 그런데 어쩌다가 그 에메랄드가 금줄에서 풀려 없어진 거야. 임금님께서 그걸 찾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는 중이야. 우리도 빨리 가자.”

루퍼트가 우물쭈물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려면 할머니에게 허락을 받아야 해.”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난 먼저 가야겠다. 가서 그 에메랄드를 찾고 싶어.”

루퍼트는 할머니의 허락을 받기 위해 숲 가장자리에 있는 오두막으로 급히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 에메랄드를 찾지만 하면, 이 습기 찬 오두막 집을 떠나 언덕 위에 있는 땅을 살 수가 있어요”라고 말하며 그는 할머니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양은 어떻게 하고?”라고 반문하며 말했습니다. “양들이 오랫동안 그 좁은 우리에 갇혀 있어서 답답해 하니 풀밭으로 데리고 나가고, 해가 중천에 뜨면 물가에 가서 양에게 물 먹이는 것을 잊지

마렵.”

“루퍼트는 슬픔에 잠긴 채 양을 데리고 풀밭에 갔고, 점심 때는 양을 몰고 숲속의 시냇가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냇가의 커다란 돌 위에 앉았습니다. ‘임금님의 에메랄드를 한번 구경이라도 해 봤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냇물의 모래 바닥을 내려다보던 루퍼트는 갑자기 물 속을 응시했습니다. 저게 뭐지? 아냐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며 그는 물 속으로 침범 뛰어들어 집게 손가락으로 [끊어진] 눈부신 금줄이 조금 달린 녹색 물체를 집어 들었습니다. ‘임금님의 에메랄드다!’ 하고 그가 외쳤습니다. ‘임금님이 말을 타고 냇물 위 다리를 급하게 건너던 중에 이 에메랄드가 금줄에서 빠져, 냇물에 실려 여기까지 온 게 틀림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루퍼트는 눈을 반짝이며 할머니의 오두막으로 달려와 자신의 엄청난 발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했습니다. “잘했구나, 애야. 하지만 네가 양을 치는 네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걸 찾지 못했을 거야.” 루퍼트는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네 의무를 다하라. 그것이 최선의 길이니라. [그] 나머지는 주님께 맡길지어다.’라는 격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Henry Wadsworth Longfellow, “The Legend Beautiful,” in *The Complete Poetical Works of Longfellow* [1893년], 258쪽)

정원회 회장이거나 회장이었던 여러분께, 저는 여러분의 의무가 직분의 기간이 끝나다 해서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원회 회원과의 관계와 그들에 대한 의무는 여러분의 생애 내내 계속됩니다.

아론 신권의 교사 직분에 있던 기간 동안, 저는 정원회 회장에 부름 받았었습니다. 헌신적이고 영감에 찬 정원회 고문의 재촉과 도움으로, 저는 각 청남이 정기적으로 우리 모임에 참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들 중 두 명이 특별히 어려웠는데, 인내와 사랑으로 인해 그들은 모임에 참석하고 정원회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들은 학업과 직장을 위해 와드를 떠나게 되었고, 각각 다시 비활동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많은 결혼식과 장례식을 포함하여 여러 행사에서 이 두 명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각각 보아 왔습니다. 제가 볼 때마다, 그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나는 아직도 너의 정원회 회장이니, 내가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지. 넌 나에게 아주 중요하니까. 네가 교회 활동을 통해 오는 축복을 누리게 하고 싶어.” 내가 그들을 좋아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신권을 지닌 우리에게서는 우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특권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돌보는 목자입니다. 굶주린 양들이 바라보고 있으며, 그들은 생명의 떡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래 전, 어느 할로윈 축제일 밤에, 잠시 길을 잃고 다시 돌아가기 위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던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저에게 특권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차를 몰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제가 솔트레이크시티의 세인트 마크 병원을 지나칠 때, 사업 관계로 알게 된 좋은 친구인 맥스가 바로 그 병원에 입원해 있음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제가 오래 전 서로 아는 사이가 되었을 때, 비록 시기는 달랐지만, 우리가 같은 와드에서 성장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맥스와 그의 부모님은 그 와드에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 할로윈 축제일 밤, 저는 주차장에 주차하고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안내 창구에 들러 맥스의 병실을 물어보면서 그가 병원에 접수할 때 자신의 종교를 후기 성도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로 적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맥스의 방으로 들어가 그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그의 친구인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제가 그를 얼마나 염려했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은행에서 일하면서 한편으로 오케스트라를 이끈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한두 마디의 말로 마음이 상했고 그래서 다른 교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맥스, 자네는 대체사야. 나는 오늘밤 자네에게 축복을 주고 싶네.” 그는 동의했고,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저에게 그의 아내 버니스도 아파서, 옆 방에 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저의 권유로, 맥스는 그의 아내에게 축복을 주는 데 함께 했습니다. 주위에 눈물과 포옹이 있었으며, 그 할로윈 축제일 저녁을 결코 잊지 못할 저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을 떠나면서, 저는 안내 창구에 들러 맥스와 그의 아내의 허락으로, 그들이



캄보디아의 한 교회 건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선교사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임을 반영하도록 기록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의 친구인 맥스와 버니스는 지금 모두 장막 저편에 있지만, 생애의 마지막 몇 년을 활동적이고 행복하며, 복음에 대한 간증과 교회 참석에서 오는 축복을 받으면서 보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의 의무는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영화 *썬난도*에는 다음과 같은 영감적인 대사가 나옵니다.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뭐지?”

신권 축복을 주거나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어야 하는 요청이 올 때,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영향력의 결과에서 우리가 참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을 우리는 듣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영향은 긍정적이고 고양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은 깨끗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순수합니까? 역사의 페이지를 통해 시간을 돌이

켜보면, 죽어가는 다리오 왕의 말에서 합당성에 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의식을 통해 다리오는 이집트의 합법적인 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의 맞수였던 알렉산더 대왕은 암몬의 적자로 선포되었습니다. 그 또한 파라오였습니다. 알렉산더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패배한 다리오를 발견하고는 그를 치유하기 위해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일어나 왕의 권위를 되찾으라고 명한 후, 다음과 같이 말을 마쳤습니다. “나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다리오, 그대에게 맹세하노니 나는 이 모든 것을 참되게 위선 없이 행하노라.”

다리오는 조용히 꾸짖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은 알렉산더여, ... 그대는 그대의 그 손으로 하늘을 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Hugh Nibley, *Abraham in Egypt* [1981년]에서 각색, 192쪽.)

의무라는 부름은 신권을 지닌 우리가 받은 임무지명에 응할 때 조용히 올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서도 유능한 지도자이며 제8대 교회 회장이었던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배우는 것이 모든 것 중에서 여러분의 첫 번째 의무이고, 여러분의 거룩한 신권의 권능과 힘으로써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쁘게 따르도록 이웃 앞에서 여러분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 다음 의무입니다.” (Conference Report, 1942년 4월, 14쪽)

어떻게 하면 부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그와 관련된 봉사를 행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삶에 축복을 가져다주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단지 끈만 푸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야고보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선언했습니다.(야고보서 1:22)

오늘 밤 이 신권 모임에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 생활에서 주의 인도를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새로운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밖에는 도움을 호소하고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망한 사람들도 있으며, 돌아가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가장 달콤한 축복은 항상 여기 아래에서 그분께 봉사하는 손을 통하여 온다.”라는 말씀의 참됨을 항상 믿어 왔습니다. (Whitney Montgomery, “Revelation,” in *Best-Loved Poems of the LDS People*, ed. Jack M. Lyon and others [1996년], 283 쪽) 우리의 손을 깨끗하고 기꺼이 행하는 손으로 준비시켜 놓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사람들이 그분에게서 받기를 바라시는 것들을 베푸는 일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저는 제 인생의 예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소중한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심한 인생의 환난과 좌절을 경험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는 결국에는 병들어 입원을 했습니다. 저는 그가 어느 병원에 입원한지 몰랐습니다.

몬슨 자매와 제가 중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을 방문하기 위해 한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나와 차를 주차시켜 놓은 곳으로 가고 있을 때, 돌아가서 제 친구 하이럼이 그곳에 입원해 있는지 물어 보라는 분명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내 직원에게 확인해 본 결과 몇 주 전부터 하이럼이 실

제로 그곳에 입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병실로 가서 문을 두드리고 열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광경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병실은 풍선으로 가득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쓰여진 포스터가 병실 벽에 돋보이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하이럼은 병실 침대에 앉아 있었으며 가족들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본 하이럼이 “몬슨 형제님, 도대체 어떻게 오늘이 제 생일인 줄 아셨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미소만 지었습니다.

병실에 있던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들이 그들에게는 아버지요 제게는 친구인 하이럼을 둘러싸고는 신권 축복을 주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미소를 교환하고 다정한 포옹을 주고 받은 후에 저는 하이럼에게 기대어서 다정하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이럼, 주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 말씀이 형제님에게 힘을 줄 겁니다. 주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형제님께 약속하셨습니다.”(요한복음 14:18)

세월은 흘러갑니다. 그 흐름에 따라 의무도 커집니다. 의무는 희미해지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파멸적인 다툼이 오고 가지만, 인간의 영혼을 위한 전쟁은 완화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처럼 주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와 곳곳에 계신 신권 소유자들에게 들려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반복합니다. “그런즉 이제 모든 사람은 자기 의무를 배우고 자신이 임명된 그 직분을 부지런히 행하기를 배울지어다.”(교리와 성약 107:99)

형제 여러분, 우리의 의무를 배우시다. 그러한 의무를 수행하기에 합당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의 발자취를 따르시다. 의무의 부름이 왔을 때, 그분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모세서 4:2) 우리도 이와 같이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일어서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이 신권에는 그것에 합당해야 하는 큰 책임이 수반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실제적인 신권 소유자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흰 옷을 입으신 여러분은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이 거대한 컨퍼런스 센터는 꽉 찼으며 우리의 말씀은 전세계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있었던 신권 소유자들의 모임 중 가장 큰 모임인 것 같습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저녁 참석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최근 텔레비전에서 BYU 남성 합창단의 공연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일어서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라는 제목의 감동적인 노래를 불렀습니다. 불러 본 기억은 없지만, 이 노래는 1911년 윌리엄 피 메릴이 작사한 것이

며 우리 찬송가에도 편곡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사는 찰스 웨슬리와 다른 사람들이 쓴 옛날 영국 찬송가의 정신을 전해 줍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일어서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작은 일들을 떨쳐버리고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만왕의 왕을 섬기세

일어서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한 무리로 연합하여  
함께 형제의 일을 시작하고  
오류의 날을 끝내세

일어서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교회가 그대를 기다리니  
그 힘은 아직 일을 감당할 만큼 강하지 않네  
일어나서 위대한 교회를 만드세!

일어서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그의 발자취를 따르세  
인자의 형제들로서  
일어서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Hymns, no. 324; third verse in *The Oxford American Hymnal*, ed. Carl F. Pfatteicher (1930년), no. 256쪽]

형제 여러분, 경전은 우리 각자에게 매우



분명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니파이는 이 사야의 다음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 네가 나의 명령을 들었더라면-그리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며 네 의가 바다 물결과 같았을 것이요.”(니파이전서 20:18, 이사야 48:18 또한 참조)

리하이의 말씀은 신권을 지닌 모든 성인과 소년들을 위해 울려 퍼지는 권고입니다. 그는 큰 확신을 갖고 이렇게 말했습니다.”깨어나라, 나의 아들들아, 의의 갑주를 입으라. 너희를 묶고 있는 그 사슬을 떨쳐버리고 어둠 속에서 나아오며, 티끌에서 일어나라. (니파이후서 1:23)

오늘 저녁 이 큰 회중에 있는 모든 성인이나 소년은 자신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론 신권을 받은 소년들이라면 우리를 축복하고 보호하기 위해 안내하고 인도하는 천사의 성역을 베풀어야 합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멋진 일입니까. 만일 우리가 멜기세덱 신권을 받았다면, 영원한 권능을 가져다 주는 왕국의 열쇠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그분의 손을 제자들의 머리 위에 올려 놓으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신권에는 그것에 합당해야 하는 큰 책임이 수반됩니다. 우리는 부정한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외설물을 탐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어떤 방법으로도 학대를 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아!”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털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의 인도자와 지주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젊은이들 중 일부는 단정치 못하게 옷 입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권에 성임된 청소년들에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언어도 때로는 복장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 즉 불경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의 다음 이야기를 들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분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한 젊은 남자 간호사가

그분을 바퀴 달린 침대에 태우고 옮기는 중이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탈 때 침대가 부딪치자 간호사는 주의 이름으로 욕설을 했습니다.

김볼 회장은 의식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제발! 당신이 험하게 사용하는 그 이름을 지니신 분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조용한 침묵이 흐른 다음, 그 젊은이는 낮은 음성으로 “죄송합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Teachings of President Spencer W. Kimball [1982년], 198쪽 참조.)

제가 크게 염려하는 다른 문제 하나를 여러분에게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계시에서 이 백성들에게 받을 수 있는 모든 교육을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에 대해 매우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려를 가져다주는 추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감이신 롤프 카 장로님은 미국의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을 비교했을 때 전자는 65 퍼센트, 후자는 거의 73 퍼센트가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제게 알려 주셨습니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중퇴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남자들의 약 61% 정도가 고등학교 졸업 후 즉시 대학에 등록하는 반면, 여자들은 72%가 등록합니다.

1950년에는 대학에 등록한 사람의 70%가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30%였습니다. 2010년에는 남성이 40%, 여성이 60%가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1982년 이후로 매년 여성이 남성보다 학사 학위를 더 많이 받아 왔으며, 1986년 이후로는 여성이 석사 학위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젊은 여성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도가 남성의 참여도를 능가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입증해 줍니다. 저는 청남 여러분에게 일어서서 교육의 기회가 주는 이점을 활용하도록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자신보다 교육을 훨씬 많이 받은 여성과 결혼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명예를 함께 메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교육 문제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여러분의 교육은 교회에서의 여러분의 봉사를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한 연구에 따르면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신앙과 종교 활동에서의 참여도 커진다고 합니다.

저는 앞서 외설물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것은 쉽게 가장 나쁜 종류의 중독으로 변해 버립니다. 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편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과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을 회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서른 다섯 살 된 남성입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대부분의 생활 동안 저는 외설물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기가 몹시 부끄럽습니다만, ... 제 중독은 술이나 약물 중독처럼 실제적인 것입니다. ...

“제가 이 글을 쓰는 주요 목적은 회원들이 외설물을 피하도록 교회가 충분히 상담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것들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보다 나이 많은 사촌 형에 의해 성희롱을 당했으며, 그는 제 관심을 끌기 위해 외설물을 사용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성과 외설물을 접하게 된 것이 오늘날 제 중독의 원인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외설물 사업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자유란 없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선택의지를 잃었습니다. 제게 그것은 함정이며, 저는 거기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교회의 형제들에게 외설물을 피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에서 외설적인 자료의 근원을 없애 버리도록 권고해 주십시오. 책과 잡지 같은 뚜렷한 것들 외에, 유선 영화 채널도 집에서 없애 버려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방송을 보면서 나쁜 장면은 건너 뛸 수 있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외설물과 성도착은 우리 생활에서 너무도 흔한 것이 되어 이러한 자료들의 근원이 어디에나 널려 있습니다. 저는 외설적인 잡지를 길가나 쓰레기더미에서 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 말해 주어야 하며 그들에게 우연히 그런 것을 접하게 되더라도 보는 것을 피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힝클리 회장님**, 저를 위해 그리고 교회에서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끔찍한 고통을 극복할 용기와 힘을 갖도록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저는 이름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는 올바르게 사용하기만 한다면 훌륭한

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외설물을 취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혹은 소위 말하는 채팅방, 또는 사악한 행동이나 생각으로 이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컴퓨터를 끝 만한 충분한 자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 있는 죄악을 제거하라. 내 앞에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교리와 성약 43:11) 어느 누구도 이런 말씀의 뜻을 잘못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소는 하나님의 성막이니, 그러하다, 사람은 하나님의 성막 곧 성전이니라. 어떠한 성전이든지 더럽혀지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멸하시리라.”(교리와 성약 93:35) 이 말씀에는 애매한 표현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필멸의 육신을 돌보아야 하며 그것에 해가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위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이 손을 잡고 너를 인도할 것이요, 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네게 주리라.”(교리와 성약 112:10)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성령으로써,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신의 은사로서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나타내시지 아니한 지식을 너희에게 주시리니.”(교리와 성약 121:26)

우리 모두가 주님의 생애를 공부하고 그분의 말씀과 행동을 본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지자 조셉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의 모범에서, 우리 각자는 자신의 행동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이 영원한 특성들이 참됨을 간증합니다. 우리가 삶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할 경우, 그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리라는 점을 간증 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겸손하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 드립니다. 아멘. ■

# 곧도다 그 기초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진리에 대한 간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와 세계 곳곳에 모이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저의 임무와 특권에 임하며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1959년, 저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본부를 둔 캐나다 선교부의 회장으로 봉사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몇 달 후에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로 부름을 받고 이후 십이사도로 부름 아 네 명의 교회 회장 보좌로 봉사하신 훌륭한 캐나다인인 앤 엘톤 태너 회장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을 당시, 태너 회장은 방대한 트랜스-캐나다 파이프라인 주식회사의 사장이었으며 캐나다 캘거리 스테이크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분은 또한 “미스터 성실”로도 알려진 분이셨습니다. 첫 만남에서, 우리는 다

른 주제들과 더불어 추운 캐나다의 겨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캐나다의 겨울은 바람이 거세고 한번 영하로 떨어지면 몇 주씩이나 계속되며 살을 에는 듯한 바람이 기온을 더 떨어뜨리는 추운 날씨입니다. 저는 태너 회장님께 겨울이 이곳보다 덜 추운 많은 지역의 도로들은 갈라지고 부서져 패인 반면 캐나다 서부의 길과 도로 표면들은 어떻게 혹한 겨울 동안에도 갈라지거나 부서지지 않고 근본적으로 손상되지 않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답은 포장재 기초의 깊이에 있습니다. 도로들을 강하고 부서지지 않게 유지하려면 기초 지반을 무척 깊게 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가 깊지 않으면 표면은 극한 날씨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이 대화와 태너 회장의 설명에 대해 종종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에서 우리 삶에 깊이 적용할 수 있는 면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는데, 깊은 신앙의 기초와 진리에 대한 확고한 간증이 없다면 우리는 각자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거친 폭풍우와 시린 바람의 역경을 견뎌내기 힘들어 할지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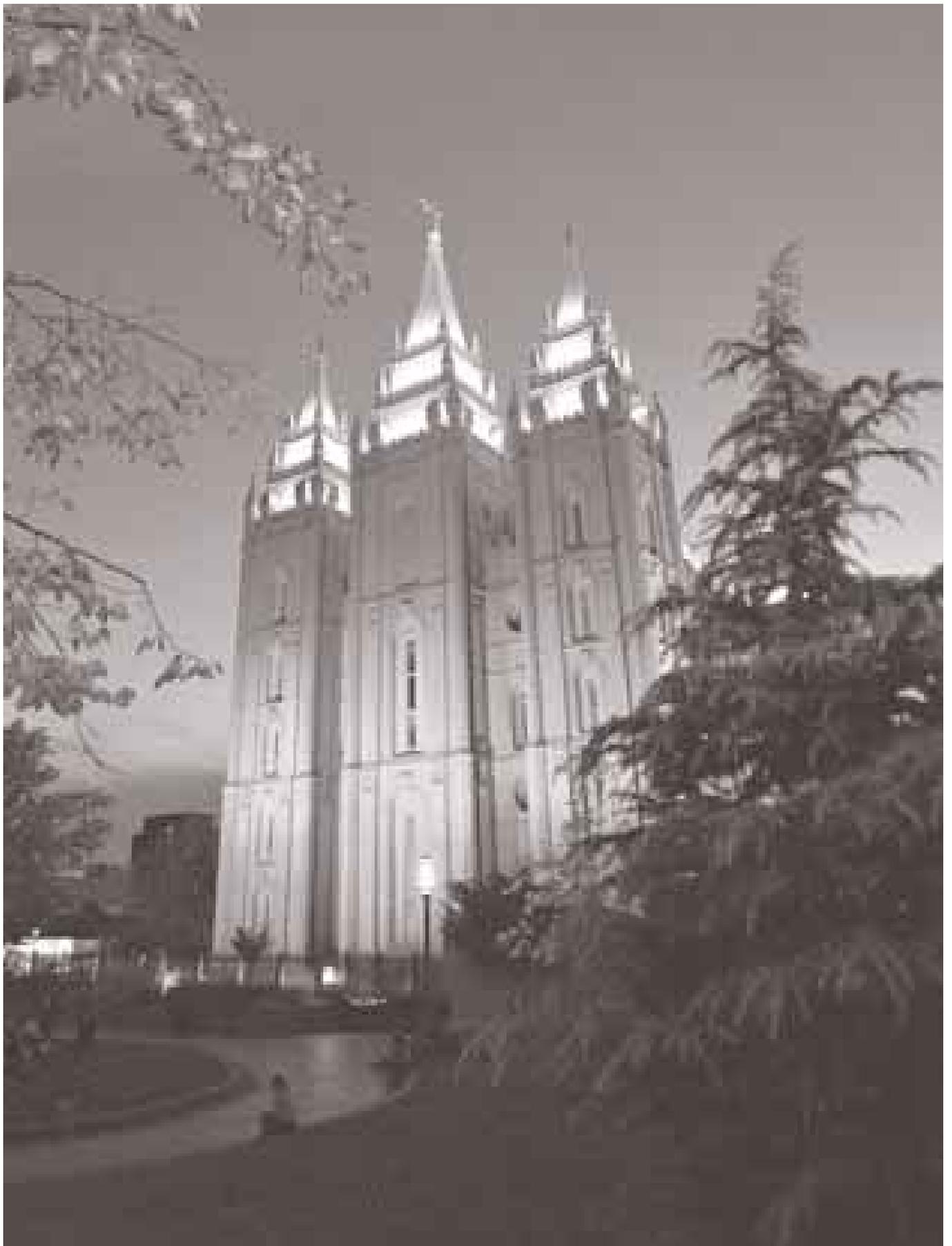
지상 생활은 시험의 기간, 즉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의 합당성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시험 받기 위해 우리는 도전과 고난에 맞서야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부스러뜨릴 수 있고, 우리 영혼의 표면은 갈라지고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진리에 대한 우리의 간증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잡지 않

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간증에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잠시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만의 강건하고 깊이 자리잡은 기초를 가져야만 반드시 찾아 올 인생의 폭풍우들을 견뎌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폭풍우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영원한 진리로 인도하는 길에서 비켜나 과오와 환멸의 위험한 길을 헤매는 자녀로 인한 슬픔과 비탄을 마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고통 그리고 때로는 사망을 불러오는 병마가 우리나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리칠지도 모릅니다. 사고는 잔인한 기억의 흔적을 남기거나 목숨을 앗아갈지도 모릅니다. 사망은 힘없이 비틀거리는 노인들에게 찾아옵니다. 사망은 인생의 여정에 반도 이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오기도 하며 종종 어린 아이들의 웃음을 잠재워 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긴 터널 끝에 불빛도 없고 밤의 어두움을 밝혀 줄 서광도 없는 듯해 보입니다. 우리는 실연의 고통과 산산이 부서진 꿈에 대한 실망과 사라져 버린 희망에 대한 절망감으로 둘러싸인 듯 합니다. 성경의 간절한 바람처럼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예레미야 8:22)라며 탄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비관이라는 일그러진 거울로 우리 자신의 불행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것 같고 상실감이 들며 혼자인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처럼 불행한 일들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강한 기초를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충실한 자들에게 언약된 기쁨을 맛보기 위해 필요한 신앙과 간증을 지속할 수 있습니까? 부단하고 한결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눈물을 흘릴 만큼 매우 강한 영감을 경험하고 더욱 충실히 남으리라 다짐을 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느낌들을 항상 간직할 수만 있다면 해야 할 일들을 못하게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느낌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 대화 동안 우리가 느끼는 영감은 월요일이 되어 직장 일과 학교 일, 가족이나 집안일을 마주함에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직원

## 제일회장단

2006년 10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1보좌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제2보좌

##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팩커



헨리 디 페린



러셀 엠 넬슨



멜린 에이치 유스



엠 러셀 렌샤워



조셉 비 워스킨



리처드 디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토도르프



테이버드 에이 베드나

## 칠십인 회장단



알 시 탕기



다톤드 크리스토퍼슨



제임스 디디이



메릴 제이 베이턴만



로버트 시 유스



빌 엠 멘덴홀



로널드 에이 리드

## 취임인 제일 정원희



김봉순  
카를로스 에이치 이반도



데이비드 에스 박스터



세인 현  
클라우디오 알렝 쿠스타



몬트 제이 브라운  
벤자민 데이 오로스



성인 예프 세원드  
로버트 케이 할린버호



영 후트나 클레이튼  
존 비 더슨



가리 제이 최종민  
데이비드 애드 에버츠



스벤서 제이 콘디  
크리스토퍼 올드 이세

## 취임인 제이 정원희



벤 비 아놀드  
제임스 엠 던



더글러스 엠 윌리엄스  
키스 할 에드워드



크레이그 에이 카든  
스티븐 지 엘리스



크레이그 시 크리스티슨  
대릴 에이저 간



스벤 디 크리스티슨  
디 렉스 기렛



돈 힐 윌리크  
래리 더블류 기븐스



윌리엄 에프 파크  
시 소토프 그로우



켄진 에크  
폴 데이 존슨



로버트 시 황번  
앤스니 디 퍼킨스



데이비드 엠 홀스트롬  
다블류 홀프 카



키스 케이 황번그  
오시영표 가꾸찌



리처드 지 황달리  
폴 비 파이퍼



제이 이 켄슨  
존 엠 매드슨



리처드 케이 메이너스  
칼 비 드렛



다일 황준슨  
린 에이 미켈슨



케네스 존슨  
미카스 비 내쉬



로버트 데이 존슨  
스태튼 이 스노우



더글러스 홀 페이스  
폴리세스 소이러스



로버트 데이 존슨  
프랜시스코 제이 비나스



폴 비 파이퍼  
린스 비 워크먼



존 엠 매드슨  
다블류 크레이그 주워드



칼 비 드렛  
에이지 브라운스 스투키



로버트 에스 파크  
폴리엄 할 양커



더글러스 홀 양커  
로버트 에스 우드



크레이그 시 크리스티슨  
데이비드 더글러스 정웨이



스티븐 데이 크리스티슨  
에이지 로스 워크먼



더글러스 홀 스투키  
에이지 브라운스 스투키



로버트 에스 파크  
에이지 브라운스 스투키



다일 황준슨  
폴리엄 할 양커



케네스 존슨  
로버트 에스 우드



로버트 데이 존슨  
데이비드 더글러스 정웨이



더글러스 홀 페이스  
에이지 로스 워크먼



로버트 데이 존슨  
에이지 브라운스 스투키



칼 비 드렛  
에이지 브라운스 스투키



존 엠 매드슨  
에이지 브라운스 스투키



칼 비 드렛  
에이지 브라운스 스투키



로버트 에스 파크  
에이지 브라운스 스투키



더글러스 홀 양커  
에이지 브라운스 스투키



크레이그 시 크리스티슨  
에이지 브라운스 스투키



스티븐 데이 크리스티슨  
에이지 브라운스 스투키



더글러스 홀 스투키  
에이지 브라운스 스투키



로버트 에스 파크  
에이지 브라운스 스투키

## 감리 감독단



리처드 시 황달리  
제1포좌



에이지 데이비드 비든  
감리 감독



키스 비 맥달린  
제2포좌



민 지 로빈슨  
서실 오 사무원은 이세



에이지 데이비드 비든  
서실 오 사무원은 이세



로버트 데이 존슨  
서실 오 사무원은 이세



더글러스 홀 페이스  
서실 오 사무원은 이세



로버트 데이 존슨  
서실 오 사무원은 이세



폴 비 파이퍼  
서실 오 사무원은 이세



존 엠 매드슨  
서실 오 사무원은 이세



칼 비 드렛  
서실 오 사무원은 이세



로버트 에스 파크  
서실 오 사무원은 이세



더글러스 홀 양커  
서실 오 사무원은 이세



크레이그 시 크리스티슨  
서실 오 사무원은 이세



스티븐 데이 크리스티슨  
서실 오 사무원은 이세



더글러스 홀 스투키  
서실 오 사무원은 이세



로버트 에스 파크  
서실 오 사무원은 이세



위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필리핀의 자매들; 대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보트를 타고 도착하는 통가 회원들;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한 어린이 회원; 캄보디아의 한 집회소 밖의 신발.



따라 감소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정신을 거룩한 것으로부터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를 고무시키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간증과 강한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인 경험만을 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진리에 대한 간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살아 남기 위해 필요한 기초를 가장 효과적으로 얻고 지속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답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될 세 가지 지침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기초를 강화하십시오. “기도는 말하든 안하든 영혼의 소망”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소망”, 찬송가 61장)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실제로 대화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기도가 반복적이고 별 생각 없이 읊조리는 말이 되게 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의 아들딸이라

는 것을 기억하면, 기도로 그분께 다가가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들을 바라십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간구하며 진실함과 의미를 담아 기도를 합시다. 응답이 왔을 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분의 응답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힘과 축복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우리의 삶에 대한 그분의 소망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을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항상 기도하라는 권고를 등한시해 왔던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영국 시인 윌리엄 쿠퍼는 “사탄은 가장 나약한 성도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두려워 떤다”고 말했습니다. (William Neil, comp., *Concise Dictionary of Religious Quotations* [1974년], 144쪽)

가족 기도를 게을리하지 맙시다. 가족 기도는 죄를 효과적으로 제지하는 요소이므로 기쁨과 행복의 가장 큰 공급원입니다. 다음과 같

은 옛말은 여전히 옳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족은 늘 함께하게 된다.” 우리는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인생에서 필요로 할 그들만의 깊은 신앙의 기초와 간증을 쌓기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의 두 번째 지침은 경전을 공부하고 여호수아에서 주께서 권고하신 것 처럼 “그것을 주야로 묵상”(1:8)하는 것입니다.

2005년, 수많은 후기 성도들은 그 해가 지나기 전에 몰몬경을 읽으라는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의 과제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2005년 12월은 시간에 맞추어 몰몬경을 읽기 위해 헌신한 시간들로 신기록을 세웠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과제를 완수함으로써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간증은 강화되고 우리의 지식은 증가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경전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찾은 교훈들을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경전을 읽고 공부할 것을 권합니다. 시인 제임스 피니 백스터의 시를 약간 바꾸어 인용하겠습니다.



배우고 또 배워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땅을 갈고 또 갈고도 씨앗을 심지 않는 사람과  
같도다.

(“The Baxter Collection,” Baxter Memorial  
Library, Gorham, Maine)

매일 경전 공부로 보내는 시간은 의심의 여  
지없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진리에 대한 간  
증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엘마가 기드온 땅에서 남방 맨타이 땅으로  
여행하던 중 모사이아의 아들들을 만나 느꼈던  
기쁨을 저와 함께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간 그  
들을 보지 못했던 엘마는 그들이 “아직도 주  
안에서 그의 형제였[고], 그뿐 아니라 그들은  
진리의 지식에 있어 강해져 있었나니, 이는 그  
들이 온전한 이해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하  
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부지런히 경전을 상고  
하였[기]”(엘마서 17:1, 2 참조) 때문임을 발  
견하고는 기쁨에 넘쳤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에 따라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굳은 기초와 간증을 얻기 위한 저의

세 번째 지침은 봉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사무실로 가던 중, 창문에 간  
판을 걸어 둔 세탁소를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간판에는 “중요한 것은 바로 봉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말은 쉽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  
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  
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봉사, 즉 주의  
봉사인 것입니다.

물문경에서 우리는 고결한 베냐민 왕에 대  
해 읽습니다. 영감받은 지도자의 진실된 겸손  
함으로, 그는 백성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의  
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자신의 소망을 표현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  
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섬  
기며 내 날을 보내었다고 너희에게 말하였다  
하여, 내가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다만 하나님을 섬겨 왔을 따름임이  
니라.

“그리고 보라, 내가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함은 너희로 지혜를 배우게 하려 함이  
니,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을 너희로 배  
우게 하려 함이니라.”(모사이아서 2:16~17)

가장 중요한 봉사는 바로 우리 모두가 부름  
받은 봉사,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인 것  
입니다.

인생의 길에서 여러분은 혼자만 여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고히 해야 할 말들과 붙잡아야 할  
손들, 돌려야 할 생각들과 고쳐시켜야 할 마  
음들, 그리고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십삼 년 전 저는 아름다운 12세 소녀 제이  
미 파머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갓 암 진단을 받은 소녀는 두려워 떨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 후 제이미는 수술  
과 고통스러운 화학 요법을 받았습니다. 오늘  
날 그녀는 암에서 해방되었고 자신의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성취한 밝고 아름다운 26세 숙녀  
입니다. 저는 어떠한 미래도 다소 우울하게 느  
껴지는 암울했던 그 당시에, 암이 발생한 다리  
를 몇 차례에 걸쳐 수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녀가 알게 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

# 구원의 계획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우리는 주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위대한 계획도 알지 못한 채 필멸의 생에서 외로이 방황하도록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의 청년반과 함께 오랫동안 계획해 왔던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남쪽 40마일 부근에 위치한 와사치 산의 팀파노고스 동굴로의 굽이진 길을 산행하는 것은 이제 그녀에게는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제이미는 친구들에게 자신을 빼고 하이킹을 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분명 그녀의 목소리에 떨림이, 마음에는 실망이 가득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자 다른 청년들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 제이미, 너도 같이 가야 해!”

“하지만 난 걸을 수 없는 길” 하고 그녀는 고통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를 꼭대기까지 업고 갈 거야!”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그 하이킹은 추억으로 남아 있지만 사실상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시인 제임스 배리는 “인생의 12월에 6월의 장미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억을 주셨네.”라고 읊었습니다.” (paraphrasing James Barrie, in Laurence J. Peter, comp., *Peter's Quotations: Ideas for Our Time* [1977년], 335쪽). 그 소중한 청년들은 모두 자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의 미소로 내려다보시며 매우 기뻐하셨던 그 인상적인 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대업에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분께 가까이 오도록 권하시며, 우리는 삶에서 그분의 영을 느낍니다.

우리의 삶을 위한 굳은 기초를 세울 때 우리 각자 그분의 고귀한 약속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너 두려워 말고 낙담 말아라  
너희 주 하나님 나 함께 하리라.  
힘주고 도우어 높이 세우리라  
전능한 손으로 내 손이 높이 널 받들겠노라.  
(“굳도다 그 기초”, 찬송가 35장)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름으로 겸손히 기원합니다. 아멘. ■



여름 기간 동안 성찬식에 참석하면서, 저는 여름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온 세 명의 학생들로부터 말씀을 들을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말씀이 특히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여름 방학 동안 트럭 기사들이 자주 들르는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정기 노선을 운행하는 한 기사가 매주 같은 날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들렀습니다. 정기적인 정차로 인해 짧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사는 곳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가을에 학교로 돌아가기 위한 돈을 벌려고 여름방학 동안에 집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느 학교에 다닙니까?”라고 물었고, 그녀는 “BYU아이다호”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학교에 대해 더 알고 싶어했고, 대화가 복음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처음 접근방법은 그에게 지혜의 말씀에 관해 가르치는 것이었고, 그녀는 잘 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담배를 끊도록 설득했습니다.

이후에 그녀의 근무 시간이 바뀌어 더 이상 그에게 식사를 제공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간단한 메모와 함께 구원의 계획에 관한 교회 선교사 소책자를 동봉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그 기사로부터 메모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단순히 “학생이 내 인생을 바꿨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젊은 자매 덕분에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일으켜야 하는 변화에 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정보를 찾았습니다. 저는 이 여중업원과 트럭 기사 사이의 이 간단한 만남의 최종 결과를 알지 못하지만, 그의 인생은 분명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의 아름다움에 관해 알게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곳에서 지금 그리고 다가올 영원한 세상에서 그들을 축복해 줄 복음의 진리에 관해 알도록 말할 기회는 일상 생활에서 매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하고 궁금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는 아무 목적도, 아무 의미도 없는 여행을 위해 우리를 지상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따라야 할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계획의 창시자이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진보와 궁극적인 구원과 승영을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선교사 지도서인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서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영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같지 않았고, 육체를 갖고 필멸의 삶을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그분처럼 될 수 없었으며 그분이 누리시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 즉 그분의 사업과 영광은 우리 각자가 그분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완전한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오기 전에 이 목적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48쪽)

그러나 오늘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계속 애쓰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는 외침만 더욱 더 커지고, 혼란스러운 때가 많아질 뿐입니다. 기술은 현재 온 세상을 덮은 어마어마한 양의 전선을 따라 그리고 전파를 통해 이런 메시지들을 퍼뜨림으로써 혼란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더욱 더 많은

다른 메시지들을 방송할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놀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전에 바울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때가 이르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디모데후서 4:3~4)

우리는 혼란스러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에 관한 혼란스러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인류에게 다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 경전에서 첫째 지체라고 하는 상태에서 처음 구원의 계획에 관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서 3:26 참조) 첫째 지체에서 일어난 일을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로서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의 영원한 영은 지상의 몸에 거할 기회에 대해 준비하기 위해 특정한 발전 단계들을 밟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아버지께서 지상 생활의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 천국 회의를 여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강요 받지 않았습니다. 계획의 핵심은 사람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구원을 힘써 이룩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계획을 따르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칠 지도자가 선택되었습니다. 주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설명 하셨습니다. “보라, 태초부터 나의 사랑하는 자요 택한 자였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내게 이르기를—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모세서 4:2)

우리의 만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세우신 계획을 옹호하는 일에서 지도자가 되셨으며, 우리는 그 계획과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한 선택과 더불어 우리는 지상으로 와서 둘째 지체를 받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형상에 따라 살과 뼈로 된 육신을 지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어,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동산에 그대로 남거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필멸을 경험할 기회를 갖는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받아들였으며,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하여 필멸의 육신이 되었고 또 육체적인 죽음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으로 인해, 그들은 필멸의 세상의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필멸의 세상에서의 삶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경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살과 뼈로 된 육신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은 인간이 존재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행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험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계명들은 복음의 원리와 의식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성합니다. 모든 원리와 의식은 우리가 받는 시험의 전체적인 목적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 더욱 그분처럼 되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줍니다.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곧고 좁은 길을 따라 가는 것에 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일은 필멸의 경험의 각 분야에서 우리가 있을 곳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분명하고도 명확한 전반적인 개념들을 근거로 하여 시험의 상태를 통과하기 위해, 필멸의 세상에서의 시험에서 성공하기 위해 이 분야 또는 저 분야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보상을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왕국에서 보다 낮고 작은 곳을 얻게 될 것입니다.

“...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곧고 좁은 길에서 있고, 비록 이 생에서 완전하지 않지만 옳은 것을 행하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고 소망합니다. 만일 곧고 좁은 길에 있는 동안 이



생을 떠난다면, 그는 아버지의 왕국에 있는 영원한 보상을 향해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The Probationary Test of Mortality”, 영적인 말씀, 솔트레이크 종교 교육원, 1982년 1월 10일, 8~9쪽)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에서 중심이 되시며, 인류를 위해 대속물로 주어진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의 타락을 극복하기 위해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와 구속주로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버림으로써 우리를 위해 육체적 사망의 장애를 극복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영은 육신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삼일 만에 그분의 영과 육신은 영원히 결합되어 다시는 분리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상에서의 삶은 잠시입니다. 영과 육신이 죽음으로 인해 분리될 때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이 생에서 선을 행했던 악을 행했던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불멸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필멸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죽음은 새롭고 더 나은 삶으로 향하는 입구로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 육신과 영은 재결합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고통이나 죽음에 얽매이지 않을 살과 뼈로 된 완전한 불멸의 육신

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 얻게 될 영광은 이 생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에 좌우될 것입니다. 오직 속죄의 은사와 복음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는 돌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구주의 부활 후에, 그분의 사도들은 전 인류에게 이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광범위한 지역을 여행하며 구주의 사명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거대한 기독교적 신앙의 움직임이 많은 나라들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점차 세상적인 배도로 향해 갔으며 그 속에서 신권의 계승이 끊어졌습니다. 영적인 의식을 집행하는 권세가 지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점차로 영감 받은 사람들이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그것을 더 밝은 날의 서광으로 묘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었던 어둠의 시기 동안 촛불 하나가 불을 밝혔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학문과 예술과 과학이 그 꽃을 피웠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신성한 아들을 인정하고 하늘을 바라보았던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들의 움직임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종교 개혁이라 부릅니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갈등과 증오, 어둠과 악 속에서 지낸 후에야 비로소 회복의 위대한 새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은 아버지와 아들이 소년 조셉에게 나타나심과 함께 전해졌습니다. 때가 찬경륜의 시대의 서광이 지상에 밝았습니다. 이전의 경륜의 시대에 존재하던 선하고 아름답고 신성한 모든 것이 이 가장 주목할 만한 시대에 회복되었습니다.” (“찬란한 아침이 밝아옴”, 리야호나, 2004년 5월호, 82~83쪽)

첫번째 시험이라는 영광스러운 사건에 이어, 몰론경이라는 거룩한 기록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님이신 구주에 대해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사명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

을 우리는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에서 보게 됩니다. 그분의 모든 자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은 기원을 그리고 자신들의 영원한 운명을 성취할 동등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경의 선지자 앰올레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올 것이라고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것처럼 많은 증거를 받았고, 거룩한 경전이 이러한 것을 증거함을 보았은즉, 너희가 나와 회개에 이르는 열매 맺기를 바라노라.

“참으로 너희가 나와 더 이상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기를 바라노니, 이는 보라 지금이 너희의 구원의 때와 날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면, 즉시로 위대한 구속의 계획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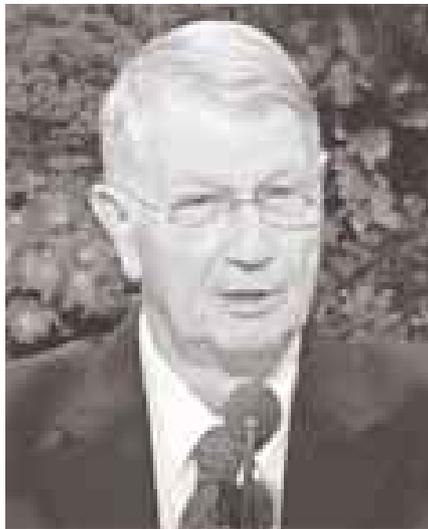
“이는 보라, 이 생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시간이라. 참으로 보라 이 생의 날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수행할 날이니라.” (앨마서 34:30~32)

더 이상 인간의 온갖 세상적인 풍조와 교훈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리지 맙시다. (에베소서 4:14 참조) 우리는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관한 진리가 인류에게 다시 알려졌음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우리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태초부터 현재의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위대한 계획에 관한 증거를 경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은 문서로 잘 보관되어 있으며, 우리는 주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위대한 계획도 알지 못한 채 필멸의 생애에서 외로이 방황하도록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율법에 대한 우리의 순종에 따라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엄숙한 성약을 지켜 오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되다는 점을 부디 기억하고 또 기억하십시오.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아멘. ■

# 수건 세 장과 25센트짜리 신문

리처드 시 에즐리 감독  
감리 감독단 제1보좌

우리가 정직과 청렴이라는 성스러운 원리에 충실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충실한 것이며 우리 자신에게 충실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전세계의 청중들 앞에서 약간 불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을 꽤 오랫동안 무겁게 짓눌렀던 한 주제를 소개하며 개인적인 고백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첫째를 마친 1955년 여름 저는 와이오밍 주 모랜에 새로 개업한 잭슨 레이크 호텔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당시 14년 된 1941년식 허드슨을 몰고 다녔는데, 이미 10년 전에 폐기 처분해야 할 정도로 낡은 차였습니다. 이 차의 특징 중 하나는 실내 바닥이 하도 심하게 녹슬어서 그 위에 합판을 깔지 않았으면 저의 두 발이 말 그대로 도로에 질질 끌릴 정도라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그 시기의 14년 된 다

른 차들과 달리 제 차는 오일 소모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냉각장치에서 엄청난 양의 물을 소비했지만 오일은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은 어디로 사라지며 오일은 왜 점점 더 얇어지고 더 맑게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름이 끝날 무렵 약 298킬로미터 정도를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저는 모랜 지역에 단 한 명 밖에 없던 기계공에게 차를 가져갔습니다. 잠시 살펴본 뒤 그는 엔진블록에 금이 가서 물이 오일 탱크로 새어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으로 물과 오일에 대한 의문점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물이 오일에 섞여 들어가게 하면 연비를 더 좋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고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적으로 집에 당도했을 때, 제 아버지께서는 밖으로 나오셔서 저를 기쁘게 맞아 주셨습니다. 저를 안아주시고 반갑게 안부를 물으신 후, 아버지는 제 차의 뒷좌석에 놓여 있던 잭슨 레이크 호텔의 이름이 새겨진 수건 세 장을 보셨습니다. 물론 비매품들이었습니다. 실망스러운 얼굴로 아버지는 “내가 너에게 기대한 것은 이런 게 아니었다.”라고 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수건들을 가져온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은 여름 내내 제가 고급 호텔에서 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과 의례와 같은 기념품이었습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건들 때문에 저는 아버지의 신임을 잃은 기분이었으며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주말에 저는 차 바닥에 놓여 있던 합판을 다시 손보고 냉각장치에 물을 채운 후 왕복 595 킬로미터에 달하는 길을 달려 잭슨레이크 호텔로 돌아가 그 수건들을 돌려주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왜 호텔에 다시 다녀왔는지 묻지 않으셨고 저도 그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일은 정직에 대한 값비싸고 가슴아픈 교훈이었으며 저의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사라져 버린 가장 훌륭한 가치 중에는 정직과 청렴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 간 더 많은 경영인들이 부정직을 포함하여 다른 잘못된 행태를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성실한 장기 근로자들이 생계 수단과 연금을 잃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집을 잃었고 교육받을 기회마저 잃었으며 다른 인생의 계획을 접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학습과 연습보다는 점수와 학위에 연연함에 따라 만연해진 부정행위에 대해 읽고 듣습니다. 우리는 부정행위로 의대를 졸업한 뒤 현재 환자들에게 복잡한 치료도 감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노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의 속임수에 넘어가 자신들의 집이나 노후 자금을 잃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정직과 청렴의 결핍은 언제나 탐욕과 뻔뻔함과 무례함에서 비롯됩니다.

잠언에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잠언 12:22)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엔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으로 알려진 개종한 레이맨인들에 대하여 몰몬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그들은 니파이 백성 가운데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백성 가운데 헤어림을 받았으며,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와, 또한 사람들에게 향한 그들의 열심으로 구별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모든 일에 온전히 정직하고 올바르게, 또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굳건하되, 참으로 끝까지 그러하였기 때문이었더



라.”(앨마서 27:27)

30여 년 전 제가 기업인으로 몸담고 있던 시절 몇몇 사업 관계자들과 함께 일리노이 주 시카고의 오헤어 공항을 거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근래에 수천 만 불을 받고 자기 회사를 매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문 자판기를 지날 때, 그는 25센트짜리 동전 하나를 자판기에 넣은 뒤 문을 열고서 마저 다 지불하지 않은 신문을 여러 부 꺼내어 일행 모두에게 돌렸습니다. 그가 제게도 신문을 건넸을 때 저는 25센트짜리 동전을 자판기에 넣으며, 그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요지를 섞어 다음과 같이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짐, 25센트만 내면 정직성을 유지할 수 있다

네. 1달러라면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25센트라면 고민할 필요도 없지.” 여러분이 예상하듯 저는 수건 세 장과 거의 고장나기 직전인 1941년식 허드슨 자동차에 대한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몇 분 후 우리는 그 신문 자판기를 다시 지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짐이 우리 일행에서 벗어나서 그 자판기에 25센트짜리 동전들을 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일화를 나누는 것은, 제 자신이 대단한 정직의 본보기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수건 세 장과 25센트짜리 신문 한 부의 교환을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마음이 정직하지 않으면, 비즈니스의 세계나 학교, 가정이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정직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너희의 어린 자들을 보라

마거릿 에스 리퍼스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1보좌

오늘날의 세상에서 자녀들은 ... 그들을 보호하고 가르치며 사랑해 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중요하고도 영속적인 많은 교훈을 종종 수전 세 장이나 25센트짜리 신문 한 부처럼 간단한 예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정직에 관한 단순한 가르침들을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면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39; 마가복음 12:31 참조), “남에게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태복음 7:12; 누가복음 6:31 참조) 같은 간단한 가르침 말입니다. 저는 일부 고위 경영인들이 이 일찍이 수전 세 장이나 25센트짜리 신문 한 부의 교훈을 배웠더라면, 오늘날 연금을 박탈당한 수천 명의 실직자들을 양산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직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기초가 되는 덕목입니다. 후기 성도들에게 정직은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요건입니다. 정직은 우리가 성전에서 맺는 성약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우리가 구주의 살과 피를 대신하는 성스러운 상징물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기본적이고 성스러운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그 성약 안에는 정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후기 성도로서 수전 세 장과 25센트짜리 신문 한 부처럼 단순한 예에서 볼 수 있는 정직의 원리를 가르칠 책임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생활할 신성한 의무도 지니고 있습니다. 정직은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과 청렴이라는 성스러운 원리에 충실할 때, 그것을 우리의 신앙에 충실한 것이며 우리 자신에게 충실한 것입니다.

후기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들로 알려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앤타이-니파이-리하이인들이 “모든 일에 온전히 정직하고 올바르며, 또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굳건하되, 참으로 끝까지 그러하였다”(앨마서 27:27)고 일컬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저는 이 부름에서 봉사하면서 몇몇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일라이저는 여러 초등학교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루카스는 신앙개조를 스페인어로 배우고 있습니다. 케이틀린은 수줍음을 타지만, 호기심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마사 옆에 앉았고, 마사는 제 팔짱을 끼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얼굴에선 복음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이웃에 사는 아이들은 누구입니까? 그 아이들을 보십시오. 또 그 아이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구주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모사이사서 3:19),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충만한 자녀들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타락한 세상의 난관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눈에 신앙의 빛이 머물도록 도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어린이의 삶에서 의로운 가정을 대신할 만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에서 자녀들은 헌신적인 부모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가르치며 사랑해 줄 부모도 필요로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린이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삶에 영을 불러들이고 그들의 마음에 영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환경에서는 그 어떤 종류의 무관심, 태만, 학대, 폭력, 착취도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타락한 상황이 더 심각해질지라도, 우리는 또한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기대, 지나치게 응석을 받아주는 것, 너무 많은 과외 활동, 그리고 자기 중심적 사고와 같은 다른 해로운 상황들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너무 엄하거나 너무 관대해도 자녀들이 성신을 통해 식별하고 신뢰하며 인도 받을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무디게 합니다.

유년기는 그 어떤 시기보다 복음의 진리에 대해 마음이 열려 있기때문에, 이 시기에 어린이들에게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가르치고 그들을



강화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일생에 한번뿐인 기회인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전과 우리의 선지자들을 통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니파이는 다음 구절에서 이에 대해 요약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 (니파이후서 25:26)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선지자들의 권고에 따르고, 가정에서 가족 기도, 경전 공부, 가정의 밤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러한 권고를 너무 자주 들어 와서 너무 단순해 보입니까? 또는 너무 바빠서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것이 너무 곤란합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의 영적 활동이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게 보일지라도, 순종 하나만으로도 주님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실제로, 일상에서의 개인적인 순종과 모범은 자녀들에게 기본 원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공부하고 익히며 적용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며 행하지도 않는 원리들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십시오. 저는 어린 시절 느꼈던 사랑 받는 느낌을 기억합니다. 이로 인해 구주께서도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은 부모가 그들의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할 거룩한 의무”(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를 이해하는 가정에서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아이들을 둘러보고 그들의 이름을 익히십시오. 그런 다음 권유하고 귀 기울여 듣고, 지지해 주고, 인도하고, 강화해 주며, 봉사하고 간증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은 어린이가 구주의 사랑을 느끼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던 바실리라는 한 아이는 진리를 찾는 일에 있어 부모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 지부를 발견했고, 교회의 모든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또한 바실리는 남동생 셋을 교회로 데려왔고, 다른 친구들도 초등학교로 데

려왔습니다. 사실 한때 그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초등학교는 교회 회원이 아닌 이 어린 소년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이끌려 갔으며, 얼굴에 복음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독신 성인, 선교사, 교사, 신권 지도자를 포함한 그 작은 지부의 모든 회원이 그들을 환영하고 보호하며 가르치고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이나 초등학교 반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부나 와드에 있는 어린이들은 누구입니까? 바실리처럼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아이는 없습니까?

제가 이 어린 소년들이나 그와 같은 아이들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미대륙을 방문하신 구주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큰 희망을 얻습니다. 구주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폭풍우, 지진, 불, 3일 동안의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3니파이 8장 참조) 저는 이런 일들을 겪은 아이들에 대해 종종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 부모들이 마음속에 가졌을 두려움과 근심을 그저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 다음 구주께서 나타나셔서 무리에게 그분께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라”(제3니파이 17:11)고 명하셨습니다. 부모들이 얼마

# “크고도 놀라운 사랑”

앤소니 디 퍼킨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나 간절히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구주께 데려가고 싶어했겠습니까? 부모들은 구주께서 어린아이들을 보고 우시며 한 명씩 축복하시고, 아이들을 위해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천사들을 부르시어 그들에게 성역을 베풀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제3니파이 17:21, 24 참조) 이야기는 우리에게 구주야말로 위대한 보호자이시고, 최고의 교사이시며, 사랑과 치유의 영원한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시대의 어둠이 우리를 에워쌌에 따라, 우리 역시 우리의 자녀들을 구주께 데려오라는 명을 받습니다. 벨라드 장로님께서서는 “하나님께서서는 사랑과 신앙의 열정,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들을 감싸안을 사람으로 우리를 지명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성도의 벗, 1994년 10월호, 37쪽)

형제자매 여러분, 어머니로서, 초등학교 지도자로서, 저는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자녀를 보호하고 가르치며 사랑하는 것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종종 낙담을 가져오기도 하며, 가끔은 지치기도 하고, 때때로 노력의 결과가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우리 자녀들을 구주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영이 주는 도움을 구할 때,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우리 역시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모사이야서 3:19)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얼굴에 복음의 빛을 비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마태복음 18:5) 라는 구주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구주를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분이 주시는 속죄의 권능에 대해 간중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아멘. ■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부적합함, 불완전함과 죄책감이라는 사탄의 덫을 [떨]하[게] 해줄 것입니다.



**순** 수한 신앙을 지닌 어린이들은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라고 선언합니다.<sup>1</sup> 그러나 청소년들과 성인들은 때때로 이 단순한 선언의 힘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탄은 “모든 의의 원수”입니다.<sup>2</sup> 따라서 그는 신화의 속성과 우리와 그분들의 관계에 대해 의심을 심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후일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현혹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sup>3</sup> 루시퍼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잡으려고 [어떻게] 덫과 올무를 놓는”<sup>4</sup> 지에 관한 세 가지 예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된 부적합함의 덫.** 한 충실한 자매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집과 학교에서는 칭찬보다는 오히려 비

난을 더 받습니다. 인기 있는 대중매체를 통해 보면 그녀는 아름답지도 영리하지도 않습니다. 날마다 이 의로운 자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구주의 속죄가 주는 희생 또는 영의 끊임 없는 인도를 받기에 자신이 합당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습니다.

**과장된 불완전함의 덫.** 한 뛰어난 선교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능력이 없다고 느낍니다. 이 합당한 장로는 엄격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돌이킬 수 없는 공의를 행사하시며, 구주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범법을 깨끗하게 하시지만 이 장로의 범법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며, 성신은 불완전한 사람과는 함께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죄책감의 덫.** 한 중년 여성은 헌신적인 어머니이고, 다정한 친구이며, 충실한 교회 회원이고, 성전에 자주 갑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오래 전에 범했으나 이미 회개를 했다고 신권 지도자들과 함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주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의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거하는 영생이라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세 명의 훌륭한 성도들과 비슷한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구속주께서 세상에 오신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내 보이신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다시 느껴볼 것을 권고 드립니다.<sup>5</sup>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부



적합함, 불완전함과 죄책감이라는 사탄의 덫을 “떨어지게”<sup>6</sup> 해줄 것입니다.

잠언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sup>7</sup>이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지속적인 기도와 경전 공부, 그리고 교회와 성전 참여에 더하여, 하나님의 온화한 사랑을 더욱 풍성히 느끼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일어나야 할 변화 다섯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자신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한 자녀로 인식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난 하나님의 자녀, 날 세상에 보내”<sup>8</sup>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잊었을지 모르는 것들을, 어린 아이들은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형상대로”<sup>9</sup> 지으신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들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실 만큼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우시며 여러분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 대해 무한한 사랑을 지니고 계십니다. 오직 사탄의 음성만이 여러분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반면 성신은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희망으로 여러분을 가득 채우는 방법을 통해 회개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sup>10</sup>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낄 때에는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큼을 기억하”<sup>11</sup>십시오.

오, 자신에 관해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는 것을 삼가하십시오. 겸손과 굴욕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에 집착하기보다는 여러분의 독특한 재능을 찾아서 활용하십시오.

**둘째, 여러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십시오.** 기대와 요구가 벅차게 느껴질 때, 홀로 맞서지 마십시오. 어린 아이들의 예를 따라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sup>12</sup>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모든 짐과 근심을 홀로 짊어졌음을 뜻합니다. 자신이 부적합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sup>13</sup>고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그런 다음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 안에 놓여 있는 모든 일을 기쁘게 행할 때”,<sup>14</sup> 주께서 그 나머지를 이뤄주실 것이며 문제들이 잘 풀릴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쉴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sup>15</sup>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맡길 때”,<sup>16</sup> 여러분은 영이 주는 평화를 느낄 것입니다.<sup>17</sup>

**셋째, 자신의 죄와 불완전함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이 생에서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필멸의 생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면서 실수를 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시”<sup>18</sup> 그분의 행복의 계획에 자비로운 구주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려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이 요구되니라.”<sup>19</sup>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시작하시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회개한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면<sup>20</sup> 왜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과거를 되새기면서 시간과 힘을 허비하는 일을 피하십시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어야 합니다. 선지자 지노크는 “주여, 주께서 이 백성에게 노하셨사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아들로 인하여 그들에게 내리신 주의 자비를 그들이 깨닫고자 아니하는 연고로소이다”<sup>21</sup>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이루신 속죄의 희생 능력을 제한할 때 슬퍼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여러분의 죄책감이 “씻기워 [지게]”<sup>22</sup> 할 수 있습니다. 진지한 회개를 한 뒤에도 죄의식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의 신권 지도자들이 여러분의 합당함을 선언할 때 그들을 믿으십시오.<sup>23</sup>



**넷째, 영생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십시오.** 과거의 죄, 성격적인 결함과 잘못된 결정들로 인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 일세의 경험을 생각하십시오. 사악한 노아 왕의 부도덕한 제사로 있었던 자신의 젊은 시절에 대해 언급하며 엘마는 “나 자신[이] 올무에 잡혀 주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많이 행하였나니, 그로 인해 쓰라린 회개를 하게 되었느니라.”<sup>24</sup>고 말했습니다. 엘마의 회개는 참으로 온전했고 그리스도의 속죄는 너무도 무한하여, 엘마는 선지자가 되었고 영생을 약속 받았습니다.<sup>25</sup> 여러분이 순종하고 회개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은혜를 통해 해의 왕국에서 한 자리를 받게 될 것입니다.<sup>26</sup>

**다섯째, 날마다 기쁨을 찾으십시오.** 기쁨의 한 가지 근원은 봉사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돕느라 바쁠 때, 자신의 결점에 대해 괴로워할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구주께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sup>27</sup>는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자라는 동안 커져 버린 비관주의

를 떨쳐버리고 대신 어린아이와 같은 낙관주의적인 태도를 지닌다면, 인생에서 더욱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낙관주의는 우리가 인생의 사소한 일들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알도록 해주는 덕목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는 “주가 주신 복을 세어라. 그가 하신 일을 알리라.”<sup>28</sup>고 권고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고도 놀라운 사랑으로 그분의 자녀들을 도우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적합함, 불완전함과 죄로부터 “구원하기에 능하”<sup>29</sup>심을 간증드립니다. 성신은, 완전하지 않지만 누우치는 사람들과 함께하심을 간증드립니다. 후일에 악마의 텃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충실하고 합당한 성도 여러분에게,<sup>30</sup>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기쁨을 통하여,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시기를”<sup>31</sup>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신앙개조 1:1.
2. 엘마서 34:23 ; 사도행전 13:10 ; 모사야서 4:14 ; 모로나이서 9:6 참조.
3. 마태복음 24:24 ; 1:22, 37.
4. 엘마서 10:17.
5. 교리와 성약 138:3.
6. 힐라맨서 3:29.
7. 잠언 23:7.

8. “난 하나님의 자녀”, 찬송가 187장.
9. 창세기 1:27; 엘마서 22:12; 이터서 3:15~16; 교리와 성약 20:17~18; 모세서 6:8~10; 아브라함서 4:26~27.
10. 고린도후서 7:10.
11. 교리와 성약 18:10.
12. 교리와 성약 6:36; 이사야 41:10; 마태복음 10:31; 누가복음 8:50; 교리와 성약 50:41; 교리와 성약 122:9 참조.
13. 빌립보서 4:13 ; 고린도후서 12:7~10 ; 히브리서 11:33~34; 니파이전서 7:12; 니파이전서 17:3; 야고보서 4:7; 엘마서 26:12; 이터서 12:27.
14. 교리와 성약 123:17.
15. 마태복음 11:28.
16. 시편 55:22.
17. 갈라디아서 5:22; 교리와 성약 19:23 참조.
18. 요한복음 3:16.
19. 교리와 성약 64:10.
20. 교리와 성약 58:42; 시편 25:7; 이사야 43:25; 예레미야서 31:34; 히브리서 8:12; 히브리서 10:17; 엘마서 36:19 참조.
21. 엘마서 33:16.
22. 이노스서 1:3~8; 엘마서 24:10; 36:16~19 참조.
23. 마빈 제이 애쉬튼, “합당하게 됨”, 성도의 벗, 1989년 7월호, 24쪽 참조.
24. 모사야서 23:9.
25. 모사야서 26:20.
26. 디도서 3:7; 베드로전서 5:10; 니파이후서 2:6~8; 10:24~25; 이노스서 1:27; 모로나이서 7:41; 교리와 성약 138:14 참조.
27. 마가복음 8:35; 또한 엘마서 36:24~25 참조.
28.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 찬송가 142장.
29. 니파이후서 31:19; 이사야 63:1; 엘마서 7:14; 엘마서 34:18; 교리와 성약 133:47 참조.
30. 디모테후서 2:26.
31. 엘마서 33:23.

# 흩어진 이스라엘의 집합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장막의 양쪽에서 주의 선택된 자를 모으는 일을 돕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헌신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고 주께서 원하는 것을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나눠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흩어진 이스라엘의 집합이라는 큰 흐름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그 교리가 특히 중요하므로 오늘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브라함의 성약

옛날에, 주께서는 선조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신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sup>1</sup> 이 성약에 대한 참조 성구들은 경전의 여기 저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아브라함의 가계를 통해 나오고, 특정한 땅이 상속되며, 지상의 나라와 민족이 그의 자손을 통해 축복 받을 것이라는 등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sup>2</sup> 그 성약의 어떤 부분은 이미 성취된 반면, 몰몬경은 이 아브라함의 성약이 오직 이 후일에 성취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sup>3</sup> 그것은 또한 우리가 주의 성약의 백성 가운데 속해 있음을 강조합니다.<sup>4</sup> 이러한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얼마나 마음 설레는 시기입니까!

## 흩어진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고대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신권의 권세와 복음의 축복에 이를 수 있었으나 결국 그 백성은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별을 받았습다. 열 지파가 앗수르에 포로로 끌려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인류의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분명히, 그 열 지파는 주께는 “잃어 버려지지” 않았습다.) 나머지 두 지파는 잠시 지속되다가 그들의 거역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 갔습니다.<sup>5</sup> 그들이 돌아왔을 때, 주의 은혜를 입었으나, 다시 그들은 그분을 경외하지 않았습다. 그들은 그분을 거부하고 비방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슬픈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라고 맹세하셨고, 그들을 모든 나라로 흩으셨습니다.<sup>6</sup>

## 집합하는 이스라엘

흩어진 이스라엘의 집합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똑같이 강조되었습니다.<sup>7</sup> 예를 들면, 이사야는 후일에 주께서 그렇게 “흩어지고 이탈된”<sup>8</sup> 이 백성들에게 “민첩한 사절들”을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경전의 여기 저기 많은 구절에서 발견되는 집합에 관한 이러한 약속은 이스라엘의 분산에 관한 예언이 그랬던 것처럼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sup>9</sup>

## 절정의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배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거기에는 사도, 선지자, 칠십인, 교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sup>10</sup> 주께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분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sup>11</sup>

얼마 후에, 주께서 세우신 교회는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변경되었고, 의식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기] ... 전에는”<sup>12</sup> 주께서 재림하시지 않을 것을 알았던 바울이 예고한 대로 대배도가 찾아왔습니다.

이 대배도는 이전의 각 경륜의 시대를 종식시켰던 방식을 따랐습니다. 최초의 경륜의 시대는 아담의 시대였습니다. 그 후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른 분들의 경륜의 시대가 왔습니다. 각 선지자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교리에 대해 가르칠 신성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각 시대에, 이러한 가르침들은 백성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배도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전의 모든 경륜의 시대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았습다. 그것은 각각 배도로 끝났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을 받았습다. 경륜의 시대들은 비교적 지구의 작은 지역에 한정되었습니다.

## 만유의 회복

그러므로 완전한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이 경륜의 시대의 선지자로 불렀습다.



바하마 나소의 집회소에 있는 회원들과 선교사들.

다. 이전 경륜의 시대의 모든 신성한 권능들이 그를 통해 회복되어야 했습니다.<sup>13</sup>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는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며, 배도로 끝나지도 않을 것이며, 세상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sup>14</sup>

### 이스라엘의 집합-만유의 회복에 필수적인 부분

베드로와 바울이 예언한 대로, 만물이 이 경륜의 시대에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회복의 일부로, 오래 기다려온 흠어진 이스라엘의 집합이 찾아와야 합니다.<sup>15</sup> 그것은 주의 재림에 앞서 필요한 서곡입니다.<sup>16</sup>

이러한 집합의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표적을 주리니, ... 내가 그들의 오랜 분산에서 내 백성을 모아들여, 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그들 가운데 내 시온을 다시 세울 [것이라].”<sup>17</sup> 몰몬경의 출현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집합시키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 맺은 성약을 성취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표적입니다.<sup>18</sup> 우리는 이 교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장막의 양쪽에서 주의 선택된 자를 모으는 일을 도우면서 그렇게 합니다.

몰몬경은 이 사업의 중심입니다. 그것은 집합의 교리를 선언합니다.<sup>19</sup>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배우고, 복음을 믿으며, 그분의 교회에 가입하게 합니다. 사실, 몰몬경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약속된 집합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sup>20</sup>

우리에게 *아브라함*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모든 구절보다 회복의 경전 구절에서 더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sup>21</sup>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모든 회원들과 연관됩니다.<sup>22</sup> 주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우리 시대에 아브라함의 성약을 다시 확인하셨습니다.<sup>23</sup> 성전에서,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후손으로 최고의 축복을 받습니다.<sup>24</sup>

### 때가 찬 경륜의 시대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는 하늘과 땅 양쪽에서 집합할 시기로 하나님에 의해 예견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배도의 기간 이후에 회복이 올 것임을 알았습니다. 변형 산에서 주와 함께 있었던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sup>25</sup>

현대에, 주께서는 “[그분의] 왕국과 마지막 때를 위한, 그리고 충만한 때를 위한 복음의 경

륜의 열쇠”를 가진 사도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 때에 그들은 “하늘에 있거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 것입니다.<sup>26</sup>

1830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만유의 회복”을 일으키는 열쇠를 소유한 일라이어스라는 이름을 지닌 하늘의 사자에 관해 배웠습니다.<sup>27</sup>

6년 후, 커틀랜드 성전이 헌납되었습니다. 주께서 그 거룩한 집을 받아들인 후, 하늘의 사자들이 신권의 열쇠를 가지고 왔습니다. 모세가 나타나서<sup>28</sup> “땅의 사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모으고 북방 땅으로부터 열 지파를 인도해 내는 열쇠들을 ... 맡”겼습니다.

“이 일 후에 일라이어스가 나타나 아브라함의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맡기며 이르기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 뒤의 모든 세대가 복을 받으리라.”<sup>29</sup> 했습니다.

그 후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선포했습니다. “보라, 말라기의 입으로 말한 바 된 그때가 완전히 이르렀나니-그가 증거하기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엘리아)가 보내심을 받아-“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온 땅이 저주로 치심을 당할까 하노라.”<sup>30</sup>

이 사건들은 1836년 4월 3일에 일어났으며<sup>31</sup>, 이로써 말라기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sup>32</sup> 이 경륜의 시대의 성스러운 열쇠들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sup>33</sup>

### 장막 저편에 있는 영혼의 집합

다행히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sup>34</sup>는 초대는 또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sup>35</sup> 그들이 하는 준비의 일부는 지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가계도를 모으고, 가족 기록서를 작성하며, 개인들을 주께로, 또 가족에게로 집합시키기 위해 대리로 성전 사업을 행합니다.<sup>36</sup>

### 집합에 참여함: 성약에 의한 약속

이곳 지상에서 선교사업은 이스라엘의 집합에 필수적입니다. 복음은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전해져야 했습니다.<sup>37</sup> 그 결과 주의 종들이 회복을 선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우리의 선교사들이 흩어진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마치 옛날처럼 그들은 바위 틈에서 그들을 사냥했으며, 또한 그들을 낚았습니다.<sup>38</sup>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는 선택은 물리적인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결심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조국을 떠나지 않고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이를”<sup>39</sup>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 초창기에 개종은 종종 이주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합은 각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출생과 국적이 주어진 각 나라에서 시온을 건설하도록 명하셨습니다.<sup>40</sup> 경전은 사람들이 “그들의 본향,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집결되고 그들의 모든 약속의 땅에서 확립될”<sup>41</sup>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는 그 백성을 위한 집합 장소입니다.<sup>42</sup> 브라질 성도를 위한 집합 장소는 브라질입니다. 나이지리아 성도를 위한 집합 장소는 나이지리아입니다. 한국 성도를 위한 집합 장소는 한국입니다. 시온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sup>43</sup> 의로운 성도들이 있는 곳은 어디나 시온입니다. 이제 거의 모든 회원들이 그들의 장소에 상관없이 교리, 열쇠, 의식, 그리고 복음의 축복을 접할 수 있을 정도로 출판물, 통신 수단, 그리고 집회가 있습니다.

영적인 안전은 어디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항상 달려 있을 것입니다. 온 땅의 성도들은 주의 축복을 구할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사업은 참됩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는 이스라엘의 약속된 집합을 포함하여, 그 신성한 운명을 성취하도록 회복된 그분의 교회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오늘 날 하나님의 선지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창세기 12:1~2; 교리와 성약 132:29~32; 아브라함서 2:6~11 참조.
2. 창세기 26:1~4, 24, 28; 35:9~13; 48:3~4; 요한복음 8:33, 39; 사도행전 3:25; 니파이전서 17:40; 니파이후서 29:14; 야곱서 5: 이더서 13:7~8; 교리와 성약 52:2 참조.
3. 예를 들면, 니파이전서 15:12~18 참조.
4. 니파이전서 14:14; 15:14; 니파이후서 30:2; 모사이야서 24:13; 제3니파이 29:3; 몰몬서 8:15; 교리와 성약 133:26~34 참조.
5. 레위 지파는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장을 제공했으며, 한 지파로 헤어지거나 지파의 상속을 받게 되어 있지 않았다.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땅의 상속이 주어졌다. 그들은 아버지 요셉 대신에 두 지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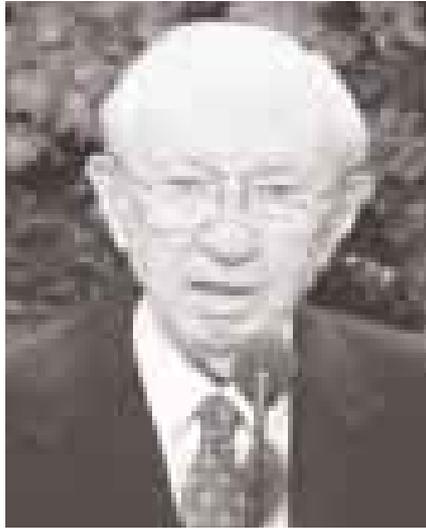
- 헤어려졌다. 열두 지파의 수는 이렇게 유지되었다.
6. 레위기 26:33; 또한 예레미야서 9:16 참조.
  7. 창세기 22:16~18; 제3니파이 20~22; 아브라함서 2:10~11 참조.
  8. 이사야 18:2, 7.
  9. 레위기 26:44; 신명기 4:27~31; 28; 29; 30:2~5; 느헤미야 1:9; 이사야 11:11~12; 예레미야 31:7~8, 10~12; 에스겔 37:21~22; 아모스 9:14~15; 마태복음 24:31; 야곱서 6:2 참조. 또한 러셀 엠 넬슨, “반복된 출애굽”, *리아호나*, 2002년 4월호, 30~37쪽.
  10. 누가복음 10: 1, 17; 에베소서 4:11; 신약개조 제6조 참조.
  11. 마태복음 28:19~20; 마가복음 16:15 참조.

12. 데살로니가후서 2:3. "배교하는 일"은 "배도"를 의미하는 희랍어 *apostasia*에서 번역된 것이다.
13. 교리와 성약 128:18; 132:45 참조.
14. 이사야 27:6 참조.
15. 니파이전서 15:18 참조; 또한 물문경 표제지, 단락 2 참조.
16. 교리와 성약 133:17 참조.
17. 제3니파이 21:1.
18. 창세기 12:2~3; 26:3~4; 35:11~12; 제3니파이 21, 29의 각 장 머리말 참조.
19. 이스라엘 집의 분산과 집합에 관련되는 교리는 물문경에서 가르쳐진 가장 초기의 교훈들 가운데 속한다: "이스라엘 집이 흩어지고 난 후, 그들은 다시 함께 모이게 될 것이라... 갈라나무의 원가자들 즉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들이 그들의 주이시며 그들의 구속주이신 참 메시아에게로 접목될 것이나" (니파이전서 10:14)
20. 브루스 알 맥콩키, *A New Witness for the Articles of Faith* (1985), 554쪽 참조.
21. 아브라함은 경전의 506 구절에서 언급되고 있다. 성경에 216 구절, 회복의 경전에 290 구절이 있다.
22. 또한 입양에 의해 성약을 받아들일 수 있다. (마태복음 3:9; 누가복음 3:8; 갈라디아서 3:26~29; 4:5~7; 아브라함서 2:9~10 참조)
23. 교리와 성약 124:58; 132:31~32 참조.
24. 교리와 성약 84:33~40; 132:19; 아브라함서 2:11 참조.
25. 사도행전 3:19, 21.
26. 교리와 성약 27:13. 바울은 또한 우리 시대에 관해 예언했다.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주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10)
27. 교리와 성약 27:6.
28.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속의 땅으로 맨 처음 인도한 모세가 회복된 교회에 이스라엘의 집합의 열쇠를 맡기는 사람이 된 것은 적절한 것이다. 모세는 변형 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에게 왔고 거기서 그들에게 그 시대에 예전과 동일한 신권 열쇠를 부여했다. 1840년 4월 교회의 대회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을 유대인과 흩어진 이스라엘의 귀환을 위한 땅으로 헌납하기 위해 울슨 하이드를 지명했다. 1841년 10월 24일 일요일, 하이드 장로는 감람 산에서 무릎을 꿇고 옛날의 상속지로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집합을 위해 그 땅을 헌납했다.
29. 교리와 성약 110:11~12.
30. 교리와 성약 110:14~15.
31. 모세, 일라이아스, 그리고 엘리야가 유월절이 시작되는 부활절 일요일에 왔다는 사실에 의미가 있다.
32. 말라기 4:5~6 참조.
33. 교리와 성약 110:16 참조.
34. 야곱서 1:7; 오나이어서 1:26; 모로나이어서 10:30, 32; 교리와 성약 20:59.
35. 교리와 성약 137:6~8 참조.
36. 고린도전서 15:29; 베드로전서 4:6 참조.
37. 마태복음 10:6; 15:24.
38. 예레미야 16:16 참조.
39. 제3니파이 20:13.
40. 교리와 성약 6:6; 11:6; 12:6; 14:6 참조.
41. 니파이후서 9:2.
42. 브루스 알 맥콩키, 대회 보고, 멕시코 시티, 멕시코 지역 대회, 1972년 45쪽.
43. 교리와 성약 97:21.
44. 니파이후서 9:2; 10:7~9; 25:16~17, 20; 제3니파이 21:22~28; 교리와 성약 29:7~8 참조.

# 산을 옮기는 신앙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증가된 신앙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업은 침체될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그 누구도 발전을 막을 수 없습니다.



**형** 제자매 여러분, 먼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회장은 온전히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사명은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저는 꽤 나이가 들었습니다. 지난 6월에 96회 생일을 맞았습니다. 제 건강에 대한 추측이 많다는 것을 여기지서 들어 알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제가 몇 개월만 더 산다면 이전의 어떤 교회 회장들보다 더 많은 나이까지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자랑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지난 1월 저는 중요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특히 입원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던 저 같은 사람에게는 참으로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수술 후에는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치료를 받기로 결

정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결과가 기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를 위해 여러분이 드린 많은 기도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는 제가 더 살도록 허락하셨고, 그것이 얼마나 오래갈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가 되든 저는 제게 주어진 일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크고 복잡한 교회를 감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일회장단은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도, 어떠한 지출도 제일회장단의 승인이 없이는 집행될 수 없습니다. 그 책임감과 스트레스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수행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4월에 말씀했듯이 우리는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고 건강도 대체로 좋습니다. 그러나 후임자를 위한 때가 되면 그 절치는 교회의 주인이신 주의 뜻에 따라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바로 이 신앙이 제가 오늘 아침 말씀 드리고 싶은 주제입니다.

처음부터 이 교회는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선지자 조셉의 힘은 신앙이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도록 그를 숲으로 이끌어준 그 신앙에 감사 드립니다. 물문경을 번역하고 출판하게 한 그의 신앙에 감사 드립니다. 그가 기도로 주께 나아갔을 때 그 응답으로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 드립니다. 그가 신앙으로 교회를 조직하고 올바른 궤도 위에 놓았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업의 참됨에 대한 간증으로서 자신의 삶을

선물로 바친 조셉 스미스에게 감사합니다.

신앙은 또한 브리검 영의 뒤에서 그를 움직인 힘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 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정착시키는 데 그가 행사한 엄청난 신앙에 대해 종종 생각합니다. 그는 이 지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현으로 본 것 외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는 그나마 접할 수 있었던 약간의 정보를 찾아보았겠지만 토양과 물, 기후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처음 그곳을 보았을 때 그는 주저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계속 전진하십시오.” (B. H. Roberts, *A Comprehensive History of the Church*, 3:224)

교회의 다른 모든 회장들도 이리했습니다. 엄청난 반대에 직면해서도 그들은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메뚜기가 농작물을 다 망쳐놓을 때도, 가뭄이나 때늦은 서리가 닥쳐왔을 때도, 연방 정부로부터 박해가 있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더욱 최근에는 많은 곳에, 쓰나미나 지진, 홍수 피해자들에게 인도주의적인 도움을 긴급히 전해야 할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구호 물품 선반은 비게 되었고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현금이 교회 회원 여부를 가리지 않고 궁핍한 사람에게 보내졌습니다. 이 모두가 신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올해는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올해는 윌리엄 및 마틴 손수레 부대, 그리고 그들과 같이 온 헨트 및 호짓 마차 부대가 도착한 지 150년 되는 해입니다.

이 개척자들에 대해 많은 기록이 있으므로, 제가 상세히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영국을 떠나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긴 여행을 떠난 사람들은 신앙으로 그들의 여행을 시작했다고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을지 아는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진했습니다. 그들은 큰 기대를 갖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기대는 서부로 이동하면서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그들이 플랫폼



강을 따라가다가, 스위트워터 계곡을 따라 올라가는 지루한 여행을 시작했을 때 죽음의 차가운 손이 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음식은 배급을 받았고 소들은 죽었습니다. 마차는 고장 나고 의복이나 잠자리도 부족했습니다. 폭풍이 일었고 그들은 쉼 곳을 원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폭풍은 그들을 강타했습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굶어 죽었습니다. 수십 명이 죽어 얼어붙은 땅에 묻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영국에서 온 프랭클린 디 리차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말이 끄는 가벼운 마차가 있어서 훨씬 빠르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솔트레이크 계곡에 당도했습니다. 바로 이맘때였습니다. 연차 대

회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브리검 영은 즉시 회중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리고 대회 동안에 말씀을 드릴 장로들의 주제와 제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856년 10월 5일 오늘, 많은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손수레를 밀며 평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1,10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와야 하며,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말씀 주제는 그들을 이곳에 데려오라!입니다. 말씀 주제는 초원에 있는 사람들이며, 이 공동체의 주요 주제는 겨울이 오기 전에 구조대를 보내어 그들을 데려오는 것임을 연사들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니다. ...

“저는 오늘 감독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이나 그 다음 날까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60 마리의 좋은 노새와 12~15대의 마차를 준비해 주십시오. 황소를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좋은 말과 노새를 원합니다. 그것들이 이 지역에 있으며 우리는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11톤의 밀가루와 40명의 숙련된 마부, ... 그리고 마구를 채운 60 혹은 65마리의 노새나 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 드립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로 그 원리들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과 종교와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서 여러분 중 한 사람도 결코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서 지금 평원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십시오. 우리가 현세적 혹은 현세적 의무라고 부르는 것들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헛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 또한 여러분께 헛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씀 드린 것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옥으로 가라 앉게 될 것입니다.”

(Deseret News, 1856년 10월 15일, 252)

즉시 말과 노새와 튼튼한 마차가 준비되었

습니다. 밀가루도 충분히 준비 되었습니다. 따뜻한 옷과 침구도 재빨리 모아졌습니다. 하루 이틀 내에, 짐을 실은 마차가 눈보라를 헤치고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몹시 지친 성도들에게 도달했을 때, 그들은 하늘에서 온 천사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수레 부대 사람들은 솔트레이크 지역으로 더 빨리 여행할 수 있도록 마차로 옮겨 탔습니다.

약 200명 정도가 죽었지만 1,000명이 구조되었습니다.

제 아내의 증조 할머니는 평원에서 그런 가혹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헛트 마차 부대의 일원이었습니다.

현재 솔트레이크시티 공동묘지에 있는 제 아내의 묘소는 1856년 12월 11일 이 계곡에 들어오면서 자신의 딸의 팔에 안긴 채 돌아가신 제 아내의 증조 할머니, 매리 펜폴드 고블의 묘소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신 다음날 안장되었습니다. 그분은 그 긴 여행 동안 세 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한 딸의 발은 심한 동상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고난과 굶주림,

추위와 죽음으로 가득 찬 이야기입니다. 걸어서 건너야 하는 얼어붙은 강, 울부짖는 눈보라, 록키 산맥 산등성이를 타야 하는 길고 느린 여정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기념의 해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대부분 잊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미래의 세대들에게 앞서 갔던 사람들의 고난과 신앙에 대해 상기시켜 주기 위해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우리의 유산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우리가 누리는 편안함에 대해 그들이 치른 대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신앙은 손수레 개척자의 여정과 같이 큰 영웅적 사건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작지만 뜻 깊은 일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런 일 가운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20년 전 유타의 맨타이 성전이 건축 중일 때, 조지 팍스만은 마무리 작업 목수로 일했습니다. 그와 젊은 아내 마르타에게는 아이가 한 명 있었고 한 명이 더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성전의 무거운 동쪽 문 중 하나를 매다는 동안에 조지에게 교액성 탈장이 일어났습니다. 그에게는 극심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마르타는 마차에 그를 누이고 니피아라는 마을로 데려가, 그곳에서 그를 기차에 태워 프로보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조지는 죽었습니다. 마르타는 재혼을 거부하고 62년 동안 바느질로 생계를 유지하며 미망인으로 남았습니다.

잠깐 이 이야기에서 벗어나 말씀 드리자면, 저는 제 아내와 약혼할 때 아내에게 반지 하나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는 굵은 결혼 반지를 주었습니다. 아내는 오랫동안 그것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 아내는 그 반지를 빼고 이 작은 결혼 금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할머니 것이었습니다. 그 반지는 그분의 남편 조지가 아내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그 반지는 그가 이 생애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어느 봄 날 마르타는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 대청소를 하기 위해 가구를 다 밖에 내놓았습니다. 매트리스에서 나온 지푸라기를 털다가 내려다

# 방어진과 피난처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우리는 교회를 피난처요, 방어진이라 말합니다. 교회에는 안전과 보호가 있습니다.

보니 반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녀는 살살이 찾아보았습니다. 그 반지는 그녀의 사랑하는 남편을 기억나게 해주는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지푸라기를 손가락으로 살살이 살펴보았지만 반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마르타는 무릎을 꿇고 주께서 반지를 찾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녀가 눈을 뜨고 내려다 보니, 반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그 반지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너무 작아 여러분 모두가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반지는 18금이며 오래되고 흠집이 나고 구부러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극한 상황에서 주께 간청한 한 미망인의 신앙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신앙은 행동의 근원입니다. 이것은 희망과 신뢰의 뿌리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단순한 신앙입니다.

이 위대한 대의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증가된 신앙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업은 침체될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그 누구도 발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구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20)

엘마는 아들 힐라맨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전파하라. 그들을 가르쳐 스스로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게 하라. 그들을 가르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신앙으로, 악마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게 하라.” (엘마서 37:33)

주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위대한 대의를 믿는 신앙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그 빛으로 밤중에 우리를 이끄는 촛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이 낮에는 구름처럼 여러분 앞에서 인도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겸손히, 우리 신앙의 힘이 되시는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하고 거룩한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솔** 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한 셋째 날 인(둘째 날은 안식일이었음) 1847년 7월 26일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 및 다른 몇 사람과 함께, 브리검 영은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약 2.5 킬로미터 떨어진 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이 열국을 위한 기를 세우기에 좋은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히버 시 김불은 노란 색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윌라드 리차즈의 지팡이에 묶어 열국을 위한 기로서 높이 흔들었습니다. 브리검 영은 그 정상을 Ensign Peak (엔사인 피크)라 명명했습니다.<sup>1</sup>

그런 후 그들은 낮은 마차와 3,200킬로미터를 짊어지고 온 물건들, 그리고 여행에 지친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준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신권이 하늘의 천사들에 의해 그들에게 전해졌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온 인류를 위한 영원한 구원과 승영의 기회를 주는 계명과 성약을 그들이 갖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성신의 영감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곧 다가올 겨울에 대비하여 채소밭을 경작하고, 집을 지으면서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집합 장소로 그들과 합류하기 위해 여행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일찍이 9년 전에 기록된 한 계시에는 그들이 이렇게 하도록 지시되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네 빛이 열국을 위한 기가 되게 하라.”

“또 시온의 땅에 그리고 그 스테이크들에 집합하는 것이, 진노가 온 땅에, 섞인 것이 없이 쏟아져 내릴 때 폭풍우를 피하고 진노를 피할 방어진이 되며 피난처가 되게 하라.” (교리와 성약 115: 5~6)

그들은 “빛” 곧 “표준”이 되어야 했습니다.

계시에 의해 세워진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리를 통해 경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복음 생활의 원리들은 교리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표준들은 그 원리들과 일치합니다. 신권 권세의 열쇠를 받은 사람들에게 의해 복음의 의식이 집행될 때, 우리는 성약에 따라 표준을 지켜야 합니다.

그 충실했던 형제들과 또한 우리도 자유로



이 그러한 표준들을 변경하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표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단지 표준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해결책이나 위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표준이 중요함을 압니다. 이는 온 인류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르침을 받았기” (니파이후서 2:5)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하거나 실족할 수도 있지만, 항상 회개와 용서라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모든 부도덕한 것을 피하도록 도덕적인 표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의 필멸의 몸에 내재된 소중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sup>2</sup> 우리는 결혼 관계에 온전히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일조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의 책임을 완수합니다. 우리는 성약을 새로이 하고, 빵과 물에 대한 그 간단하고도 신성한 기도문들을 통해 약속을 맺고자 매주 성찬식을 위해 모입니다. 우리는 신권을

존중하고 성약과 의식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엔사인 피크에 있었던 형제들은 평범한 삶을 살며 그들의 얼굴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녀야 함을 알았습니다. (앨마서 5:14 참조)

그들은 스테이크가 방어진과 피난처가 되어야 함을 이해했으나, 그 당시 지상에는 스테이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명이 지상의 모든 나라에 시온의 스테이크를 세우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자신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종류의 진노나 폭풍우가 쏟아져 내릴지 궁금해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맹렬한 반대, 폭력, 테러 행위를 견뎌냈습니다. 그들의 집은 불탔으며, 재산은 강탈당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계속하여 그들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그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반대에는 끝이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성질은 변하지만, 그것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초기 성도들이 직면했던 시련의 유형도 끝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련들은 그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분명히 그들이 경험한 것보다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시온의 스테이크는 수 천 개에 이르러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회원은 수백만 명이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 중 어느 것도 지연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회원들은 160개국에 살며 200개 이상의 언어로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가올 일들에 대해 말없이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면과 영적인 면에서 볼 때 두려움은 더 짙어집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복음의 단순한 원리에 따라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살며,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의 신권과 다른 의무에 책임을 다한다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육체적인 건강과 계시의 열쇠입니다. [해로운] 차, 커피, 술, 담배, 그리고 마약을 피하십시오.

우리는 겸소하든 풍부하든 생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 희망하는 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전능하신 분이 개입하시고

용납하신다는 확신과, 영적인 인도가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할 자유가 있습니다.

각 스테이크는 방어진이요, 피난처요, 표준입니다. 스테이크는 그 영향권내에 들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구원과 승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성전도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반대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역사에 대한 그릇된 설명과 오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악의적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복음에 확실히 상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끔 성직자들, 심지어 종교 단체마저 우리를 반대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비판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며, 계속 반복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가장 어이없는 것 중 하나는 몰몬들에게 뿔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오리건에 있는 어느 대학의 심포지움에 참석했습니다. 천주교의 주교, 유대교의 랍비, 감독 교회의 성직자, 복음주의 성직자, 유일신교 성직자, 그리고 저였습니다.

그 대학의 확장인 베넷 박사가 아침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제게 아내 중 누구를 데려왔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선택권밖에 없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무안을 주려고 저를 선택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천주교 주교에게 아내를 데리고 왔는지 물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베넷 박사가 제게 한 질문이었습니다. “몰몬들에게 뿔이 달려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보이지 않도록 머리를 빗죠.”

완전히 대머리였던 베넷 박사는 그의 머리 위에 양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오! 당신은 나를 결코 몰몬으로 만들 수 없겠네요!”

무엇보다 가장 이상한 것은 지성 있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대해 거의 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음으로써 자신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은 참된 원리입니다.

혹자는 우리의 높은 표준이 성장을 막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반대입니다. 높은 표준은 하나의 자석입니다. 우리는 모두 진리와 선에 끌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사악함으로 세상을 어둡게 하는 구름이 덮인 세상에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회원 중 어떤 사람들은 확신이 없어서 가끔 방황합니다. 인간이 이 모든 사악함에서 도망칠 곳은 있습니까? 피난처를 찾을 수 있는 안전한 마을, 군, 또는 나라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방어진과 피난처는 지금 우리 회원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몰몬경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참으로 또한 그때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이 시작되어, 모든 나라 가운데서 그의 백성이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 모일 길을 예비하시리라.” (제3니파이 21:28)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와, 계명을 지키고, 신권을 존중하며, 활동적이 되는 사람들은 이미 피난처를 발견한 것입니다.

몇 주 전 우리가 가진 모임들 중 한 모임에서, 칠십인 정원회의 7명의 회장 중 한 분인 로버트 시 옥스 장로님(은퇴한 중앙 유럽 나토 공군의 4성 장군이자 사령관)은 우리에게 제2차 세계 대전을 종식시킨, 1945년 9월 2일 동경 만에 정박한 미주리 전투함 위에서 10개국이 서명한 조약에 대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중 몇 명은 그 당시 아시아에 있었습니다. 옥스 장로님(장군)이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오늘날, 우리가 관여되어 있는 테러나 사악함에 대한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그러한 회의가 소집되거나 비슷한 조약이 서명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리라 것은 상상조차 안됩니다. 이것은 그런 종류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이 결코 끝나지 않을 세상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시에서 예언된 대립의 전쟁은 오늘날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은 신앙의 반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의 활동이 가족에 중심을 두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은 자녀들이 “여호와와 기업”(시편 127:3)으로 환영 받고 소중히 여겨지는 가족을 만들어야 합니다. 합당한 후기 성도 가족은 세상의 표준 곧 본보기입니다.

우리는 가장 높은 표준을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표준이요, 방어진이요, 피난처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16; 또한 제3니파이 12:16 참조)

과거 세대들의 모든 투쟁과 노력이 이 시대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과 성역을 배울 수 있는 권세, 그리고 성역을 성취할 수 있는 수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성취되어 지구가 주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될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그것은 모두 함께 어우러집니다.

우리는 윌라드 리차즈의 지팡이에 묶인 노란색 스카프를 풀고 엔사인 피크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사업에 속해 있습니다. 높이 흔들었던 그 스카프는 고대와 현대의 경전에서 예언되었던 위대한 집합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피난처요, 방어진이라 말합니다. 교회에는 안전과 보호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후기 성도들은 온 인류에 대한 구주의 구속의 권능을 알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보는 법을 배웁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경전에서 배우는 복음의 원리들은 우리 각자와 가족을 위한 안내자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후손들의 가정이 계시에서 말한 피난처임을 알고 있습니다. 즉, “빛” 곧 “표준”이요, 열국을 위한 “기”요, 몰려오는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입니다. (교리와 성약 115:5~6; 이사야 11:12; 니파이 후서 21:12 참조)

우리 모두가 모여야 하는 그 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이고 우리는 그

분의 이름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는 그분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앞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생애 동안 많은 사건을 보아 왔으며 우리의 용기를 필요로 하며 우리의 신앙을 강화해야 할 사건이 아직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12)

교회의 역사를 기꺼이 수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16)

우리는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의 구주요, 피난처요, 구속주이신 그분에 대해 가르치십시오.

남아 빠진 노란색 스카프가 세상을 위한 기가 되기에 충분하다면, 온 세상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 복음대로 살아가는 보통 가정의 신권을 가진 보통 남자, 보통 여자, 그리고 보통

자녀들은 이 지구에 어떤 것들이 쏟아져 내린다 하더라도 그것들에 대항할 수 있는 표준, 방어진 그리고 피난처로써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또 우리는 우리의 예언에 따라 기록하노니,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 (니파이 후서 25:26)

이 교회는 번성할 것이며, 또한 승리할 것입니다. 저는 이를 전적으로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주

1. Journal of Wilford Woodruff, 1847년 7월 26일, 역사부 기록 보관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참조; 또한 B. H. Roberts, *A Comprehensive History of the Church*, 3권 270~271쪽 참조.
2.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야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우리를 강화시켜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힘을 통해 여러분과 저는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을 피하고 그것을 이겨내도록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제가 중요한 복음 원리에 대해 이야기는 동안 성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신권 지도자로서 제가 가장 즐기는 활동 중 하나는 교회 회원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저활동”이라고 일컬어지는 회원들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한 몇 년 동안 저는 종종 감독님들 중 한 분께 연락하여 우리가 함께 방문할 수 있는 개인이나 가정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해 주시도록 부탁하곤 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감독님과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영감을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와 우리가 만나게 될 회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방문 목적은 극히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집안으로 맞이해 준 데 대하여 사랑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고 싶어했으며, 그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과 그들에게 회복된 복음이 주는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고 조금 있다가 저는 종종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축복들과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방문을 수백 번이나 했습니다. 개인마다 그리고 각각의 가족과 가정마다 대답은 모두 달랐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제 질문에 대한 수많은 답변들 속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자주 듣는 대답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주일학교에서 어떤 남자가 제게 기분 나쁜 말을 한 이후로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지부에서는 저에게 인사를 하거나 손을 내미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외톨

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지부의 불친절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감독님이 제게 권고한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감독으로 봉사하는 한 저는 다시는 교회 건물 안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것입니다.”

성인 회원들 간의 교리에 대한 견해 차이라든가,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놀림, 괴롭힘, 따돌림 등 기타 마음이 상하게 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주제는 “무엇 때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감독님과 저는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두 사람 중 하나는 개종과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에 대하여 물어보곤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이 훌륭한 분들은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성신의 증거를 떠올렸고, 예전의 영적 경험들을 말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대부분의 “저활동” 회원들은 회복된 복음의 참됨에 대한 따뜻한 간증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시에 교회 활동이나 모임에 참석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형제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누군가가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형제님은 그 동안 성찬 의식이 주는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형제님은 스스로 성신과 항상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교회에서 누군가가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형제님은 신권 의식과 거룩한 성전으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켰습니다. 형제님은 타인에게 봉사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중단시켰습니다. 형제님은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 그리고 그 이후에 올 세대들의 영적 성장을 방해할 장벽을 놓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잠시 생각해 본 후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감독님과 저는 다음과 같은 권유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우리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더 이상 마음 상해 있지



말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형제님을 필요로 함은 물론이고 형제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전해 주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제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 마음 상해하지 않기로 선택하십시오

마음이 상했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할 경우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모욕을 당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우리가 마음 상할 수 있는 눈치 없고, 난처하게 하고, 지조 없고, 야비한 일들이 분명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나 저를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마음 상하게 했다고 믿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마음

이 상한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그 무엇에 의해 우리에게 가해지거나 강요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위대한 것들 가운데는 행하는 것과 행함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니파이 후서 2:13~14 참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들은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즉 도덕적 선택의지라는 선물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선택의지가 주어졌기 때문

에 여러분과 저는 행하는 자이며, 우리는 본래 행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이 우리를 마음 상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비통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선택의지를 감소시키는 것이며 우리를 행함을 받는 대상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함의 주체로서 여러분과 저는 마음 상하게 하거나 상처를 입히는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를 선택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초대 회장이었던 토머스 비 마쉬는 우유의 부유 크림 같은 사소한 문제로 마음 상해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Deseret News*, 1856년 4월 16일, 44쪽 참조) 반면에 브리검 영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로부터 공개적으로 심하게 질책을

받았으나 마음 상해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Truman G. Madsen, Hugh B. Brown—Youthful Veteran, *New Era*, 1976년 4월 호, 16참조)

많은 경우, 마음 상해하기를 선택한다는 것은 훨씬 깊고 심각한 영적인 질병의 징후입니다. 토머스 비 마쉬는 자신이 행함을 당하도록 하였고 결국 그 결과는 배도와 비참함이었습니다. 브리검 영은 행동의 주체로서 자신의 선택 의지를 행사하였고 올바른 원칙에 따라 행동하여 그는 주님의 손에 들린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구주는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본보기입니다.

“또 세상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나 그는 이를 참으시며, 그들이 그를 치나 그는 이를 참으시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그에게 침을 뱉으나, 사람의 자녀들을 향한 그의 사랑의 친절과 그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를 참으시느니라.” (니파이전서 19:9)

우리를 강화시켜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힘을 통해 여러분과 저는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을 피하고 그것을 이겨 내도록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19:165)

### 후일의 배움터

마음 상하는 것을 정복하는 능력은 우리의 손이 닿는 범위 너머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브리검 영 같은 교회의 저명한 지도자들에게만 주어지도록 제한되거나 예비된 것이 아닙니다. 구속주의 속죄의 본질과 회복된 교회의 목적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영적인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주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에베소서 4:12~13)

능동적인 의미의 동사 “온전케 하다”라는 말을 사용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이 말씀한 것처럼 교회는 이미 “온전한 사람들을 위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휴양소”가 아닙니다.(“A Brother Offended,” *Ensign*, 1982년 5월호, 38쪽) 그보다는 교회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지속적인 과정 속에서 서로에게 행함으로써 우리가 경험을 얻는 배움터이자 실습실입니다.

맥스웰 장로님은 회복된 교회로 알려져 있는 이 후일의 배움터에서 교회 회원들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인 “연구 대상”은 바로 회원들이라는 통찰력 있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Jesus the Perfect Mentor,” *Ensign*, 2001년 2월호, 8쪽 참조) 방문 교사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 봉사하고 이들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의무를 배우게 됩니다. 경험 없는 교사는 공부에 집중하는 학생과 산만한 학생 모두를 가르침으로써 귀중한 교훈을 얻고 더 훌륭한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 감독이 된 사람은 영의 계시를 통해 그리고 그의 인간적인 단점들을 알면서도 온 마음을 다해 지지하는 와드 회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감독이 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가 배움터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불가피한 현실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떤 식으로든 또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 교회내의 누군가는 마음 상하게 할 만한 행동이나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우리 각자 모두에게 분명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으로 끝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해치거나 마음 상하게 할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거나 분별 없는 언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의도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도덕적 선택의지가 부여된 행동의 주체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마음 상해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태로운 전쟁 기간 중에 니파이인들의 군대 총대장이었던 모로나이와 대판사이자 그 땅의 최고 통치자였던 페이호랜 사이에 서신 교환이 있었습니다. 정부측의 적절한 지원이 없어 자신의 군대가 고난을 겪고 있던 중에 모로나이는 “책망하기 위한 방편으로”(앨마서 60:2) 페이호랜에게 편지를 써 보내 그의 사려 없음과 나태와 태만을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페이호랜은 모로나이와 그의 편지에 대해 쉽게 분개할 수 있었겠지만 마음 상해 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페이호랜은 온정 어린 답장을 보내 모로나이가 모르고 있었던 정부에 대한 모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라, 모로나이여, 내가 그대에게 이르노니, 나는 그대의 큰 고난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참으로 그대의 고난은 나의 영혼을 비통하게 하는도다. ... 또 이제 그대의 편지에서 그대는 나를 비난하였으나, 내가 이를 패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노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대의 고결한 마음을 기뻐하노라.”(앨마서 61:2, 9)

우리 자신의 영적 성숙도는 다른 사람의 약점, 미숙함, 마음을 상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들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 또는 표현이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마음 상

해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할 수 있고 페이호랜과 같이 “패념치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두 가지 권유

저는 두 가지 권유로 제 말씀을 끝맺고자 합니다.

### 첫 번째 권유

저는 마음 상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행과 일들에 관한 구주의 가르침에 대하여 배우고 이를 적용하도록 권유합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 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태복음 5:43~44, 46~48)

흥미로운 점은 “그러므로 너희도 온전하라”는 권고의 말씀 바로 전에 잘못된 행위와 무례함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나와 있다는 점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들을 온전함으로 이끄는 엄격한 요건들 중에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만

일 어떤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음 상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우리의 첫 번째 의무는 마음 상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며 그 다음,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직접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은 성신으로부터 영감을 얻게 해주며 오해가 풀리게 해주고 진정한 의도가 제대로 이해되도록 해줍니다.

### 두 번째 권유

마음 상해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 이 말씀을 가장 들을 필요가 있는 많은 개인이나 가족들이 아마 오늘 연차 대회에 우리와 함께 참석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 대부분이 마음 상해하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현재 교회를 떠나 있으나, 교회로 돌아옴으로써 축복을 받게 될 회원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찾아가서 다시 한 번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초대할 사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의 사본을 그분들께 전달해 줄 수도 있을 것이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원리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다시 나오라는 요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부드럽게 전달해야 하며, 독선적인 우월감이나 교만한 마음으로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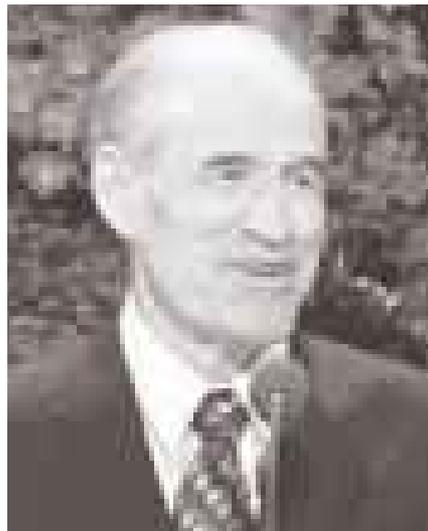
우리가 구주에 대한 신앙으로 이 권유에 응한다면 문이 열릴 것이고 우리의 입은 해야 할 말로 가득 찰 것이며, 성신은 영원한 진리를 증거해 줄 것이며 간증의 불이 다시 불붙을 것이라는 점을 간증드리며 약속드립니다.

그분의 종으로서, 저는 주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요한 복음 16:1)라고 선언하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전해 드립니다. 저는 살아 계신 구주는 실재하시며 거룩하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우리가 마음 상하는 것을 피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영으로 받음

에이 로저 메릴 형제  
본부 주일학교 회장

우리가 ... 영을 구하고 받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우리의 주의를 끌고 있는 교사나 연사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영에게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젊은 선교사로서 텍사스 주, 보몬트에서 봉사하고 있던 어느 날 아침, 제 동반자가 아파서 쉬어야 했습니다. 저희 선교부 회장님이 그럴 경우를 대비해 주신 권고에 따라, 저는 우리의 4층 아파트에 있는 열린 창문 옆에 의자를 놓고 물문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 경전에 몰입되었으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저는 엘마서 29장의 1장과 2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 내가 천사라면, 그리하여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팔로, 땅을 흔들 음성으로 말하여, 모든 백성에게 회개를 외칠 수 있다면,

“참으로 내가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각 영혼에게 회개와 구속의 계획을 선포하여, 그들

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여, 온 지면 위에 슬픔이 더 이상 있지 않게 하였으면 좋겠노라.”(엘마서 29:1~2)

엘마의 말씀을 깊이 생각함에 따라, 그 말씀들이 아주 개인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동반자와 저는 이미 보몬트에 있는 수백 개의 대문을 두드리고, 우리의 메시지를 나누었지만,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음의 눈으로 제가 천사가 되어 땅을 흔들 목소리로 회개를 외칠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 사람들이 거리를 오고 가는 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만약 그곳에 천사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손을 들고 서서,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했습니다. 또한 건물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땅에 쓰러지는 모습을 그려 보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에게 제의 말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소망이 갑자기 생길지도 모른다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후에 저는 다음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는 사람이요, 내 소원 중에 죄를 범하니, 이는 주께서 나에게 배정해 주신 것들로 내가 마땅히 만족해야만 함이라.”(3절)

저는 주님께서 그분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사업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해졌습니다. 저의 의무는 자신이 맡은 역할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실도 깨닫고 겸손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읽었던 것이 허구가 아니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읽는 동안 저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가운데, 문자 그대로 빛으로 가득 찼으며, 엘마가 실존 인물로서 살았으며, 그 역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간절히 원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순간 저에게 “당신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까?”라고 질문했다면, 저는 이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물론이지요!” 그때, 제가 몰몬경이 참되다는 영적인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저에게 명백한 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때의 경험과, 그 이후 유사한 여러 증거들에 대해 돌아볼 때, 저는 영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영으로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초점은 적절하게 맞춥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비록 더는 아니더라도 영으로 받는 것을 영으로 가르치는 것만큼 중요시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 50:17~22 참조)

영으로 받는 것은 복음의 기초적인 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 회원들을 확인할 때 행하는 의식에서 분명히 설명됩니다. 이 의식에서 우리는 “성신을 받으시라”라는 지시를 받

습니다. 이는 직접 행동하여 이 위대한 은사를 받아들이라는 공식적인 제안인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원리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게 되자, 저는 경전이 받는 것에 대한 교리로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의 말씀처럼 말합니다. “경전에 있는 어떠한 메시지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는 말보다 더 자주, 더 다양한 표현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in Conference Report, 1991년 20월호, 26쪽; 또는 *Ensign*, 1991년 11월호, 21쪽).

우리가 겪는 현세의 시험이 주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 (요한복음 1:11~12)

사람들은 우리가 받지 않고 있는 은사나 축복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궁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어떤 사람에게 선물이 주어졌으나 그가 그 선물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보라,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선물을 주는 자를 기뻐하지도 아니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88:33)

교회 모임에서, 개인 및 가족 경전 공부에서, 심지어 주님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도, 우리 중의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받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진정으로 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적어도 세 가지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구합니다. 우리는 유흥과 방관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 제가 있사오니, 이제 저에게 영감을 주십시오.”라는 자세로 연차 대회나 교회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수동적이 됩니다.

우리가 그 대신 영을 구하고 받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우리의 의의를 끌고 있는 교사나 연사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영에게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받는다”라는 단어는 동사입니다. 그것은 행동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기초적인 표현입니다.

#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감

크레이그 에이 카든 장로  
칠십인 정원회

신권은 영의 영향에 의해 성임과 의식 그리고 개인적인 성품의 순화를 통해 개개인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해 줍니다.



몇 년 전 우리 가족은 동쪽으로 여러 산들이 보이는, 지역 사회 개발 구역의 끝 자락에 위치한 한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일하러 가기 위해 옷을 입고 급히 문을 나서려고 했을 때, 여섯 살 된 아들 크레이그가 네 살 된 남동생, 앤디의 손을 붙잡고 제 방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크레이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어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에게 만일 여러분이 신권을 소유한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앤디에게 이것을 말했는데 얘가 제 말을 믿지 않아요. 아빠는 신권을 가지고 있죠, 맞죠, 아빠?” 그 다

음 그는 어린 동생에게 돌아서서 창문을 가리키면서 저를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있는 산들이 보이죠? 아빠, 동생에게 한 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의 일은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아들들이 평생 익혀가야 할 신권에 대해 드디어 배우기 시작한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진실로 주님은 그분께서 신권을 부여하셨던 사람들에게 신앙에 의해 산이 옮겨지리라고 가르치셨고,<sup>1</sup> 그러한 것에 대해 기록된 예<sup>2</sup>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저는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처럼 되어 그분의 면전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신권의 교리적인 측면을 더 잘 이해하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모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전하는 것이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823년에 천사 모로나이는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났고 말라기서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전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보라, 나는 신자 엘리야의 손으로 너희에게 신권을 드러내리라...”<sup>3</sup> 이 경문의 시대에 신권에 대해 첫째로 기록된 이 인용문은 앞으로 10년 내에 펼쳐질 과정에 대한 전조였습니다.

1829년에, 침례 요한은 아론 신권<sup>4</sup>을 회복했고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베드로, 야고보,

두 번째, 받는 사람들은 느낍니다. 계시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올 때, 그것은 대부분 느낌으로 옵니다. 우리가 영적인 느낌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통 영을 깨달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 제가 저의 며느리들 중 한 명과 대화했을 때, 그녀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도 영의 느낌을 알아차리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같이 읽었을 때, 어떻게 느꼈니? 성신이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속삭이는 것 같니?”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질문입니다. 그것들은 받고자 하는 소망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영으로 받는 사람들은 행하려고 합니다. 선지자 모로나이는 물문경에 대한 간증을 얻으려면 우리가 “진정한 의도를 지니고” 구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모로나이서 10:4 참조) 영은 우리가 자신이 배운 것을 진심으로 행하려고 할 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선교사로 봉사한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 제 일지를 다시 읽어 볼 때, 저는, 비록 제가 물문경을 그 전에도 읽었지만, 제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몬트에서 그날 아침에 경험한 일도 달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미숙했던 만큼, 적어도 그때에 저는 진정으로 구하고 느끼려고 노력했으며 저의 의도는 제가 배운 것에 따라 신앙으로 행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한 증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각자에게 그런 증거들이 정기적으로 주어지리라는 것을 압니다.

물문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 회복되었으며, 우리는 진실로 현대의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아니라 항상, 우리가 더 잘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 우리가 은사와 “선물을 주는 자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요한에 의해 멜기세덱 신권<sup>5</sup>이 회복되었습니다.

1836년에, 모세와 일라이어스는 아브라함의 복음의 경륜의 시대와 이스라엘의 집합의 열쇠를 회복했습니다.<sup>6</sup> 그 후, 엘리야가 인봉의 열쇠를 회복했습니다. 그 다음 계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며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륜의 시대의 열쇠들이 너희 손에 맡겨지나니.”<sup>7</sup>

1841년에, 지상에 다시 회복된 모든 신권의 권세, 직분, 그리고 열쇠와 더불어 주님은 선지자에게 자신의 아들과 딸들이 자신의 면전에서 돌아가기 위해 준비되도록 신권 의식들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서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sup>8</sup>

그분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이 집이 ... 건축되게 하여 내가 그 안에서 나의 백성에게 나의 의식을 드러낼 수 있게 할지이다. 이는 ...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관한 것들을 ... 드러내려고 생각하고 있음이니라.”<sup>9</sup>

일찍이 커틀랜드에서, 주님은 선지자 조셉에게 약속된 축복들이 실현되는 조건들을 설명하시면서, 신권의 맹세와 성약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sup>10</sup> 나부에서는 이 생에서나 내세에서나, 그분의 충실한 자녀들 모두에게 주는 축복 안에서 신권의 영원한 영역과 권능<sup>11</sup>에 대한 이해력이 커졌습니다.<sup>12</sup> 신권은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지지만, 그분의 “백성들” 중 일부인 그분의 딸들에게도 신권 의식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모든”<sup>13</sup> 약속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그 의식들을 받으며 끝까지 신앙으로 견디는 남녀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 신권의 의식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sup>14</sup>

최고의 성전 의식은 영원한 가족 단위를 구성하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이 함께 인봉될 때만 가능합니다. 이 의식과 다른 모든 신권 의식들을 통해 지상의 가족들은 축복 받게 됩니다.<sup>15</sup> 이러한 인봉 의식은 주님의 목적에서 중심이 되므로 그분은 자신의 잘못 없이 현세에서 인봉 받지 못한 충실한 사람들은 이 축복을



앞으로 올 세상에서 받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sup>16</sup> 어떤 종교의 어떤 교리도 그분의 아들과 딸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동등한 사랑을 이보다 더 확실히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신권은 또한 우리의 성품까지도 바꿀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바와 같이, “이 신권으로 성임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됩니다.]”<sup>17</sup> 이와 같이 되는 것은 성임 및 의식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온전케 하는 과정, 즉 우리가 “성령의 이끄

심을 따르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려는 과정에서<sup>18</sup> “때가 지남에”<sup>19</sup>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멜기세덱 신권에 성임된다면, 그는 한 “반차”<sup>20</sup>를 따르게 되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 특별히 자신의 가족을 위한 봉사를 통해서 순화될 것이며 성신의 지속적인 동반으로 축복 받게 될 것입니다.<sup>21</sup>

주님은 신권 소유자들의 불의는 하늘의 권능이나 영향력을 그치게 하는 반면 의로움은

그것들을 강화시켜 준다고 가르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영혼을 심히 크게 만드”는 특성을 “실득 ... 오래 참음 ... 온화함 ... 온유함 ... 거짓 없는 사랑 ... 친절함, 그리고 순수한 지식”으로 규정하셨습니다.<sup>22</sup> 그런 다음 그분께서는 이러한 교훈적인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리고 신앙의 권속에 대하여 사랑이 네 가슴에 가득하게 하고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같이 네 영혼을 적시리라.”<sup>23</sup>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지도록 권유하신 후에 “그리고 신앙의 권속에 대하여”라는 구절을 추가하신 것은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구절에 “신앙의 권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이 추가되어 더 구체적으로 “바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권속”이란 뜻으로 이해될 때 나타나는 함축된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내에는 자기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형제, 자매와 부모보다도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향해 더 큰 사랑을 보여주는 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다툼을 야기시키면서 대외적으로는 거짓된 친절을 보일지 모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 다음 끊임없이 덕으로 장식되는, 즉 아름답고 신중한 생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죄를 혐오합니다.<sup>24</sup> 그것은 우리의 대화가 간교함 없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sup>25</sup>가 되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필연적인 불완전함에 개의치 않고 그들의 장점과 잠재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절은 증류하는 과정에 빗대어 아름답게 교훈을 줌으로써 끝맺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순화시키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리들이 적용되는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습도가 높은 방에 놓여진, 걸 보기에 똑같은 모양을 한, 두 개의 물잔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



정 시간이 지난 후, 확실치 않은 준비 과정 때문에 야기된 온도 차이로 두 개의 잔 중의 하나는 물잔 표면에서 물이 응축하기 시작하고, 반면 다른 잔은 물기 없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한 물잔에는 아무 변화가 없을 때, 다른 물잔에는<sup>26</sup> 습기가 강제하는 것 없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합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한, 특히 우리의 가족들을 향한 사랑인, 영혼을 심히 크게 만드는 특성과 덕으로 장식된 생각은 신권의 교리가 우리의 영혼을 증류 시킬 수 있게 우리의 영적인 온도를 조정합니다.

그러므로 신권은 영의 영향에 의해 성임과 의식 그리고 개인적인 성품의 순화를 통해 개인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과 같이 되고 그분의 면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즉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영화로운 일을 제공해 줍니다.<sup>29</sup>

저는 팔리 피 프랫이 편집한 시에 저의 기도를 실어 끝맺고자 합니다.

푸른 풀에 소리없이  
하늘에서 이슬 내릴 때

시들은 풀 소생하니  
귀하여라 그 섭리  
은혜로운 교훈주사  
하늘에서 축복 합소서  
당신 사랑 행하기에  
합당하게 합소서<sup>28</sup>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주

1. 마태복음 17:20 참조.
2. 이터서 12:30; 모세서 7:13; 또한 야곱서 4:6; 힐라랜서 10:9 참조.
3. 조셉 스미스-역사 1:38.
4. 교성 13편 참조.
5. 교성 18:9; 27:12 참조.
6. 교성 110:11~12.
7. 교성 110: 13~16.
8. 나무에 있는 상점의 윗방에서 있었던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에 의한 증거로서, 주님은 개인적인 계시와 영감이 함께 하는 가운데, 오늘날 그분의 모든 성전에서 계속 행하고 있듯이, 나무 성전에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성전 의식들을 계시하거나 또는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앞서 지상에 그 의식들을 회복하셨습니다. *교회 역사*, 제5권, 1~2쪽 참조.
9. 교성 124:40~41; 31~32, 34, 39 참조.
10. 교성 84:33~42.
11. 교성 128:8~9.
12. 교성 137:7~9. “성전과 가족 역사,”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2004년), 86쪽.
13. 교성 84:38.
14. 교성 84:20.
15. 아브라함서 2:11 참조.
16.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또는 딸들이 만일 그를 사랑하고 그에 대한 신앙을 가지며, 그의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충실하게 견디면 그들 중 어느 누구에게서도 허락되지 못할 축복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왔습니다.” 엠 러셀 벨라드, *우리의 평의회와 의논함: 교회와 가족내에서 봉사 하도록 배움* (1997년) 55쪽. “그러한 축복성전 인봉과 영원한 가족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모두 주님이 정하신 때에 이 세상이나 다음 세상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리차드 지 스코트, “의의 권세”, *성도의 빛*, 1999년 1월호, 81쪽.
17. 조셉 스미스 역 성경 히브리서 7:3; 또한, 모세서 1:6 참조.
18. 모세서 7:21.
19. 모사이아서 3:19.
20. 열마서 13:2, 16; 교성 107:3.
21. 교성 20:77, 79; 121:46.
22. 교성 121:41~42.
23. 교성 121:45.
24. 열마서 13:12 참조.
25. 마태복음 5:37.
26. 교성 121:46.
27. 모세서 1:39.
28. “푸른 풀에 소리 없이”, 찬송가 91장.

#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됨

돈 알 클라크 장로  
칠십인 정원희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기 위해 건강이 좋아야 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돕도록 권유 받아야 한다거나 교회 부름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친할아버지, 앨마 벤제민 라슨은 어느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시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겨우 서른네 살 때였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선교사로 봉사하였고 교회의 충실한 회원이었습니다. 또한 농부였고, 아내와 세 명의 자녀가 있었기에, 앞을 못 보고 사는 인생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어린 자녀들은 이제 농장 일을 돕는 또 다른 짐을 지어야 했고, 돈도 부족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들 때 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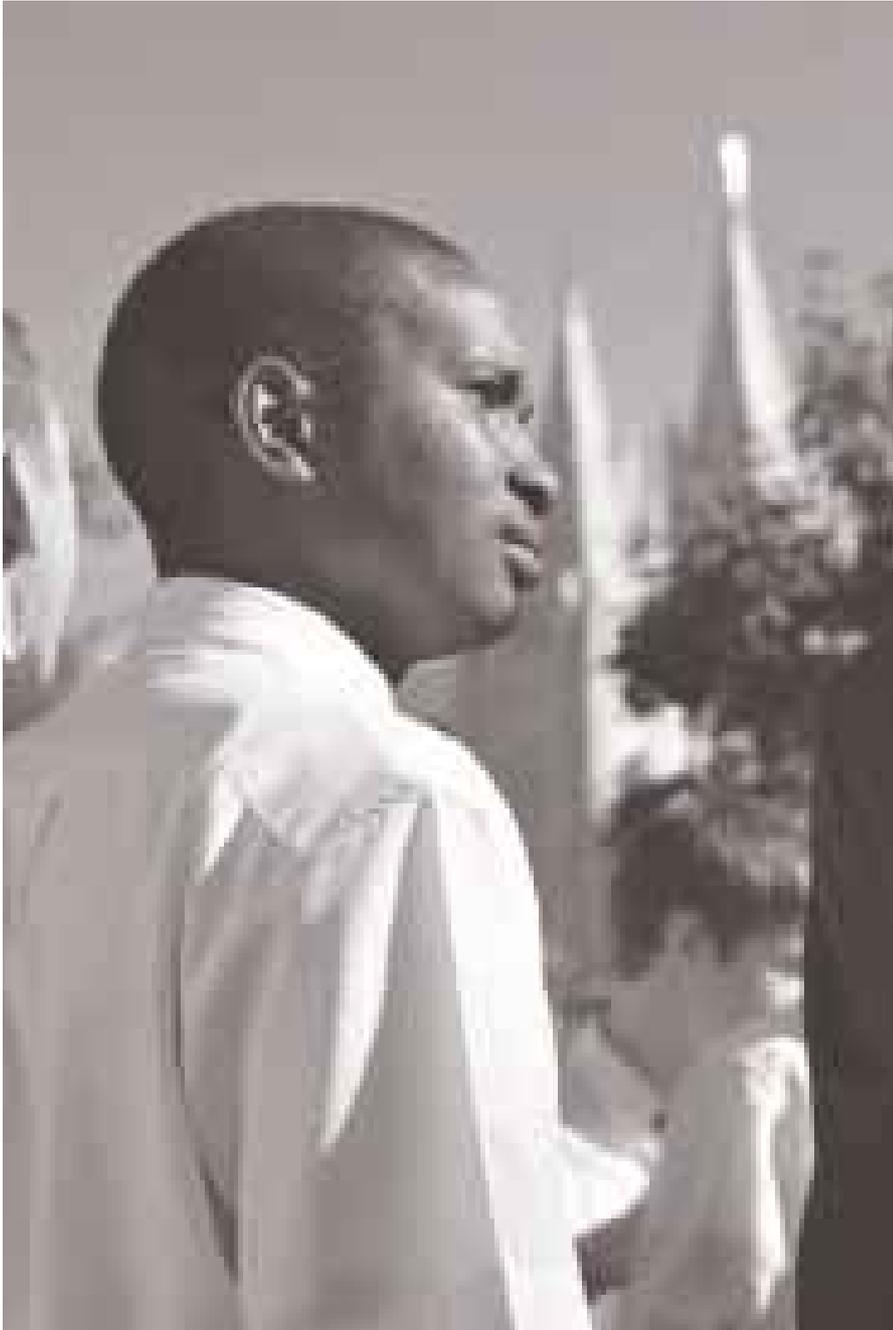
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앞 못 보는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1919년에 일어난 어떤 일은 할아버지의 가족에게 강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해는 할아버지가 살았던 마을 주민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시기였습니다. 농장들이 저당권자에게 넘어가고, 사업체들은 파산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농장은 상당한 액수의 저당에 잡혀 있었고, 그 저당물이 넘어가는 것을 한 해 더 늦추려면 19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 그것은 살점 일 파운드를 요구받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어 그렇게 많은 돈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말, 젖소, 농기계 등 농장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모아 판다고 해도 195달러를 마련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웃에게 자신의 젖소 두세 마리를 도살해 달라고 부탁해서 그것과 다른 생산물들을 팔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해 말에 받는 조건으로 이웃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 어느 누구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족의 경제적인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의 일을 일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1919년 성탄절 전날 그 추웠던 밤을 난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우

리의 농장을 잃게 될 것 같았다. 딸 글래디스가 종이 한 장을 내 손에 건네주며 말했다. ‘오늘 온 우편물이에요.’ 나는 그것을 아내에게 주면서 무슨 내용인지를 물었다. 아내는 이렇게 읽어주었다. ‘사랑하는 라슨 형제님, 저는 오늘 하루 종일 형제님을 생각했습니다. 형제님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러시다면 제가 200달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편지에는 짐 드링크워터의 서명이 있었다. 짐은 작은 체구의 장애자였지만 그만한 돈을 손에 쥐고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날 밤 그의 집으로 찾아갔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라슨 형제님, 저는 오늘 아침 하늘에서 무선 전화를 받고 하루 종일 형제님의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형제님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드링크워터 형제는 내게 200달러를 주었고 우리는 그 부동산 담보 금융 회사에 195달러를 보내고 나머지 5달러로 아이들에게 부츠와 옷을 사주었다. 산타클로스가 그 해에 정말 왔던 것이다.”

그런 후 할아버지는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주님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그분은 드링크워터 형제의 마음을 움직이셨듯,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셨다. 내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과 보호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과 이 교회의 권세를 받들고 지지하는 것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간증한다.”

저는 짐 드링크워터에 대해 여러 번 생각해 보았고 어떻게 그가 주님께서 신뢰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짐은 하나님께서 과중한 저당과 자녀 세 명이 딸린 농부 농부를 돕기 위해 신임하셨던 작은 체구의 장애자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짐 드링크워터간의 경험으로부터 아주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기 위해 건강이 좋아야 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돕도록 권유 받아야 한다거나 교회 부름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선지자들과 경전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지녀야 합니다. 율법사가 구주께 “선생님 ...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여쭙었을 때, 구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마태복음 22:36~39)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애 또는 사랑은 존재의 가장 큰 원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억압받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다면, 우리가 낙담과 비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우리가 인류가 처한 상황을 개선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면, 그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 종교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Conference Report, 1917년 4월, 4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그들이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가는 여행

을 도울 기회를 갖게 됩니다.

모사이야의 아들들이 행한 선교 사업의 경험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여러 날 광야를 여행하며,…”(앨마서 17:9) 우리는 기꺼이 여행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사이야의 아들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환경 밖으로 나가 힘든 일을 했습니다. 만약 암몬이 거칠고 완악하며 흉폭한 백성이 사는 타국 땅으로 기꺼이 여행하지 않았다면, 라모나이와 그의 아버지를 만나거나 그들을 돕는 일은 없었을 것이며, 또한 수많은 레이맨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행을 하고, 선교 사업을 나가며, 부름을 받아들이고, 누군가를 교회에 초대하거나, 또는 궁핍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모사이야의 아들들은 레이맨인 형제들을 도우려고 했을 때, 금식과 기도의 중요성을 또한 배웠습니다. “... 많이 금식하고 많이 기도하여 주께서 그의 영의 일부를 그들에게 주사 그들과 함께 가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게 하사,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가능하다면 그들의 형제 레이맨인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고…”(앨마서 17:9)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이 기도를 통해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가 금식하는 목적이 될 것입니다.

시력을 잃으신 후 할아버지는 만약 당신이 암흑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면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도록 금식하고 기도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후 한 시간도 되지 않아 “나의 마음이 밝아지고, 암흑의 구름이 걷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다시 보실 수 있었습니다. 후에 할아버지는 축복사로 부름받으셨으며, 32년 동안 그 직분에서 봉사하셨습니다. 모사이야의 아들들처럼 할아버지는 금식하고 기도하셨으며, 그 결과 수천 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할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 그리하여 그들이 당신을 알도록

키스 알 에드워즈 장로  
칠십인 정원회

우리는 고난, 슬픔, 비통함에 대처할 때 그리스도에 초점을 둠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합** 창단은 “예수님 생각하오니”를 불렀  
습니다.<sup>1</sup> 물론경에서 니파이는 메시  
야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또 세상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 그리하  
여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나 그는 이를 참으시  
며, 그들이 그를 치나 그는 이를 참으시느니  
라. 참으로 그들이 그에게 침을 뱉으나, 사람  
의 자녀들을 향한 그의 사랑의 친절과 그의 오  
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를 참으시느니  
라.”<sup>2</sup>

구주께서는 그분께서 감당하신 고난을 우리  
가 받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극심하고 격렬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sup>3</sup> 그러나 그 고난은 삶의

한 부분이며 이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고난을 경험한 적이  
있고, 현재 고난 중에 있거나 또는 이후에 겪  
을 것이므로, 경전은 고난, 슬픔, 비통함에 대  
처할 때 그리스도에 초점을 둠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  
니다. 옛 선지자 바울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  
구주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  
다고 기록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에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광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sup>4</sup>

그렇다고 일부러 어려움이나 고난을 찾지는  
마십시오. 이 성구가 가르치는 것은 그러한 것  
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주를 더 잘 알게 해 주  
는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고난에 대처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  
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고난이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오는 것임을 알고 있습  
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말씀드려 보  
겠습니다.

오래 전 우리 아이들이 한 살쯤 되었을 때  
저는 불필요하게 보이는 고통을 초래하고 말았  
습니다. 당시 우리 부부는 대학생이었고 저는

우리도 짐 드링크워터와 제 할아버지처럼  
성신의 속삭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고자 소망  
할 때 계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  
자 엘마 이세는 자신이 받은 계시에 대해 우리  
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를 내가 아노니, 나는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  
노라. ... 이것이 내 영광이니, 곧 혹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얼마간의 영혼을 회개로  
인도하는 것이라. 또 이는 내 기쁨이니라.”(엘  
마서 29:9) 엘마는 무엇을 해야 할지에 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작은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영으로부터  
받는 영감과 생각들을 기록합니다. 그 책은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낱아서 종종 새 것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마음에서 생각들이 떠오르  
면, 그것들을 기록한 뒤 그 일을 행하려고 노  
력합니다. 저는 제 목록에 있는 것들을 행하였  
을 때 그 행위가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었다는 것을 여러 번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목록에 있는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는데, 후에 제가 도울 수 있는 누군가 있  
었지만 제가 돕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곤 했  
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한 속삭  
임을 받을 때, 우리가 받은 생각과 영감들을  
기록하고 그것에 순종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  
나님의 신임이 두터워질 것이며 우리는 그분  
의 손에 든 도구가 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됩  
니다.

파우스트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든 강력한 도구가 되  
어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은 다  
른 사람을 위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든 도구, 리아호  
나, 2005년 11월, 115~116쪽)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돕는 자들을 소중히 여기십  
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선지자의 권고에 따라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그분의 자녀들  
을 도와 그분이 아끼시는 사람이 되기를 권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  
멘. ■



어느 날 저녁 방에서 아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마침 공부를 하기 위해 그 방을 나가면서 제가 문을 닫을 때 문 뒤에서 아들이 저를 향해 손을 뻗는 바람에 손가락이 문 틈 사이에 끼었습니다. 제가 문을 닫았을 때 아이는 손가락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우리는 급히 그를 병원 응급실로 옮겼고, 아이의 손가락에 구부 마취를 한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가락이 치료될 것이라고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역설적으로, 그 순간 제 한 살 박이 아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에게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모습이 시야에 있는 한 섬세한 수술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할 수 없게 저항했습니다. 제가 그 방에서 나오자 아이는 진정되었고 의사는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불안한 마음에 열려 있는 문 가까이 다가가서 고개를 내밀고 수술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들여다 보았습니다. 아이의 뒤쪽으로 비껴 있는 그 문을 통해 제가 소리 없이 안을 볼 때마다 어떻게 알아차렸는지 제 아들도 제가 거기 있는지 보기 위해 힘써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팔을 옆으로 펴서 고정해 놓은 채 제 아들이

고개를 뒤로 젖혀 저를 찾는 모습을 재차 들여다보면 제 머릿속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양팔을 벌리고 아버지를 찾던 또 다른 아들의 모습과 함께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sup>5</sup>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 삶에서 매우 끔찍했던 순간이 매우 성스러운 순간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경전 전반에 걸쳐 자신의 중심을 항상 그리스도에게 두는 남녀들이 나옵니다. 삶에서 어떤 상처나 부당한 일이 생기든 상관없이 신앙을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상속 받은 땅에서 쫓겨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으며, 덕성과 순결을 지켰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어느 무심한 시종 때문에 감옥에 계속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젊어서 남편을 여윈 룻은 가난에 시달려야 했으나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변함없이 충실했습니다. 세 명의 선지자 니파이들, 아버지 엘마와 아들 엘마, 그리고 예언자 선지자 조셉의 예도 있습니다.

특히 저의 주목을 끄는 것은 니파이의 인내입니다. 계속해서 그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형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배 위에서 니파이를

나흘 동안 묶어 두었습니다. 그는 움직일 수 없었으며 나흘째 되는 날 바다가 그들을 삼킬 지경이 되자 스스로 멸망 당할까 두려워한 형들은 “나에게로 와서 내 손목에 있던 결박을 풀어 주었나니, 보라 손목은 몹시 부어 있었고 또한 나의 발목도 많이 부었으며 그 통증이 대단히 심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며 온종일 그를 찬양하였고, 나의 고난으로 인하여 주를 원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sup>6</sup>

그러나 이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나 그는 이를 참으시며, 그들이 그를 치나 그는 이를 참으시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그에게 침을 뱉으나, 사람의 자녀들을 향한 그의 사랑의 친절과 그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를 참으시느니라. ...”<sup>7</sup>라고 기록한 사람은 바로 니파이였습니다. 니파이는 이해했습니다.

고난의 목적이 그 시점에서 항상 분명히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선지자 조셉은 그가 리버티 감옥에 있는 동안 매우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를 위로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네 영혼에 평강이 있을 지어다. 네 역경과 네 고난은 잠시 뿐이리니, 그러고 나서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요, 너는 너의 모든 원수를 이기리라.”<sup>8</sup> “... 내 아들이, 이 모든 일이 네게 경험이 되고 네 유익이 될 줄 알라. 인자는 그 모든 것 아래로 내려갔었느니라. 네가 그보다 크나?”<sup>9</sup>

고난이 고의로 온 것이든 무심코 온 것이든, 우리가 고난을 견뎌야 할 때 우리는 남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며—우리가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셨던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됩니다. 엘마가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괴로움을 이미 겪으셔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아시는 것처럼,<sup>10</sup> 반대로 우리는 자신의 고난을 겪는 동안 주님의 속죄가 주는 희생의 깊이와 위대함에 대한 이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오래 전, 제 아들과 겪은 그 경험을 깊이 생각할 때 저는 속죄의 위대함과 중요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자신과 우리들 각자를 위해 기꺼이 그분의 아들에게 겪도록 하신 고난에 대해 더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속죄의 깊음과 넓음에 대한 새로운 개인적인 통찰을 얻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그렇게 사소한 일로 고통을 받는 것도 기꺼이 허락할 수 없을 것이지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sup>11</sup>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없으나, 제 아들도 구주께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 이해할 기회를 가지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sup>12</sup>

제 아들의 손가락에 대한 일화가 거룩한 속죄에 비견할 바는 아니지만, 제 아들의 손에 남은 상처 자국은 항상 그의 눈 앞에 있으며, 그가 원한다면, 그 흉터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통 받으신 구주의 손바닥의 상처를 떠올리게 해줄 것입니다. 제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위협을 받고, 멍들고, 상하고 찢기신 구주의 사랑을 이해할 자기 나름의 방법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통찰력을 주지만, 우리는 비교하기 보다는 감사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와 구주 사이에는 언제나 무한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sup>13</sup>라는 말씀은 그분의 희생이 기꺼이 스스로 행하신 일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명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sup>14</sup>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의 깊이와 본질을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니파 이처럼, 그분이 겪으신 고통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으며, 그분의 영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우리의 구주를 매우 실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sup>15</sup>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가족.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이시며, 그분의 고난과 속죄로 인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의 따뜻한 사랑과 친절함에 대한 저의 간증을 드립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며 모든 일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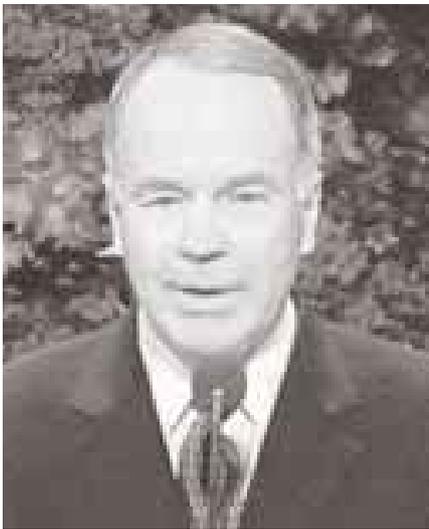
1. 찬송가 104장.

2. 니파이전서 19:9.
3. 교성 19:16~19.
4. 로마서 8:16~17.
5. 마태복음 27:46.
6. 니파이전서 18:15~16.
7. 니파이전서 19:9.
8. 교성 121:7~8.
9. 교리와 성약 122:7~8.
10. 앨머서 7:11~12 참조.
11. 요한복음 3:16.
12. 이사야 49:16.
13. 요한복음 19:11.
14. 교성 19:18.
15. 요한복음 17:3.

# 그러므로 이를 명심하라

래리 더블류 기브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우리는 한 발은 교회에 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의** 학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인체의 복잡함과 질서와 조화에 대한 이해는 창조주에 대한 신앙을 더욱 굳게 해줍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창조주를 믿지 않는 것은 생명이 다소 우연한 방법으로 갑작스럽게 시작되었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창조 후에 우리를 홀로 남겨 두신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이 인도의 일부는 우리가 계명이라고 부르는 형태로 오게 되었습니다.

계명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우리를 제한시키기 위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지침으로서 우리가 곤란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고, 현세에서 우리에게 충만한 행복을 주며, 우리를 안전하게 다시 그분께 돌아가도록 해줍니다.

1994년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말씀을 전하며 랍비 해롤드 에스 쿠시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유대인이며 성경의 식사법을 따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제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속으로 ‘아, 돼지고기를 먹으면 좋겠는데 무심한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을 거야’라고 혼잣말을 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하루를 살면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기 어려울 만큼 놀랍지 않은가? 이 지구에는 50억의 사람이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점심으로 무엇을 먹는지,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를 신경 쓰신다니 말이야.’ 그것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고 해서 제가 더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은 저를 발전시켜 줍니다.”<sup>1</sup>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님은 첫 번째 전세계 지도자 훈련 방송에서 그것을 더 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합당함에 대한 그분의 표준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그분으로부터 멀리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sup>2</sup>

형제자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은 현세와 내세에서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해의 왕국에 들어가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기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표준은 해의 왕국의 표준입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이는 해의 왕국의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해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음이니라.”<sup>3</sup>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의 왕국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계명대로 살면 현세에서 지금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계명을 지키며 사는 데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세상적인 것들에 완전히 작별을 고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한 지역 대회인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 우리는 찬송가 “너 이스라엘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후렴에는 “오 바빌론 오 바빌론 이제 떠나서”<sup>4</sup>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나서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바빌론에 작별을 고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힘든 도전 중의 하나이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여름 별장을 지니고 싶어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sup>5</sup>

우리는 한 발은 교회에 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세상과 교회가 급속도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균형을 잃고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sup>6</sup>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걱정스럽게도 어떤 사람들은 매리온 지 롬니 회장이 말씀하셨듯이 “사탄을 기본 상하지 않게 하면서 주님을 섬기”<sup>7</sup>려 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sup>8</sup>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맛을 잃게 됩니까?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분되는 것을 중단할 때입니다. 교회 내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향으로 표류하고 있고 점점 더 세상과 같아 보이고 세상적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표류를 중단해야 합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님은 “후기 성도 교

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세상과 같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즐거움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습관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오락은 달라야 합니다.”<sup>9</sup>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과 같은 도덕적 상대주의의 시대에서 우리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여 “이것은 옳고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균중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가 광야로 이사 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제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거할 수 있고, 학교에 다니고, 직장에 다니며, 가치 있는 지역 사회 단체들에 가입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표준을 지켜야 합니다.

제 친구 중에 명망 있는 내과 의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는 전국으로 나가는 신문에 정기적으로 건강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종종 그는 영양 섭취를 주제로 글을 씁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도너츠를 좋아합니다. 도너츠는 맛은 있지만 대개 보통, 세상에서 가장 영양가 높은 음식 중 하나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는 그의 표현대로 하자면 영양 섭취의 80:20이라는 이론을 고안해 냈습니다. 이 이론은 여러분이 시간의 80% 동안 매우 훌륭하게 생활한다면 시간의 다른 20% 동안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양 섭취에서는 만족스러운 것일지 모르지만, 80:20의 원칙은 도박, 음란물, 혹은 정직성과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80:20과 같은 회원입니까?

가게에서 무언가 사야 할 것이 없을 경우에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여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혹은 모든 거래에서 정직하지만, 천 달러 이상의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 공제액을 과장 신고하고 싶은 충동에 굴복하는 남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지 않은 경우에만 아내와 자녀들에게 친절하고 온화한 아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바빌론에 있는 여름 별장을 팔아 버리십시오. “거의 완전한”이 아니라 “완전한” 후기 성도가 됩시다.

조셉 스미스 역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주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명하는 바를 명심하여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명심하라”는 구절을 좋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명심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에만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후기 성도들에게는 단 하나의 안전한 길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책임이라는 길입니다. 그것은 간증도 아니고, 놀라운 나타내심도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됨

을 아는 것도 아니고, 구주가 실제로 구속주라는 것을 아는 것도 아니며 조셉 스미스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줄 그분의 선지자라는 것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즉 후기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sup>10</sup>

젊은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에서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인생의 유일한 참된 안전은 계명을 지키는 데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재정적인 안전과 공적인 지위는 의로움 없이는 공허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점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세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곳에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해의 왕국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의 왕국이 아닌 환경에서는 결코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악함은 결코 여러분에게는 행복이 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sup>11</sup> 정직, 겸손, 순결, 지혜의 말씀, 그리고 성전 결혼과 관련하여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인생의 초기에 단호하게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곧고 좁은 길 위에, 아니, 곧고 좁은 길의 가운데에 머무십시오. 류투하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장난 삼아 하지 마시고, 조심하십시오.

악마와 장난 삼아 놀지 말아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악마의 영역에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흠 구장의 이점을 주지 마십시오. 계명에 따라 산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넬슨 장로님께서 오늘 오전에 가르치신 것처럼, 이것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회복이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망설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오늘날 주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지도력, 그리고 강인함에 대한 훌륭한 모범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이 살아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The Human Soul's Quest for God," *Brigham Young Magazine*, 1995년 2월호, 26쪽.
2. 2003년 1월호, 13쪽.
3. 교리와 성약 88:22.
4. 찬송가, 200장.
5. The Neal A. Maxwell Quote Book, ed. Cory H. Maxwell (1997), 25쪽 참조.
6. 마태복음 6:24.
7. "The Price of Peace," Tambuli, 1984년 2월호, 6쪽.
8. 마태복음 5:13.
9. "Gifts of the Spirit," *Ensign*, 2002년 2월호, 17쪽.
10. "The President Speaks," *Improvement Era*, 1936년 11월호, 659.
11. 앨마서41:10 참조.

# 그 땅에 다시 선지자들이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이 교회가 세상에 예언과 선견과 계시를 선언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며,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인 캐롤린 래스머스는 브리검 영 대학교의 교직원인 뒤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 알게 된 몇 명의 교수들로부터 프로보 위쪽에 있는 산에서 갖는 토요일 하이킹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캐롤린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은 아니었지만, 특별히 그녀는 새로운 동료들 가운데에서 환영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열심히 등산에 참여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을 때, 산을 오르는 사람들도 산허리를 더 높게 올라갔습니다. 10시가 가까워 왔을 때 그 그룹은 앓을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캐롤린은 "정말 잘되었어. 내가

휴식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알았지?"라고 생각했고 그녀도 다리를 뺀기 위해 편안한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참가자들은 예상치 않게 이 특별한 휴식에 진지한 것 같았고, 한 사람이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동안 몇몇 사람들은 연필과 공책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삶에서 영원한 전환점이 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친구 가운데 한 명이 말했습니다. "캐롤린, 설명해 줄 게 있는데. 오늘은 10월의 첫 번째 토요일이고 우리에게 있어선 사랑스러운 날씨와 밝고 아름다운 가을 있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오늘은 교회의 연차 대회가 있는 날이기도 해. 후기 성도로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는 일을 멈추고 대회 방송을 시청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 참나무와 소나무 가운데 앉아서 계곡 아래를 바라보며 두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을 거야."

캐롤린은 "두 시간씩이나! 여태껏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시간 동안이나 말씀할 수 있는 그렇게 많은 선지자가 있는지 정말로 모르고 있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오후 2시에 또다시 두 시간 동안 멈출 거라는 것과 그런 후 다음날 4시간을 더 집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도록 권유 받을 거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녀의 나머지 이야기를 추

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학생들이 선물해 준 가족 합본 경전과 와드 내 후기 성도 회원들과 가족들의 사랑으로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복음의 빛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라는 영적인 경험들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캐롤린은 침례 받았으며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브리검 영 대학교 동편에 있는 “Y 마운틴” 산 정상에 앉아 있던 그날에 그녀에게 연차 대회를 소개한 것으로 인해, 래스머스 자매님은 이사야의 예언적인 권고, 즉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sup>1</sup>라는 권고에 대한 그녀 자신의 개인적인 성취를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훌륭한 연차 대회의 끝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특별히 우리가 지상의 하나님의 대변자요, 우리의 살아 계신 선지자이시며 선견자요 계시자로서 우리가 지지하고 있는 분이신,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아담으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을 수행해 온 것처럼, 힝클리 회장님은 상징적으로 아담 온다이 아만의 골짜기에 해당되는 세계 대회에 우리를 모으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가르치며 그의 축복을 우리 위에 부어 주셨습니다.<sup>2</sup>

저는 대회에서 말씀하신 모든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의 기도는 이번 주말 그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연차 대회가 우리를 영적으로 고양시킬 것이며, 만일 필요하다면, 래스머스 자매님과 “예언자의 음성 듣고 주 말씀 믿으라”<sup>3</sup>라는 우리 후기 성도 찬송가에 반년 마다 화답하시는 헤아릴 수 없는 수천 명의 다른 분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는 삶에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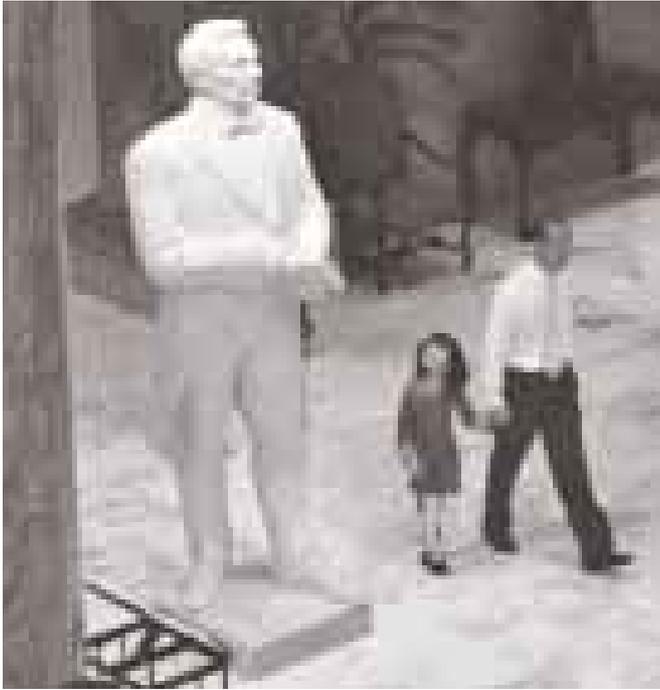
연차 대회의 메시지와 의미에 대한 제 자신



의 간증과 감사의 표현으로, 저는 매년 두 번씩 모이는 이러한 모임이 온 세상에 전하는 세 가지 사항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연차 대회 모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지상에 살아 있는 선지자가 계시다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인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시다! 우리 시대는 험난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여러 전쟁을 목격하며 각 나라마다 국내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고난을 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개인적으로 마음의 이쁨을 겪고 있으며 가족은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리하이의 생명 나무의 시현에서, 그러한 어둠의 안개가 사람들을 감쌀 때, 그것은 그곳

에 있는 모든 사람들, 즉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 나이든 사람이나 젊은이, 새로운 개종자나 교회 생활에 익숙한 회원을 막론하고 모두를 감싸 안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 비유에서처럼, 모든 사람은 반대와 고통에 직면하며, 오직 쇠막대, 즉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쇠막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없이는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이 없다면 기록에서 말한 대로 누구든 “금단의 길로 떨어져 나가서는 잃어버린 바”<sup>4</sup>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틀간 이 대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쇠막대의 힘을 느낄 수 있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나는 진실한 빛이며, 그것은 이러한 대회 모임들로부터 빛을 발합니다.

둘째로는, 이러한 대회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의 행동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 즉 우리 자신의 가족과 신앙에 속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행동의 부름입니다.

오늘 오전 히클리 회

흔치는 않지만 지난 몇 년간의 일부 자료들은 총관리 역원들이 선포하는 것들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 즉 그분들이 현안을 모르고 있으며, 그분들이 전하는 일부 정책과 관행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며 우리 시대와는 무관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곤 합니다.

직접 이 교회의 인도를 증거하기 위해 여러분에 의해 지지되어 왔던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사람으로서, 저는 제 자신의 삶에서나 제가 관여한 사회 생활 가운데의 그 어떤 단체도 그렇게 깊숙이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의 현안 문제들을 깊이 알고 있으며, 옛 것에도 깊이 관여하는 한편 새것에도 개방적이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주의 깊고, 신중히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해 보는 단체는 결코 없다는 것을 제 영혼의 온 열정을 다해 말씀드립니다. 저는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현안에 관해 이 그룹에 속한 남녀들이 갖고 있는 이해력은 제가 알고 있는 지상의 어느 곳에 있는 연구 기관이나 이것에 필적할 만한 노력의 전문적인 기관들보다도 훨씬 능가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이분들이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또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겸손히 살아 가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간증을 드립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 예언과 선견과 계시를 선언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며,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님은 1856년 10월 이곳 솔트레이크 계곡에서 연차 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동안 네브래스카의 마지막 몇 킬로미터를 혹독한 추위를 뚫고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고, 곧 구름 지대인 와이오밍에 붙어 닥칠 심한 눈보라 속에 갇히게 될 손수레 부대를 기념하는 150주년이 되는 날임을 감동적으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은 당시 성도들에게 전한 브리검 영 회장의 영감 어린 연차 대회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셨습니다. “자 이제 가서 그 평원에 있는 그들을 데려오십시오.”<sup>5</sup>

어려움에 처한 그들을 구조하라는 것이 1856년 10월 연차 대회의 주제였던 것처럼, 이번 대회, 지난번 대회, 그리고 다가오는 다음 봄 대회의 주제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번 대회에서 직면하는 것이 눈보라와 얼어붙은 땅에 매장되는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굶주림과 헐벗음은 여전히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하고 지친, 그리고 낙담하고 용기를 잃은, 즉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금단의 길로 떨어져 나간 자들과, 그리고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에서 떨어져 있는”<sup>6</sup>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연약한 무릎과 처진 손을 가진 채 이제 막 힘든 환경이 시작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이 갖고 있고, 더 많이 알며,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만 구조될 수 있습니다. 그리

고 “도움이 필요한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묻는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오른편과 왼편에,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 직장에, 모든 지역 사회와 군과 세계 도처, 모든 곳에 있습니다. 도울 수 있는 방법과 자원에 여러분의 사랑과 간증과 영적인 양식을 싣고, 이 세상 어느 곳이든 가십시오. 여러분이 이번 대회에서 가르침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주님은 여러분을 공평한 자들에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21세기에 마틴과 윌리의 손수레 부대가 고난을 겪었던 곳과 유사한 곳에 고립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손을 내미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마 동전과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라는 주님의 거듭된 권고를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sup>8</sup>

마지막으로, 교회의 연차 대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그분과 그분의 아버지이신,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가 다시 지상에 그분의 교회를 회복하실 것이며 다시 “[유대의 성도들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sup>9</sup>고 한 옛날의 약속에 대한 성취로서 소년,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전세계에 알리는 선언입니다. 이 대회를 포함한 다른 모든 대회는 우리의 삶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가 고난의 운명에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시 말해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sup>10</sup> 하기 위해 그분이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어 지상에 오셔서 슬픔과 배척을 당하며, 실망과 사망을 겪으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대회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 함이로다”<sup>11</sup>라는 사랑하는 메시아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자신이 길을 잃거나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는 자신이 너무나 오랫동안 아주 잘못된 상태로 너무 많이 행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 그리고 자신이 인생의 추운 겨울의 평원 어딘가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손수레가 부서진 것을 걱정하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 이

# 폐회 말씀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여러분께 우리의 사랑과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빕니다.



대회는 여호와의 반복된 메시지인, “나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sup>12</sup> “내가 매일같이 그들에게 내 팔을 펼칠 것임에도 그들이 나를 부인하려 함이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여 내게로 올진대, ...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리니, 이는 내 팔이 종일토록 펼쳐져 있음이니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sup>13</sup> 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음을 크게 외칩니다. 그분의 인자하심 곧 자비는 영원하며 그리고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요, 다른 모든 힘이 사라질 때라도 참아내는 동정이며 결코 사들지 않는 사랑입니다.<sup>14</sup>

저는 팔을 펼쳐 구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예수님에 대해 간증드리고, 이 교회는 그분의 구속의 사랑에 기초를 둔 구속의 교회이며, 물론 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백성들 가운데 주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 와서 ... 그 땅에 다시 선지자들이 나타나”<sup>15</sup>리라고 선포했음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모든 면에서, 즉 발끝에서 머리까지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우리가 마음속에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사시고 그러한 음성을 지니신 분이시며, 우리가 그토록 기도에 포함시켜 온 분이심을 간증드립니다. 또한 이제 이 반연차 대회 모임의 마무리를 지어 주실 선지자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축복과 더 많은 축복에 대해 이 연차 대회에서 개인적인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이사야 2:3.
2. 교리와 성약 107:53~56 참조.
3. “예언자의 음성”, 찬송가, 12장.
4. 니파이전서 8:28; 또한 23~24절 참조.
5. *Journal of Discourses*, 26 vols., 4:114, *Deseret News*, 1856년 10월 15일, 252; 또한 LeRoy R. Hafen and Ann W. Hafen, *Handcarts to Zion* (1960), 120~121 참조.
6. 교리와 성약 123:12.
7. 교리와 성약 81:5 참조.
8. 누가복음 15장 참조.
9. 사도행전 1:11.
10. 이사야 53:5.
11. 시편 136:1편 참조.
12. 이사야 5:25; 9:17, 21 참조.
13. 니파이후서 28:32.
14. 모로나이서 7:46~47 참조.
15. 이더서 7:23; 9:28.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얼마나 기적 같은 대회입니까! 세상의 그 어느 모임과도 견줄 수 없는 대회입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컨퍼런스 센터에 함께 모여 있고, 모든 대륙에 있는 백성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메시지가 전세계에 전해지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일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모든 연사들이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모든 총관리 역원들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쉽게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보조 조직의 대표자들이 전한 메시지들을 통해 영감을 받았습니다.

모임의 기도도 우리를 고무시켜 주었습니다. 음악도 매우 훌륭했습니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이 거대한 컨퍼런스 센터와 우리의 말씀이 여러 영토와 나라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해준 기술

에 대해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지상에 평화를 소망하며, 그런 날이 오기를 끊임없이 기도 드립니다.

이제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여러분께 우리의 사랑과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빕니다.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다스리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도록 간구하며, 여러분께 여섯 달 동안 작별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과 축복을 여러분께 전하며 우리의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그분의 사랑에 영원토록 둘러싸임

보니 디 파킨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매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며, 지속적인 것입니다.



**이** 부름을 받고 저는 교회 자매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딸인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강한 증거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선함을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느낌으로써 우리는 힘써 앞으로 나아가도록 격려받으며, 우리가 그분에게 속해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실족하거나 실패할 때도 그분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2002년 4월 연차 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에서 제 간증을 전할 때, 이 메시지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헤이트 장로님이 연차 대회에 참석하지 못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 저는 5분간 간증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날 제가 헤이트 장로님을 위해 평소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었다는 걸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일요일 아침 저는 헤이트 장로님이 컨퍼런스 센터로 오시는 것을 보고 안심을 했지만, 그분이 회중 찬송 중 나가실 때 까지 만이였습니다. 그날 오후에 연단에 섰을 때, 말씀 원고가 보이는 표시 장치의 스크린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 마음에는 여성들이 매일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 한다는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이 메시지가 그날 전해야 할 메시지란 것을 알았고, 우리의 메시지가 되어 왔습니다.

이 메시지에 대한 여러분의 부드럽고 개인적인 반응에 저는 겸손해졌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축복해 주었는지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자격과 필요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지구에 오기 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매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결코 변함없을 것이며, 지속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믿고 신뢰하셔도 됩니다.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라는 상호부조회 표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코 시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상호부조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의 사랑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 위대한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우리의 동기의 근원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출발점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다섯 명의 어린 자녀를 둔, 제가 아는 한 젊은 어머니는 좋은 조연자가 되어 준, 나이든 자매님께 전화를 하여 “산책 가실래요?”라고 물었습니다. 이 자매님의 친구분은 그 말이 애기 좀 하자는 뜻인줄 알았습니다. 13킬로미터에 달하는 산책로의 중간쯤 갔을 때, 이 젊은 어머니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 사랑한다는 걸 도무지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살면서 실수도 많이 저질렀고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분이 저를 사랑하시겠어요?” 자매 여러분, 이 자매님은 성전 성약을 맺은 교회 활동 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매님은 자신이 그분의 사랑을 받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나이든 자매님은, “당연히 그분은 자매님을 사랑하시지요. 자매님은 그분의 딸이거든요.”라고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받기 원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종종 거절하지는 않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 자신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팔에 영원토록 둘러싸”<sup>1</sup>이도록 허락할 때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며, 당장 완전해질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온전함이 하나의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보에 관한 복음이며, 우리는 그 과정을 감사히 여겨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이란 말은 시작도 끝도 없음을 의미하므로, 그분의 사랑은 매일 우리를 둘러쌉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 해

도 그것이 지속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큰 은사에 대한 니파이의 묘사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에 두루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입니다. 그러한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바랄 만한 것이입니다. ... [또 그가 내게 ... 이르되] 또한 영혼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더라.]”<sup>2</sup> 저는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상상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를 안은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품의 따뜻함, 안전, 보살핌, 평화를 생각할 때 그분의 사랑의 팔에 둘러싸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 젊은 상호부조회 자매는 “제 어머니의 사랑만이 제가 구주께서 주시는 사랑의 위대함과 힘을 잘 이해하게 해 줍니다.”라고 썼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이 진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데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사랑으로 둘러쌀 때,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어렵듯이 알게 됩니다. 고든 비 헝클리 회장님은 “우리의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를 사랑하십시오. 또한 항상 그분들의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다른 사랑이 시들 때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독생자와 하나님의 빛나고 영원한, 초월적 사랑이 우리 각자를 위해 존재할 것입니다.”<sup>3</sup>라고 하셨습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어머니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에 둘러싸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떤 딸이 100살이신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한 말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십대 시절 저는 수업 시간표를 계획하면서 어머니께서 다림질하고 계신 부엌으로 가곤 했습니다. 제가 가능한 학습 시간표들을 알려 드리면... 어머니께서는 귀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경우에 대해 얘기했고 ...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래, 케이티, 그것에 대해 기도해 보았니? 그 말에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고, 저는 머뭇거리다 말합니다. ‘엄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하세요? 어머니께서는 단순히 난



그렇게 한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sup>4</sup>

이 어머니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주님에 대한 신앙을 나누고, 모범을 보이며, 딸이 지속적으로 주님께 돌이키기를 기대함을 알려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와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자녀들이 그들의 삶에 항상 주님을 고려하도록 가르치고 그분의 사랑의 영향력을 알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제 어머니와 저는 축복사의 축복을 같이 받았습니다. 저는 스무 살이었고, 어머니께서는 마흔하홉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축복사님은 어머니 머리에 손을 올리고 어머니의 생명이 얼마나 많이 류머티스성 고열과 심장병 등의 많은 질병으로부터 구해졌는지 얘기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었던 때를 설명하시며, 어머니의 삶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머니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에

대해 말씀하셨으며, 어머니께서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인생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를 잘 알지 못하는 이 축복사님이 어머니의 인생에 대해 묘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각자를 알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어머니와 저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느낀 잊지 못할 날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주의 사랑을 가장 강하게 증거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속죄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은혜, 인내, 오래 참음, 자비, 용서로 넘쳐납니다.

우리에게 할머니로서 손자들을 사랑으로 둘러쌀 성스러운 책임이 있습니다. 세 살 된 소녀가 버릇없이 굴 때 할머니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못써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백만 년이 넘도록 친구가 될 거니까.” 할머니가 된다는 건 최고로 멋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자매 여러



분, 사랑과 성약은 우리를 영원한 가족으로 한 데 묶어 줍니다.

주님의 사랑은 종종 영의 속삭임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해 전달됩니다. 우리는 그런 속삭임을 듣고 따릅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한 자매님은 22년 동안 살아온 정든 집과 와드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와드에서 보낸 첫 번째 일요일에 관해 그 자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몇몇 분을 알고 있었지만 정말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 그 날 아침 상호부조회에 처음 온 사람들 중 한 명이었어요. 전 앉아서 자매님들이 자리에 앉는 걸 지켜보았어요. 모두들 자신의 자리만이 아니라 자기 줄도 따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매님들은 서로 옆에 앉지 않았고 저의 옆에도 앉지 않았어요. 전 마치 외딴 섬이 된 것 같았어요.” 자매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에게 그래야만 하나요?! 그 자매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리사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저를 보며 환한 얼굴을 하고 일부러 제게 와서는 제 옆에 앉아 제게 팔을 둘러 안아 주었어요. 그런 작은 행동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저는 참으로 놀라고 있습니다. 그녀의 사랑이 갖든 그 따뜻함은 저의 외로움을 말끔히 씻어 주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 삶 의 큰 사건 안에서만 볼까 봐 우려합니다. 우리는 가장 작은 일에서도 그분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다른 자매님 옆자리에 앉아 그 자매님이 환영 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과 같은 작고 순수한 행동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제가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방법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느끼는 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가까이 그것을 나누십시오.

회장단으로서 우리는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피해를 입은 멕시코만 연안을 방문했습니다. 어느 노년의 모임 저녁, 연단에 선 저는 이곳의 모든 자매들은 실제로 손을 뻗어 그들을 강하게 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갑자기 받았습니다. 모임 후 휴즈 자매님, 핑그리 자매님, 그리고 저는 각각 다른 문에 서서 나가는 모든 자매님들을 안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계셨던 자매님들 중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이 나누어 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 여

러분의 예배당을 떠났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를 보살피고 또한 저희 세 사람을 보살피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사랑으로 저를 채워 제가 온 마음으로 그분의 일을 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제가 매일 드리는 이 간청으로 축복 받아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상호부조회 자매로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의 속성을 나타내는 모든 일에 있어, 그분의 위대한 모범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 말, 행동으로 그러한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교만, 허영, 이기심 또는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을 꺼려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단순하고도 심오한 사실은, 우리는 먼저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둘러싸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주의 영원한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 원을 넓혀 우리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 원은 구주와 우리의 아버지를 우리 마음과 삶으로 초대합니다. 그 원은 참으로 천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맺은 성약을 지키며 자애를 베풀고 가족을 강화할 때 여러분이 매일 그분의 사랑을 느끼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아멘. ■

**주**

1. 니파이후서 1:15.
2. 니파이전서 11: 22~23.
3. “살아 있는 선지자의 말씀”, 리아호나, 1998년 12월호, 8쪽; “Excerpts from Recent Addres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Ensign, 1996년 4월호, 73쪽.
4. 개인 서한.

# 주님의 사랑을 기억함

캐서린 에이치 휴즈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느낄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미**네르바 타이커트가 그린 **붉은 성의를 걸치신 그리스도**'는 니파이 후서 1장 15절에 있는 '나는 그의 사랑의 팔에 영원토록 둘러싸였느니라'는 경전 내용을 완벽하게 묘사해 줄 것 같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 팔을 펼치시며 우리를 크게 반겨 주시는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니파이인들에게 "일어나 내게로 나아(오라)"고 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도 '(그) 온 땅의 하나님이며,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였음'(니파이삼서 11:14)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각자 한명 한명에게 그분에게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때때로 그리스도의 팔에 둘러싸인 듯한 느낌을 받아 보았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저와 같다면 두려울 때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무 바빠서

어쩔 줄을 몰라 하거나 영으로부터 멀어지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느낌을 받을 경우 그것들을 떨쳐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제게 강하게 임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의 팔에 둘러싸인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기억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젊은 엄마였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직도 어머니의 조연과 권고가 필요할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암 진단을 받으신 후 6주 밖에 살지 못하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아버지를 걱정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오래 고통을 겪지 않으셨다는 것과 어머니의 죽음에 저희에게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 후에 어머니날과 어머니의 생일이 가까워오자 어머니가 무척 보고 싶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팔에 안기고 싶었고 어머니가 잘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보고 싶어한다는 것을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울면서 기도하고 있던 중에 (저는 그 시절에 자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갑작스럽고도 강한 위안의 느낌이 제 온 몸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느낌은 저를 회복시켜 주었고 저에게 평화를 주었습니다. 그 느낌은 육체적으로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지만 저를 무척이나 편안하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이 저를 감싸고 저에게 평안과 힘을 주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이 제 기억 속에 남아 삶이 어려울 때 꺼내서 열어 보고 기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의 순간과 그로 인해 생기는 평화가 예기치 않게 그리고 제가 필요로 하지도 않았고 제게 아무런 특별한 문제가 없었을 때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아름다운 가을날 안식일에 저는 경전 읽는 의자에 앉아서 이웃 집의 살구나무에서 노란 잎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경전에서 눈을 떼는 순간 불현듯 평화와 만족의 느낌이 저를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이 매우 크고, 매우 중요한 자매들의 모임을 위해 말씀을 준비해야 할 때와 같은 때에 떠올릴 수 있는 추억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매일 간구할 때마다 저는 제 생활 곳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의 팔이 저를 둘러싸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깨끗한 공기 속에서 먼동이 떠오르는 것을 보며 아침 산책을 할 때 주님의 사랑의 증거를 봅니다. 경전 구절 하나가 갑자기 떠올라서 저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때도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저는 상호부조회에서 훌륭한 여성들에게서 배우거나 저를 보살펴 주는 방문 교사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을 때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저는 아름다운 음악이나 기억할 만한 말씀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질 때 주님이 임재하심을 느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눈과 마음을 열 때 주님은 어느 곳이나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분명히 지금 '내게 아침 산책을 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경전을 읽을 수 있는 평화로운 십 분을 가져본 때가 마지막으로 언제였지? 혹은 '내가 고통이나 걱정이나 가슴앓이 없이 하루를 보낸 게 마지막으로 언제였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인생이 의무와 좌절과 낙담의 덩어리 같다고 느껴지는 때가 많다는 것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팔을 펼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늘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예전에 속



삭여 주신 평화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평화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평안과 힘을 가져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충실한 여성들로서 우리는 성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주를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일 때 성신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가 우리들 각자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사랑에 대해 증거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소망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도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행동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행동들은 구체적이고 겸손하게 진심에서 우러난 기도를 드린 후 주님의 대답을 조용하게 듣는 것, 자주 경전을 공부하고 읽은 것을 꼼꼼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꺼이 자신에 대해 반성하고자 하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임이니라(이디서 12:27)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고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영의 속삭임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고 이러한 영의 속삭임에 점점 더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

일 깨닫게 됩니다. 맥스웰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의 사소한 일들 속에서'(닐 에이 맥스웰,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Ensign*, 1996년 6월호, 19쪽) 주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깨달음이 올 때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느끼고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의 팔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04년 1월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헝클리 회장님은 교회의 여성들에게 세상의 점점 더 커져가는 악에 대항하여 강하고 확고 부동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느낄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평화와 그 평화가 가져다주는 힘에 대한 우리 자신의 경험을 기억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과 간증의 경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모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없는 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우리의 삶에 받아들일 수 없거나 받아들여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 자신의 혼란을 그대로 반영하게 됩니다. 여성들은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도 있지만 또한 강인하여야 하며 가정이 설 수 있는 단단한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듯 우리가 그들에게 평화를 속삭여 주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점점 더 사악해지는 세상에서 삶의 어려움들에 직면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빌립보서 4:7) 평화를 얻기 위해 어느 곳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니파이후서 25:26)는 것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매 여러분! 구주의 초대는 분명하고 직접적이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늘 한결 같다는 사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내 짐은 가벼우니라(마태복음 11:28~30)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속삭여 주시며 사랑의 팔로 우리를 둘러싸셨을 때를 우리 각자가 기억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한동안 그 사랑을 느껴 보지 못하셨다면 일상 생활로 돌아가셨을 때 그것을 보고 느낄 수 있기를 간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며칠,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신다면 주님과 그런 상호 작용을 한 기억들은 삶이 힘들 때 우리를 지탱해 주도록 다시, 그리고 여러 번 열어 볼 아름다운 선물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요한복음 14:27)고 약속하셨습니다. 평안. 힘. 그것은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밀고 계신 팔을 향해 돌아서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바라보고 손을 내밀며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옴

앤 시 핑그리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우리가 그분께 나아오는 것을 선택한다면, 메시아는 항상 영접하기를 갈망하며 우리에게 자비의 팔을 펼치십니다.



**미**네르바 타이커트가 그린 '붉은 성의를 걸치신 그리스도', 저도 이 아름다운 그림을 사랑합니다. 인류의 구주는 손에 못자국이 있는 팔을 내미시며 웅장하게 서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다가가려 애쓰는 여인들을 온화함과 동정심으로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저는 주를 만지기 위해 손을 내민 여인들의 상징을 참 좋아합니다. 그분이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사랑의 팔에 영원토록 감싸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주와 가까이 하고자 갈망합니다.<sup>1</sup> 그분의 손길은 영적, 정신적 또는 육체적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중재자요 모범을 보이시는 분이며, 선한 목자이며 구속주이십니다. 달리 어느

곳을 우리가 바라보겠습니까. 달리 어느 곳을 향해 우리가 손을 내밀겠습니까. 달리 어느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말입니다.<sup>2</sup>

그분은, “참으로 진실로 ... 만일 너희가 내게로 오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도다. 보라, 나의 자비의 팔이 너희를 향하여 펼쳐져 있나니, 누구든지 오는 그를 내가 영접할 터인즉 ...”<sup>3</sup>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약속은 우리에게 그분을 향해 손을 내밀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다음 단계를 밟도록, 즉 주님께 나아오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동기를 주고 힘을 북돋워 주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오는 것을 선택한다면, 메시아는 항상 영접하기를 갈망하며 우리에게 자비의 팔을 펼치십니다. “마음의 뜻을 다하여”<sup>4</sup> 구주에게로 나아올 때, 우리는 가장 개인적인 방법으로 그분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것입니다.

“한 여자”<sup>5</sup>가 그러한 선택을 했고 그분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이에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앎이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 [건강할지어다] 하시더라”<sup>6</sup>

저는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구주의 옷을 잡기 위해 감행했던 노력만큼 구주를 믿는 충분한 신앙이 없었더라면 과연 어땠을까 하고 자문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 많은 군중 속에서 그분께 가까이 다가서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인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sup>7</sup> 끝까지 해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행동으로 옮기기에 충분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스며든 주님에 대한 신앙을 실제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한 친구가 제게 아주 슬펐을 때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으로 슬픔에 잠긴 그녀가 집 밖에 나갈 수조차 없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고 없이, 한 상호부조회 자매님이 그녀의 집으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자매님이 저를 필요할까란 느낌을 받았어요.” 그분은 캐묻거나 자세히 알려 하지 않고 다만 그녀를 감싸안으며 물었습니다. “기도 하실래요?” 그들의 기도 후, 그 자매님은 돌아갑니다. 그러한 사려 깊고 세심한 배려는 친구의 아픈 마음을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애정 어린 상호부조회 자매님은 영에 귀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그 속삭임에 따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정말로, 그녀는 구원의 교리에서 발견되는 미덕에 깊이 감동되어 자신도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매일 노력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에는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음”을 잘 이해하고 있음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 인정 많은 자매님처럼, 그리스도의 “영원한”<sup>8</sup> 사랑, 즉 자애를 보여주는 수백만의 충실한 상호부조회 자매들인 여러분에게, 고든



비 힐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사심 없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고 상한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고난 당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하며 힘을 준 예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sup>9</sup>

우리 구주를 향해 나아가려는 바로 그 의지는 때때로 즉각적인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잘못을 범했거나 또는 남을 격려하지 못했거나 돕지 못했던 일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언행에 있어서 이 같은 교정의 과정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자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의 삶에 어떻게 실질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개별적인 선택들을 나타내 줍니다.

우리는 애정 어린 팔로 다른 사람들을 감싸고 구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거나 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신적인 상처나 육체적인 상처를 달래거나 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판적이기보다는 애정어린 눈길로 서로를 바라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상처 입힌 사람들을 용서하는 고된 영적인 노력을 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인 관계에서 자신의 실수와 소홀함을 깨달았을 때 재빨리 고치거나 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저 또한 꼭 고쳐야 할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같은 와드 자매님에게 상처

를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만 솔직히 자존심 때문에 그분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족, 다른 임무 등등의 이유를 찾아 회개하는 것을 미루었습니다. 저는 일이 저절로 해결되리라 확신했지만 일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아닌 며칠 밤을 정적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이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으며 잠에서 깬습니다. 제가 옳게 행동한다면, 그분의 자비의 팔이 진실로 저를 향해 펼쳐진다는 저의 믿음대로 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힘과 용기를 간구했고 제 자신을 낮추고 자매님 덕으로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 그분의 사랑의 팔에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이것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여성 단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는 “여성들의 조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조직은 결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arah M. Kimball, “Early Relief Society Reminiscences,” Mar. 17, 1882, Relief Society Record, 1880~1892, Archives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30)

현재 상호부조회의 회원 수는 대략 500만 명이 넘습니다. 상호부조회는 많은 나라에 조직되어 있고, 많은 언어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온갖 계층의 교회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여성들 가운데는 젊은 독신 여성,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여성,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한 여성, 남편과 가족이 있는 여성, 나이가 많은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 중 많은 분들이 영원한 동반자를 떠나 보낸 분들입니다.

우리 종교에 속해 있지 않은 한 친구가 “후기 성도(LDS)는 사랑(Love), 헌신(Devotion), 봉사(Service)를 나타내지?”라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상호부조회는 실로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에 관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부조회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훌륭한 여성들이 서로에게 주는 사랑을 목격하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들은 우정과 서로에 대한 존경을 지니고 사랑의 띠 안에서 함께 어울립니다. 이 조직은 많은 여성들이 다정한 관계를 맺는 실제로 유일한 자원입니다.

비탄과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손을 내미는 것은 여성들의 자연적인 본능입니

때때로 잘못을 바로잡는 개인적인 과정은, 우리가 교회 모임 후 출구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다가 이야기가 길어질 것을 알면서도 외로운 자매님께 인사 드리기 위해 입구 쪽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것과 같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종종 그것은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에도 배려 없이 행동하는 가족에 대한 우리의 불만을 계속해서 극복해야 하는 만큼 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결정적인 회개의 순간들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과정은 어김없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sup>10</sup>

그분이 “그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자비의 팔을 펼”<sup>11</sup>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구하기 위해, 우리도 미네르바 타이커트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작품 속에 있는 여인들처럼 구주를 향해 갈망과 숭배의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영화로운 약속이 참되기에, 달리 어느 곳을 우리가 바라보겠습니까. 달리 어느 곳을 향해 우리가 손을 내밀겠습니까. 달리 어느 곳으로 우리가 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오, 세상의 빛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메시아 외에 말입니다.

저는 혈루병을 가진 한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해서도 “의의 아들이 그 날개에 치료함을 가지고 떠오르리”<sup>12</sup>라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모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로 나아가도록 선택한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매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니파이후서 1:15.
2. 히브리서 12:2.
3. 제3니파이 9:13~14.
4. 제3니파이 10:6.
5. 마가복음 5:25.
6. 누가복음 8:43~48.
7. 야고보서 1:6.
8. 모로나이서 8:17.
9. “물론은 “더욱 훌륭한”을 의미해야 함”, 성도의 빛, 1991년 1월호, 64쪽.
10. 히브리서 12:11.
11. 모사야서 29:20.
12. 제3니파이 25:2, 말라기 4:2.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 훌륭한 상호부조회 총회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너무 엄청난 기회가 제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큰 신앙과 능력을 지닌 여성들이 전하는 훌륭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상호부조회 회장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그분들이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면에서 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물문경의 니파이후서에서 선택한 주제, “[주님]의 사랑의 팔에 영원토록 둘러싸였느니라.”(니파이후서 1:15 참조)라는 주제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상호부조회의 여성들은 문자 그대로 우리 주님의 팔에 영원토록 둘러싸여 있습니다.

제 판단에 이것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여성 단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1842년에 상호부조회를 조직했을 때 그는 선지자로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당시에



다. 교회의 복지 프로그램은 신권을 기반으로 설명되어 있지만, 상호부조회가 없으면 그 기능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상호부조회는 교육을 나타냅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의 모든 교육을 받는 것이 이 교회의 모든 여성들의 책무입니다. 교육은 여성의 삶을 넓혀주고,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갖게 해줄 것입니다.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귀중한 기술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지난 주에 저는 혼자된 한 어머니에게서 편지를 받았는데, 그 일부를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1996년 10월 대회에서 우리 가족에 대해 언급한 이후로 10년이 지났습니다. … 회장님께서 저를 비롯한 혼자된 다른 자매들에게 주신 권고와 격려의 말씀은 일상의 생활 수칙으로 사용되는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 왔습니다. 제 신조와 좌우명이 된 표현은 …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이며, 제 아들과 저는 그 말을 정말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 빛이 다 고등학교와 세미나리를 졸업했습니다. 두 아들은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우리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두 일하고 있으며 또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참되고 충실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과거 여러 해 동안

자립해 왔다는 것을 알고 나니 느낌이 좋습니다. … 우리의 두 발로 다시 한 번 일어서고 가족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을 때, 거기에는 분명 성취감이 있습니다. …

“저는 또한 대학으로 다시 가라는 격려를 받았습니 다. 낮에는 직장에서 온 종일 일하고 밤에는 수업에 참석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저의 시각을 넓혀주었으며, 제가 보다 나은 사람이 되게 도와 주었습니다. 제 가족, 와드 회원들, 직장 동료들이 많이 도와 주었으며, 저는 이번 12월에 졸업합니다.

“저의 축복사의 축복을 깊이 생각하고 그 축복에 관해 금식과 기도를 하면서, 저는 인생에서 현실적인 목표들을 몇 가지 세울 수 있었는데, 그것들은 제가 복음의 원리들을 지니고 길을 걷게 해주는 지도같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저는 모임에 참석하고, 매일 기도하고, 십일조를 냈습니다. 저는 … 방문 교사로서 저의 부름을 아주 진지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교회는 참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합당하고 축복 받은 회원의 하나로 헤아려지는 것은 명예이며 특권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감에 의해 인도 받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회장님께서 주신 친절한 격려의 말씀에, 그리고 주님의 종들을 통해 그분으로부터 오는 계속적인 영감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제 인생은 그분의 교회에서 회원이 됨으로써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상호부조회는 자립을 나타냅니다. 가장 좋은 식품 저장소는 복지 곡물 엘리베이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원들의 가정에 있는 밀봉된 통조림과 병에 있습니다. 복지 책임을 자신의 손으로 손수 실천하는 여성들의 침대 아래 또는 식품 보관 방에 있는 밀과 쌀과 콩 통조림을 보는 것은 얼마나 흡족한 일입니까! 그런 식품은 맛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사용해야 할 때 영양가는 충분할 것입니다.

상호부조회는 희생을 나타냅니다. 저는 앤 캠벨이 자신의 자녀를 위해 쓴 이 단순한 시에 항상 감동합니다.

“너는 내가 가지 않았던 여행

너는 내가 살 수 없는 진주

너는 나의 파란 이탈리아 호수

너는 나의 생소한 하늘 한 조각”

(“To My Child,” quoted in Charles L.

Wallis, ed., *The Treasure Chest*,

[1965], 54쪽)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머리 색이 희어질 때, 여러분은 자신이 한 때 입었던 멋진 옷이나 몰랐던 차나 살았던 커다란 집에 관해 묻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은 “내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했는가?”일 것입니다.

그들이 잘 성장했다면, 여러분은 감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을 위한 작은 위안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디에선가 이렇게 적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어머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인간의 전력을 기울여 온 모든 승리와 패배가 종결될 때, 인생의 싸움에 일된 먼지들이 가리웠기 시작할 때, 정복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던 모든 대상이



우리 눈 앞에서 쇠약해질 때, 새로운 세대를 위한 힘, 곧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으로서 여러분은 그곳에 있게 될 것이고, 반드시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One Bright Shining Hope*, [2006년], 18쪽)

오래 전에 솔트레이크 테버내클에서 매리온 디 행스 장로가 배심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 토론자들 중에는 매력적이고 능력 있는 젊은 여성으로 이혼을 했고, 일곱 살에서 열 여섯 살에 이르는 일곱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저녁 시간에 이웃에게 어떤 것을 전하기 위해 길을 건넜습니다. 기억 나는 대로 그녀의 말을 전할 테니 들어보십시오.

“집으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렸을 때, 저는 불이 켜진 우리 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몇 분 일찍 문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을 때, 저는 자녀들의 메아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녁에 뭘 먹을 거예요?’ ‘저를 도서관에 태워 주실 수 있어요?’ ‘오늘 밤 포스터 종이 몇 장을 준비해야 돼요.’ 지치고 피곤했던 저는 그 집을 바라보며 각 방에 켜진 등불을 보았습니다. 제가 와서 자신들의 필요 사항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며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자녀들을 모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제 짐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을 향해 눈물을 글썽이며 제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밤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집으로 가서 저 혼자 아이들을 모두 돌볼 수가 없어요. 아버님께 가서 딱 하룻밤만 같이 머물 수 없을까요? 아침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대답을 실제로 듣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란다, 얘야. 지금은 내게로 올 수 없단다. 오게 되면 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네게로 갈 수는 있지.’”

이 젊은 어머니와 같이 외로움과 절망 속에 처해 있었지만 다행히도 자신을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는 주님을 믿는 신앙을 충분히 지녔던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상호부조회는 신앙을 뜻합니다. 그것은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십일조를 내는 것과 같은 일을 뜻합니다.

칠십인 정원회의 린 로빈스 장로는 파나마

의 한 스테이크 회장님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최근에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해서 결혼하고 싶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행복했지만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러다가 먹을 것과 돈이 다 떨어지는 특별히 어려운 때가 찾아왔습니다. 토요일이었고 그들의 찬장은 문자 그대로 텅 비었습니다. 레니는 사랑하는 젊은 아내가 굶주리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십일조로 낼 돈을 사용하여 음식을 사는 것밖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가 집을 떠나려 할 때 아내가 그를 막고는 어디로 가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음식을 사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돈이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고 그는 십일조로 낼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것은 주님의 돈이에요. 그 돈을 써서 음식을 사서는 안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신앙이 남편의 것보다 강했습니다. 그는 돈을 다시 갖다 놓고, 그날 밤 그들은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아침 식사를 거르고, 교회 금식 모임으로 갔습니다. 레니는 감독에



게 십일조를 드렸지만, 자존심이 센 그는 자신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감독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임 후에 그와 아내는 예배당을 떠나 집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았을 때 새로운 회원이 집에서 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은 어부였고, 자신이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물고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위해 작은 물고기 다섯 마리를 신문지에 싸고, 두 사람은 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집으로 걷고 있을 때, 다른 회원이 그들을 멈추게 하고는 옥수수 빵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그들을 세우고는 쌀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회원이 그들을 보고는 콩을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두 주 분량의 충분한 음식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물고기 포장을 열어 보았을 때, 커다란 물고기 두 마리를 발견하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들이 보았다고 생각했던 조그만 물고기 다섯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토막 내어 이웃집의 냉장고에 보관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로 결코 굶주린 적이 없었다고 거듭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상호부조회가 나타내는 이 모든 훌륭한 특성들은 “주님의 사랑

의 팔에 영원토록 둘러싸였느니라.”라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결론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등 시민이 아님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신성한 창조물입니다. 남성은 신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다르지만 지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은 좌절될 것이고 진정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회원 수의 50퍼센트이며, 다른 50퍼센트 사람들의 어머니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경솔하게 밀어 낼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저는 사랑하는 친구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헬렌이며, 그녀의 남편 이름은 찰리입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적어 보았습니다.

“오늘 찰리와 저는 성찬식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아이다호폴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리스 대학에 갈 계획을 했을 때 회장님께서 제게 주었던 조언을 말씀 중에 언급했습니다. 회장님은 제가 하와이의 교회 대학으로 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곳에서 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 중국인 조상을 둔 한 젊은이를 만나 결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조언을 받아들였고, 하와이 교회 대학으로 가서 찰리를 만나 그와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37년을 살았고 다섯 자녀를 두었습니다. 다섯 자녀들 모두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자녀들 중 셋이 하와이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독신인 자녀가 둘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이 성전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곧 찾기를 바랍니다. 귀여운 손자녀가 여섯이 있고, 두 명이 곧 태어날 예정입니다.

“저는 축복을 받아 충실한 남편을 만났는데, 그는 자신의 신권을 존중하고, 또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 선교부 회장으로 주를 섬기는데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모든 교회 임무 지명에서 그를 지지하는 것은 제 특권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오 년 동안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했습니다.

“지금 저는 많은 축복들을 세어 보면서, 회장님께서 제 인생에 끼친 큰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권고에 따랐다는 점을 회장님께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로 인해 제 인생은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다. 제가 홍콩을 떠나 미국으로 왔을 때 시간을 내주셔서 저의 발전을 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상호부조회가 여성들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상호부조회는 그들에게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를 주며, 자신들의 집에서 여왕의 자리에 있게 해 주며, 재능을 행사하면서 성장할 장소와 지위를 줍니다. 상호부조회는 가족 생활에서의 자부심과 방향을 주며, 훌륭하고 영원한 동반자와 자녀들에 대해 감사하게 합니다.

상호부조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조직입니까! 온 세상에서 이 조직과 비견되는 것은 없습니다.

훌륭한 상호부조회의 활동에 따르는 이러한 놀라운 특성들을 지니도록 주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드립니다. 아멘. ■

##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 멜

기세택 신권 및 상호부조회의 넷째 주 일요일 공과에

대한 다음의 유의 사항은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들을 위한 교과 과정 유의 사항, 2005~2008년에 나오는 유의 사항을 대체합니다.

매달 멜기세택 신권 및 상호부조회의 넷째 주 일요일 모임에서는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을 공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공과는 모두 가장 최근의 연차 대회 리아호나 특집호에 실린 말씀 중에서 가르칩니다. 연차 대회 특집호는 각각 5월과

11월에 발행됩니다. 또한 인터넷 [www.lds.org](http://www.lds.org)에서도 온라인으로(여러 언어로 된)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의 말씀을 사용하여 각 공과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 또는 지방부 회장은 어떤 말씀을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하거나 또는 그 책임을 감독이나 지부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들 신권 지도자들은 멜기세택 신권의 형제들과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해당 일요일에 동일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교사들은 특별히 강조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넷째 주 일요일 공과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가장 최근의 연차 대회 특집호를 공부한 후 공과 시간에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드 및 지부 지도자들은 모든 회원들이 교회 잡지를 구독하도록 해야 합니다.

#### 말씀을 활용한 공과 준비 제안

- 말씀(들)을 공부하고 가르칠 때 성령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때로는 연차 대회 말씀을 제쳐 놓고 다른 자료를 사용하여 공과를 준비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대회 말씀은 승인된 교과 과정이다. 여러분의 임무는 교회의 가장 최근 연차 대회에서 배운 내용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배우고 그에 따라 살도록 돕는 것이다.
- 말씀을 공부하면서 회원들의 필요 사항에 부합하는 원리 및 교리를 찾아 본다. 또한 여러분이 원리 및 교리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이야기, 참조 성구 및 문구들을 말씀에서 찾아본다.
- 원리 및 교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교안을 만든다.

교안에는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에서 원리 및 교리를 찾는다.

- 원리 및 교리들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원리 및 교리들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 생각, 경험 및 간증들을 나눈다

- 이러한 원리 및 교리들을 생활에 적용한다.

-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31~32장을 살펴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들이 영의 영향을 받아 복음에 대한 이해력이 향상되고 복음 원리를 자신들의 생활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며 복음대로 생활해야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는 것이다.”(교수법 지도서(2001년), 12쪽)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에 대한 의견을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urriculum Developmen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Roo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이메일: [cur-development@ldschurch.org](mailto:cur-development@ldschurch.org) ■



#### 월 넷째 주 일요일 공과 자료

2006년 11월 ~ 2007년 4월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에 실린 말씀*
2007년 5월 ~ 2007년 10월	리아호나 2007년 5월호에 실린 말씀*

\*이 말씀들은 인터넷 [www.lds.org](http://www.lds.org)에서 온라인으로(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연차 대회를 우리 삶의 일부로 삼음



**다** 음 제언은 개인 학습 또는 가정의 밤 토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괄호 안의 숫자는 말씀의 첫 페이지를 나타낸다.) 이야기 목록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다.

## 어린이

### 말씀을 찾음

1. 빈 칸을 채운다. “저는 부활이 \_\_\_\_\_ 이(가) 아님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힌트: 28쪽에 있는 조셉 비 워스린 장로의 말씀을 찾아본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부활에 대한 간증이 여러분이 매일 생활하는 방법을 어

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2.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의 말씀에서 도보 여행자는 연차 대회 시간이 되었을 때 무엇을 했는가? (힌트: 104쪽에서 시작되는 말씀) 연차 대회 시간이 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3.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례하게 대할 때, 물몬경에 있는 페이호랜처럼 우리는 무례할 필요가 없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대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해야 하는가? (힌트: 89쪽에 있는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의 말씀을 찾아본다.)

## 활동

1.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은 제자가 되는 것이 구주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쳤다. 그는 이렇게 말씀했다. “제자가 되는 것의 축복은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려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즉시 옵니다.” 종이 한 장을 반으로 접는다. 한 쪽에

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여러분이 “치려야” 하는 것들, 즉 경전 공부, 교회 참석, 진리를 말하는 것, 친절하게 되는 것 등을 적는다. 다른 쪽에는 그리스도를 따를 때 오는 축복들, 즉 기쁨, 평화, 보호, 인도, 영원한 가족 관계 등을 적는다. 옳은 것과 그른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축복 목록과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기억한다.

2. 일레인 에스 돌튼 자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귀한 상속권을 지닌 청소년 여러분, 영원의 창을 들여다보십시오! 주의 거룩한 성전 안에 있는 자신을 보십시오. 합당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보십시오. 미래의 여러 세대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전 가까이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거나, 매일 보는 거울에 성전 사진을 붙인다. 의로운 목표, 그리고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해 어떻게 합당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매일 자신에게 상기시킨다.

## 청소년

1. 여러분의 반 또는 정원회 회원 가운데 힘



들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들을 돕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에 대해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과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가 말한 내용을 읽는다. (56쪽 및 43쪽)

2. 숙소의 수전에 대한 리차드 시 에즐리 감독의 이야기를 읽는다. (72쪽) 여러분은 자신의 경험에서 정직에 대한 어떤 예를 나눌 수 있는가? 다

## 읽고, 함께 나누는 이야기

아래 열거된 페이지에서 시작되는 대화 말씀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와 영감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아버지와 아들이 새벽 5시에 볼링을 하러 감, 9쪽
-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아들에 대해 인내함, 15쪽
- 라파엘 몬로이와 빈센테 모랄레스의 순교, 20쪽
- 한 집사가 다른 집사를 위해 신권회 공과를 필기함, 43쪽
- 한 아버지가 아내를 위해 다리미질 기계를 사려고 희생을 함, 46쪽
- 마커스 비 내쉬가 물고기를 잡음, 49쪽
- 소년이 다이빙 보드에서 떨어진 후 축복을 받음, 51쪽
- 제사가 모은 식품을 홀로 된 한 어머니에게 줌, 53쪽
- 소년이 자신의 의무를 행하는 동안 왕의 에메랄드를 찾음, 56쪽
- 토마스 에스 몬슨이 병원에 입원한 친구를 방문하여 축복함, 56쪽
- 청녀들이 제이미 팔머를 하이킹에 데려감, 56쪽
- 웨이트리스가 트럭 운전자와 복음에 관해 이야기함, 69쪽
- 리차드 시 에즐리가 자신이 가져온 수건 세 장을 돌려줌, 72쪽
- 부유한 남자가 신문 판매기에서 신문을 빼 냄, 72쪽
- 마서 팩스만이 잃어버린 결혼 반지를 찾음, 82쪽
- 손수레 부대가 평원에서 구조됨, 82쪽
- 개척자 지도자들이 열국에 기를 뒀, 85쪽.
- 한 남성이 눈 먼 농부를 도우라는 영감을 받음, 97쪽
- 한 여성이 친구들과 하이킹을 가서 연차 대화를 들음, 104쪽
- 젊은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지 않다고 느낌, 108쪽
- 한 여성이 슬픔에 빠진 상호부조회 자매를 방문하라는 느낌을 받음, 113쪽
- 앤 시 핑그리가 자신이 기분을 상하게 했던 사람의 용서를 구함, 113쪽
- 일곱 자녀를 둔 홀로 된 어머니가 밤에 실 수 있기를 기도함, 115쪽
- 젊은 부부가 십일조를 내고도 굶주리지 않게 됨, 115쪽



말씀에 있는 미끼 뒤에 있는 “갈고리”에 관해 읽는다.

### 성인

1.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왜 다음 세대가 개척자들을 기억하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우리는 “유산”, 즉 초기 후기 성도들이 치른 충실한 희생을 어떻게 기릴 수 있는가? 그들이 시작했던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82쪽)

2. 속죄에 대한 조셉 비 워스린 장로와 그의 아내의 이해는 어떤 방법으로 그들의 생활 방식에 영향을 주었는가? (28쪽) 그러한 이해는 워스린 장로의 아내가 사망한 후 워스린 장로를 어떻게 위로해 주었는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과 워스린 장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고려해 본다.

3. 오토바이를 쓰러뜨렸던 소년에 대해 로버트 시 옥스가 들려 준 이야기를 읽는다. (15쪽) 소년의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더욱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가? 인내심을 더 가지기 위한 옥스 장로의 네 가지 제언은 무엇인가? ■



갈고리 사진, 컬러 레터타: 불명공과 편의 사진 © 포토스핀

른 사람들을 대할 때 정직하겠다고 지금 결심한다.

3. 여러분이 “제가 여기 있으니, 이제 제게 영감을 주세요”라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자문해 본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말씀과 공과에서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에 대해 에이 로저 메릴 본부 주일

학교 회장의 말씀을 살펴본다. (92쪽)

4. “행복하고 복음에 중심을 둔 생활”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야 하는 악행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49쪽의 마커스 비 내쉬 장로

# 아론 신권 및 청녀 참고 지도서

**다** 음 참고 자료들은 아론 신권 제2과장과 청녀 교재 2에 있는 공과들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대체 공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참고 자료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아론 신권: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지도서를 말한다. 개인 발전은 **청녀 개인 발전 기록부** 책자를 말한다. 지도서에 열거된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개인 발전** 활동의 일부를 공과 시간에 활용하거나 가정에서 달성하도록 정월회 회원 또는 반원들을 격려한다. 공과 추가 제언들은 **리아호나 1** 쪽과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에서 찾을 수 있다**.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공과를 가르친다. 교재에는 부활절 특별 공과가 들어 있지 않다. 부활절 특별 공과를 가르치고 싶다면, 구주의 생애와 사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성구, 대화 말씀, 교회 잡지 기사, 그림 및 찬송가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참고 지도서를 찾으려면 [www.lds.org](http://www.lds.org)로 가서 세계 지도 아이콘을 클릭한 뒤 언어를 선택한다. "Liahona"를 클릭한 후, 2006년 11월호를 클릭한다. 영문 참고 지도서들은 [www.lds.org](http://www.lds.org) 상에서 "Gospel Library"를 클릭하면 찾을 수 있다. 화면 오른쪽 칼럼에서 대부분의 현행 참고 지도서를 찾아볼 수 있다.

향후 참고 지도서는 **리아호나 5**월호 및 11월호에 인쇄될 예정이다. 교회 잡지(일부 언어는 인터넷 [www.lds.org](http://www.lds.org)에서 찾을 수 있다).

## 청녀 교재 1을 위한 참고 지도서

2007년에 사용, 제1~25과

### 제1과: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

고든 비 힝클리, "저는 이 세 분을 믿습니다", **리아호나**, 2006년 7월호, 2쪽. 기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을 활용하여 "모든 청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함"을 보충한다.

다이어 에프 우흐트도르프,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우리를 들어올려 주는 힘",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100쪽. 기사에 있는 마지막 세 단락을 활용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에 관한 토론을 끝맺는다.

키스 비 맥멀린, "예수님 생각하오니",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33쪽. "청녀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 구세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 편을 보충하기 위해 활용한다.

개인 발전, "신앙 가치관 경험", 5번.

### 제2과: 영적인 은사

줄리 비 벡, "쏟아지는 축복",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11쪽. 병고침의 은사의 예로서 활용한다.

개인 발전, "개인적인 가치 가치관 경험", 7번.

### 제3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함

스티븐 비 오브슨 장로와 디시 랜들 오브슨, "개인적인 헌납", **리아호나**, 2005년 9월호, 16쪽. "희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됨" 편에서 기사를 활용한다.

캐서린 에이치 휴즈, "우리 모두 천국에 함께 앓을 수 있도록",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110쪽. 기사에 있는 예를 활용하여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방법들을 보여 준다.

### 제4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신성한 사명을 완수하게 함

고든 비 힝클리, "어떻게 하면 내가 꿈꾸는 그런 여성이 될 수 있을까?",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112쪽. 신성한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공과에 걸쳐 활용한다.

제프리 알 홀런드, "청녀들에게",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28쪽.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성이 되는 방법에 관한 홀런드 장로의 권고를 활용하여 계명에 순종하는 것에 관한 편을 강화한다.

일레인 에스 돌튼, "힘차게 나아가고 굳건해짐",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105쪽. 기사에 있는 이야기들을 활용하여 신성한 역할을 성취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개인 발전, "신성한 성품 가치관 경험", 2번.

### 제5과: 가정 환경

수잔 더블류 태너, "장차 어머니가

될 청녀들을 강화함", **리아호나**, 2005년 6월호, 16쪽. 다섯 가지 핵심 사항을 포함시켜 청녀들이 자신의 가정 환경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줄리 비 벡, "모성",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75쪽. 어머니의 역할에 관한 토론에서 활용한다.

개인 발전, "신성한 성품 가치관 경험", 3번.

### 제6과: 가사 분담

엘 톰 페리,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약속한 책임", **리아호나**, 2006년 6월호, 56쪽. 공과를 시작할 때 "가족을 참여시킴"이라는 제목이 붙은 부분을 활용한다.

개인 발전, "신행 가치관 경험", 1번.

### 제7과: 사랑과 조화를 이루며 생활함

수잔 더블류 태너, "내가 말했었니...?",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73쪽. 기사를 활용하여 공과를 소개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개인 발전, "개인적인 가치 가치관 경험", 3번.

### 제8과: 화술을 발전시킴

"질 의 응답", **리아호나**, 2004년 2월호, 30쪽. 기사의 처음 부분에 있는 제언들을 공과에 있는 "우리는 가정에서의 대화를 향상시킬 수 있음" 편에서 활용한다.

개인 발전, "청소년의 힘을 위한 표준: 언어"

### 제9과: 가정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청녀

수잔 더블류 태너, "나는 너희가 지켜 들 빛이니",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103쪽. 탈루카의 이야기를 공과에 있는 이야기 대신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개인 발전, "신성한 성품 가치관 경험", 7번.

### 제10과: 신권: 위대한 축복

제임스 이 파우스트, "만유의 회복",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61쪽. 공과를 시작할 때 활용한다.

줄리 비 벡, "쏟아지는 축복",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11쪽. 신권을 통해 받았던 축복들을 열거할 때 활용한다.

### 제11과: 감독에게 감사함

고든 비 힝클리, "이스라엘의 목자들",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60쪽. 첫 번째 인용문을 감독에 관한 힝클리 회장의 설명으로 대체한다.

### 제12과: 가장의 축복

엘 톰 페리, "아버지, 영원한 부름",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69쪽. 기사에 있는 "아버지의 역할" 편을 "가장은 신권을 통해 자녀에게 축복을 줄 수 있음" 편에서 토론한다.

메릴 제이 베이트먼, "신권, 열쇠와 축복의 권세",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50쪽. 학교에 관한 베이트먼 장로의 이야기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 제13과: 축복사의 축복

줄리 비 벡, "여러분에게는 고귀한 장자의 명분이 있습니다",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106쪽. 축복사의 축복에 관한 백 재제의 권고를 소리 내어 읽는 인용문에 포함시킨다.

"축복사의 축복에 대하여", **리아호나**, 2004년 3월호, 18쪽. 기사에 있는 대답들을 활용하여 축복사의 축복에 관한 청녀들의 질문에 답한다.

개인 발전, "개인적인 가치 가치관 경험", 6번.

### 제14과: 성전의 축복

러셀 엠 벨슨, "젊은이들과 성전", **리아호나**, 2006년 2월호, 10쪽. 기사에 있는 "지속되는 계서" 편을 갖고 계서에 관한 토론을 강화한다.

개인 발전, "고결성 가치관 경험", 1번.

### 제15과: 성전 결혼

고든 비 힝클리, "영원히 지속되는 결혼", **리아호나**, 2003년 7월호, 2쪽. 기사에 있는 "합당한 결혼과 합당한 생활" 편으로 리그랜드 리차즈의 이야기를 대체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로버트 디 헤일즈, "하늘의 결혼을 위해 준비함", **리아호나**, 2006년 2월호, 16쪽. 영원한 진로를 정하는 것에 관한 헤일즈 장로의 권고를 결론에 포함시킨다.

### 제16과: 일지

고든 비 힝클리,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81쪽. 공과에 있는 일지에 대한 예언적 권고에 관한 편에서 힝클리 회장의 일지 내용의 일부를 나눈다.

### 제17과: 가족 역사 기록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자신의 존재에

관한 훌륭한 것들”,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53쪽. 첫째 편에서 가족 역사의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파우스트 회장의 이야기들을 들려 준다.

보이드 케이 패커, “여러분의 가족 역사: 일을 시작함”, *리아호나*, 2003년 8월호, 12쪽. 기사에 있는 “시작하는 방법” 편을 “가족 기록은 가계도와 가족 기록서로 시작됨”에 대한 보충 자료로서 활용한다.

헨리 비 아이어링, “하나로 묶인 마음들”,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77쪽. 기사를 활용하여 공과에 있는 “우리는 조상의 사슬을 연결하는 고리가 될 수 있음” 편을 소개한다.

개인 발전, “개인적인 가치 가치관 경험”, 5번.

### 제18과: 의로운 전통의 유산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46쪽.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이야기를 김볼 회장의 이야기에 더한다.

에이지 로스 워크맨, “죄의 사슬을 끊음”, *리아호나*, 2006년 7월호, 36쪽. 자유 대 속박에 관한 워크맨 장로의 설명을 공과에 있는 “의로운 전통과 세속적인 전통의 구별” 편에서 활용한다.

### 제19과: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준비함

엠 러셀 벨라드, “복음을 나누는 가정을 만듦”,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84쪽. 기사의 제언을 공과에 있는 “우리는 복음을 가르치는데 도움을 주는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음” 편에서 나누는 것을 고려해 본다.

엠 러셀 벨라드, “한 사람만 더”,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69쪽. 공과 소개에 있는 역할 담당극 뒤에 기사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 요망 사항을 포함시킨다.

새나 버틀러, 아담 시 울슨, 로저 테리,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라”, *리아호나*, 2005년 9월호, 10쪽. 기사의 “준비, 준비, 준비” 편에 있는 제언들을 활용하여 공과 적용을 강화한다.

### 제20과: 복음 전도

토마스 에스 몬슨, “선지자 조셉 스미스: 모범으로 가르친 교사”,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67쪽. 성품에 관한 몬슨 회장의 원리를 활용하여 선교 사업에서의 모범의 중요성에 관한 토론을 강화한다.

델린 에이치 옥스, “복음을 나눔”,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7쪽. 기사에 있는 “실행 방법” 편을 활용하여 한 청년이 어떻게 복음을 나눌 준비를 하는지에 관한 토론을 강화한다.

개인 발전, “선행 가치관 경험”, 7번.

### 제21과: 편지를 통하여 선교사들을 지지함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선교사가 됨”,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44쪽. 선교사의 책임에 관해 토론하면서 기사에서 적절한 부분을 활용한다.

### 제22과: 주님과 의논함

조셉 비 위스린, “우리의 기도를 향상시킴”, *리아호나*, 2004년 8월호, 16쪽. 기사에 있는 “기도의 유행” 편을 기도에 관한 토론에서 활용한다.

개인 발전, “신앙 가치관 경험”, 1번.

### 제23과: 금식은 축복을 가져다 줌

조셉 비 위스린, “금식의 법”,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88쪽. 기사를 활용하여 금식에 관한 청년들의 대답을 보충한다.

로널드 티 할버슨,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리아호나*, 2004년 8월호, 42쪽. 매튜 카울리의 이야기 대신에 이 이야기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개인 발전, “고결성 가치관 경험”, 6번.

### 제24과: 일상 생활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영을 구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성령과의 교통”, *리아호나*, 2002년 3월호, 2쪽.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방법에 관한

파우스트 회장의 설명을 둘째 편에서 활용한다.

델린 에이치 옥스, “계시가 있는 8가지 이유”, *리아호나*, 2004년 9월호, 8쪽. 여덟 가지 이유를 공과의 결론으로 활용한다.

### 제25과: 희생의 율법

엠 러셀 벨라드, “희생의 법”, *리아호나*, 2002년 3월호, 10쪽. 기사를 활용하여 공과의 첫째 부분을 보충한다.

고원용, “희생은 곧 기쁨이자 축복입니다”,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92쪽. 희생이 어떻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지에 관한 예로서 결론부에서 활용한다.

## 아론 신권 제2과정을 위한 참고 지도서

2007년에 사용, 제1~25과

### 제1과: 나는 누구인가?

제임스 이 파우스트,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리아호나*, 2001년 6월호, 2쪽. 기사를 활용하여 공과의 적절한 부분들을 보충한다.

조셉 비 위스린, “성장하여 신권의 책임을 감당함”,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45쪽.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는 방법에 관한 토론에 활용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제사)*, “교육, 개인 및 직업에 관한 발전”, 7번.

### 제2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알

고든 비 힝클리, “영감을 주는 생각”,

*리아호나*, 2006년 3월호, 2쪽. “하나님을 믿음” 편을 활용하여 공과를 소개한다. “고귀한 신권”과 “충실하고 진실하십시오”를 신권의 책임들에 관한 편에서 활용한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리아호나*, 1999년 2월호, 2쪽. 공과에 걸쳐 보충 자료로서 활용한다.

일레인 에스 돌튼, “그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109쪽. 이름으로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편을 보충하기 위해 활용한다.

### 제3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든 비 힝클리, “저는 이 세 분을 믿습니다”, *리아호나*, 2006년 7월호, 2쪽. 공과의 처음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함”을 보충하기 위해 활용한다.

일 시 텅기, “위대한 행복의 계획”,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72쪽. 속죄를 설명하기 위해 활용한다.

“동산에서 빈 무덤까지”, *리아호나*, 2006년 4월호, 8쪽. 속죄에 관한 토론을 보충하기 위해 활용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제사)*, “영적인 발전”, 1번 및 2번.

### 제4과: 성신의 동반

조셉 비 위스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사”,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26쪽. 성신의 은사 및 그것이 어떻게 가능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활용한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28쪽. 공과에 걸쳐 보충 자료로서 활용한다.

칼로스 이 에이지, “성신의 동반하심, 성도의 벗, 1988년 8월호, 34쪽. 에이지 장로의 제언을 활용하여 우리가 영을 지니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설명한다.

#### 제5과: 선택의지

로버트 디 헤일즈, “스스로 행함: 선택의지의 은사와 축복”,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4쪽. 공과를 시작할 때 활용하여 선택의지를 설명한다.

볼프강 에이지 폴, “선택의지의 은사”,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34쪽. 공과에 걸쳐 보충 자료로서 활용한다.

“너를 얽어 매지 않도록 하라”, *리아호나*, 2003년 2월호, 33쪽.

#### 제6과: 그리스도인의 봉사

고든 비 힝클리, “보다 큰 친절의 필요성”,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58쪽. 친절에 관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예를 활용하여 공과를 보충한다.

조셉 비 위스린, “친절의 미덕”,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26쪽. 친절에 관한 위스린 장로의 예들을

공과를 시작할 때 활용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교사)*, “시민으로서의 발전과 사회적 발전”, 3번; (제사), “영적인 발전”, 9번.

#### 제7과: 가족의 영원한 중요성

토마스 에스 몬슨, “가장 훌륭한 자신이 됨”, *리아호나*, 2006년 4월호, 2쪽. 반원들이 가족으로부터 배운 것을 토론할 때, “가족이 나아갈 길을 선택함”이라는 제목이 붙은 편을 읽는다.

엠 러셀 벨라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것임”,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41쪽. 공과 소개를 보충하기 위해 활용한다.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46쪽. 래스번드 장로와 그의 가족이 영국의 프레스턴에서 했던 영적인 경험으로 공과를 시작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집사)*, “시민으로서의 발전과 사회적 발전”, 4번

#### 제8과: 영성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독수리 날개 위에”, *리아호나*, 2006년 7월호,

14쪽. 기사에 있는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배운다” 편을 활용하여 이야기 및 토론을 보충한다.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림”, *리아호나*, 2006년 7월호, 30쪽. 공과에 걸쳐 보충 자료로서 활용한다.

#### 제9과: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보이드 케이 패커, “내가 다시는 너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25쪽. 엘마와 코리엔톤에 관해 토론할 때 보충 자료로서 활용한다.

제프리 알 홀런드, “고쳐야 하는 부서진 것들”,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69쪽.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방법에 관한 홀런드 장로의 둘째 요점을 활용하여 회개를 소개한다.

리차드 지 힝클리, “회개, 회원됨의 축복”,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48쪽. 공과에 있는 이야기 대신에 구도자의 회개 이야기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 제10과: 경전 공부

엘 톰 페리, “몰몬경을 읽음으로써 오는 축복”,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6쪽. 니파이, 리하이, 낫쉬판에 관한 토론을 보충하기 위해 활용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집사, 교사, 제사)*, “가족 활동”, 1번.

#### 제11과: 사탄과 그의 유혹

제임스 이 파우스트, “영의 음성”, *리아호나*, 2006년 6월호, 2쪽. 사탄에 저항하는 방법을 토론할 때 “의로운 음성을 들음” 편을 활용한다.

델린 에이지 옥스, “속지 마십시오”,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43쪽. “사탄의 사업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임”을 토론할 때, 사탄의 속이는 방법에 관한 옥스 장로의 설명을 활용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교사)*, “영적인 발전”, 5번.

#### 제12과: 기도

조셉 비 위스린, “우리의 기도를 향상시킴”, *리아호나*, 2004년 8월호, 16쪽. 처음에 있는 이야기 대신에 “기도의 유형”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집사, 교사, 제사)*, “신권 의무와 표준”, 3번.

#### 제13과: 금식

칼 비 프랫, “올바른 금식에서 오는 축복들”,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47쪽.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상의 것임”을 토론할 때 금식에 관한 프랫 장로의 설명을 활용한다.

로널드 티 할버슨,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리아호나*, 2004년 8월호, 42쪽. 금식에 관한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를 대신하여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집사)*, “정원회 활동”, 2번.

#### 제14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

헨리 비 아이어링, “영적인 준비: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행함”,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37쪽. 아이어링 장로의 방법 중에서 지금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을 공과의 “순종은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줌” 편에서 토론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제사)*, “가족 활동”, 1번.

#### 제15과: 성약을 지키으로써 승영에 이룸

리차드 지 메이너즈, “우리의 성약을 지키기”,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92쪽. 성약을 지키는 것에 관한 공과 토론에 암몬인의 예를 포함시킨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제사)*, “정원회 활동”, 1번.

#### 제16과: 십일조와 헌물

얼 시 텅기, “영원한 패턴을 굳게 세움”,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20쪽. 십일조와 헌물에 관해 기사에 있는 설명을 활용하여 공과에 있는 “우리는 십일조와 헌금을 내는 것을 배워야 함” 편을 소개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스티븐 비 오브슨 장로와 디시 랜들 오브슨, “개인적인 헌납”, *리아호나*, 2005년 9월호, 16쪽. 공과의 소개에 있는 패커 회장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전에 기사에 있는 “십일조 이상의 것” 편을 활용한다.

캐서린 에이지 휴즈, “작은 일에서”,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109쪽. 기사에서 해당되는 편을 나눔으로써 공과에 있는 십일조의 축복에 관한 편을 시작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집사)*, “신권 의무와 표준”, 7번과 9번; (교사, 제사), “신권 의무와 표준”, 8번.

#### 제17과: 축복사의 축복

줄리 비 벡, “여러분에게는 고귀한 장자의 명분이 있습니다”,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106쪽. 퀴즈의 8번 문제에 답할 때, 축복사의 축복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것에 관한 벡 자매의

#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 주일 학교



다니엘 케이 주드  
제1보좌



에이 로저 메릴  
회장



윌리엄 디 오스월드  
제2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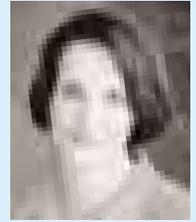
## 상호부조회



캐서린 에이치 휴츠  
제1보좌



보니 디 파킨  
회장



앤 시 팡그리  
제2보좌

## 청남



딘 알 버게스  
제1보좌



찰스 더블류 달퀴스트 이세  
회장



마이클 에이 네이더  
제2보좌

## 청녀



줄리 비 벡  
제1보좌



수잔 더블류 테너  
회장



일레인 에스 돌튼  
제2보좌

## 초등회



마거릿 에스 리퍼스  
제1보좌



셰릴 시 렌트  
회장



비키 에프 미즈모리  
제2보좌

권고를 포함시킨다.

“축복사의 축복에 대하여”, *리아호나*, 2004년 3월호, 18쪽. 기사에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퀴즈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보충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제사)*, “가족 활동”, 3번.

### 제18과: 아론 신권 교사의 의무

“회복된 신권”, *리아호나*, 2004년 4월호, 30쪽. 기사에서 교사의 의무에 관한 토론을 활용하여 공과에서 그 주제에 관한 편을 강화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교사)*, “영적인 발전”, 1번.

### 제19과: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너는 돌이킨 후에”,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11쪽. 기사에 있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에 관한 설명을 활용하여 공과의 “새로운 형태의 회생” 편을 강화한다.

로버트 케이 델렌바흐, “희생은 하늘 축복 가져오나”,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33쪽. 기사에 있는 희생에 관한 설명을 포함시켜 공과의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 편을 강화한다.

### 제20과: 성찬을 집행함

제임즈 이 파우스트, “왕 같은 제사장”,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50쪽. 부주의한 집사의 이야기를 공과의 “성찬을 경건하게 집행함” 편에서 활용한다.

로버트 시 옥스, “누가 주의 편이냐?”,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48쪽. 기사의 처음 반을 활용하여 공과의 “성찬은 거룩한 의식임” 편을 보충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집사)*, “정원회 활동”, 7번.

### 제21과: 멜기세덱 신권을 받기 위해 준비함

제임즈 이 파우스트, “하나님의 지식의 열쇠”,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52쪽. 기사에 있는 신권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결론부에서 토론한다.

러셀 벨 넬슨, “신권의 열쇠”, *리아호나*, 2005년 10월호, 26쪽. 멜기세덱 신권의 특권에 대해 토론할 때 열쇠에 관한 넬슨 장로의 정의를 포함시킨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제사)*, “정원회 활동”, 4번.

### 제22과: 가정에서 족장으로서의 지도력

제임즈 이 파우스트, “보살피시는 아버지”, *리아호나*, 2006년 9월호, 2쪽. 아버지를 지지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할 때 기사에 있는 “아버지를 강화시킴” 편을 활용한다.

에프 멜빈 하몬드, “아빠, 깨어 있으세요?”,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97쪽. 청남들이 미래의 가족에 대해 준비를 하는 방법들을 토론할 때 포함시킨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교사)*, “영적인 발전”, 11번.

### 제23과: 선교 사업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

리처드 지 스코트,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의 힘”,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29쪽.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잘 아는 것의 중요성을 토론하기 위해 공과에 걸쳐 활용한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선교사가 됨”,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44쪽. 공과를 시작할 때, 선교사업을 준비하는 것에 관한 베드나 장로의 권고를 토론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집사)*, “영적인 발전”, 9번과 10번; *(교사)*, “영적인 발전”, 8번과 9번; *(제사)*, “영적인 발전”, 8번.

### 제24과: 일의 축복

디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시작부터 끝을 보십시오”,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42쪽. 백작 부인의 이야기를 우호트도르프 장로의 세탁소 이야기로 대체한다.

더블류 볼프 카, “무익한 중”, *리아호나*, 2003년 10월호, 26쪽. 첫째 인용문을 카 장로의 농장 이야기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교사)*, “교육, 개인 및 직업에 관한 발전”, 4번; *(제사)*, “교육, 개인 및 직업에 관한 발전”, 3번.

### 제25과: 자기 수련을 통한 개인적인 순결

제임즈 이 파우스트, “내부의 적”,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54쪽. 첫째 인용문을 우리 자신의 적에 관한 파우스트 회장의 설명으로 대체한다.

브르스 시 하펜, “The Gospel and Romantic Love,” *New Era*, 2002년 2월호, 10쪽. 이성에 대해 토론할 때 하펜 장로의 결론을 포함시킨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교사)*, “영적인 발전”, 5번. ■



## 힝클리 회장과 교회, 건강한 상태

케이트 맥닐, 교회 잡지

교회의 제176차 반연차 대회 동안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자신과 교회가 모두 다 건강한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저는 아주 좋습니다”라고 96세의 선지자는 말했다. “제 건강은 상당히 좋습니다.”

힝클리 회장은 1월에 있었던 수술 후 회복과 연이은 치료가 “기적적”이었다고 말한 의사들의 말을 인용했다. 11월 초, 힝클리 회장은 회복된 교회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회장이 된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1873~1970년)은 96년 132일을 일기로 사망했다. 힝클리 회장은 6월 23일에 96회 생일을 기념했다.

10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솔트레이크시티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대회의 여러 모임에 참석했으며 전세계에서 수백 만 명이 상이 시청을 했다. 대회 말씀은 최근에 추가된 터키어를 포함하여 85개 언어로 통역되었다.

토요일 오전 모임에서 힝클리 회장은 교회의 발전에 대해 말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풍성하게 축복하고 계시며, 우리의 의무는 교회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라고 힝클리 회장은 말했다.

최근, 교회의 제123번째 및 124번째 성전이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와 핀란드 헬싱키에서 각



맨 위: 대회에 참석할 기회를 갖기 위해 템플스퀘어에 줄지어 선 회원들.  
위: 제일회장단의 고든 비 힝클리 회장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대회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각 헌납되었다. 힝클리 회장은 교회 소유 위성 수신소가 1982년 불과 300개 였던 것에 비해 현재 83개국에 6,066개가 있다고 말했다.

힝클리 회장은 또한 음악과 진리의 말씀의 주간 방송을 위해 태버네클 합창단이 템플스퀘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해 왔던 시설인 솔트레이크 태버네클이 현재 수리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건물이 2007년 봄에 다시 개관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기간 동안 합창단은 컨퍼런스 센터에서 방송을 해 왔다.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칠십인

제이 정원희 일원 여덟 명이 교회 총관리 역원으로서의 전임 봉사에서 해임되었다. 해임된 사람은 로널드 티 할버슨, 데일 이 밀러, 에이치 브라이언 리차즈, 도널드 엘스타헬리, 데이비드 알 스톤, 에이치 브루스 스투키, 로버트 제이 웨튼, 리차드 에이치 윈켈 장로이다.

이 외에도 독일 프랑크푸르트 출신인 49세의 에리히 더블루 코우피쉬케 형제가 지역 칠십인으로 부름 받았다. 또한 세 명의 지역 칠십인, 케사르 에이 에스 밀테르, 민혜기, 마사유키 나카노 장로가 일요일에 해임되었다.

2006년은 손수레 개척자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한 지 150주년인 되는 해이다.

헝클리 회장은 개척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의 신앙은 우리의 유산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우리가 누리는 안락에 대해 그들이 치른 대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말씀을 마치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위대한 대의 속에서 ...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증가된 신앙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업은 침체될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그 누구도 [교회의] 발전을 막을 수 없습니다.” ■

회장이었던 아우렐리아 스펜서 로저스의 손자였다. 그녀의 모친, 버니스 영은 브리검 영 회장의 형제였던 조셉 영의 손녀였다.

경영 교육 학위를 받고 유타 대학교를 졸업한 위스린 자매는 첫 아이를 가질 때까지 대학 행정실에서 비서로 일했다. 나중에 그녀는 남편이 가족 사업을 경영하는 동안 집에서 비서 업무를 보며 남편을 도왔다.

위스린 부부는 슬하에 일곱 명의 딸과 한 명의 아들을 두었다. 자녀들 모두가 유타 초등학교, 루즈벨트 중학교와 이스트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모두 위스린 자매가 청소년 시절에 다녔던 학교였다.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그녀는 학부모회에서 활동적으로 일했으며, 오페라 클럽 회원으로서 아이들을 위해 오페라 감상반을 가르쳤다.

그녀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는 여행을 자주 하지 않았으며, 50대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비행기 여행을 했다. 그 이후로 그녀는 교회 임무 지명에 따라 남편과 함께 여러 나라를 여행했다. 위스린 부부는 5년 동안 독일에서 살았으며, 그곳에서 그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큰 사랑을 키웠다.

교회 보조 조직에서 봉사하는 동안 그녀는 질병으로 고통 받거나 다른 필요 사항을 갖고 있는 가족들을 도울 기회가 자신에게 왔을 때 깊은 감명을 받았다. 현재 자신이 있는 곳이 봉사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는 철학을 가진 그녀는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즐겨 활용했다.

그녀의 집에 있는 한 특별한 장소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위스린

자매에게 준 오래 된 의자가 있다. 그녀는 자주 그 의자에 앉아서 위안과 격려, 그리고 기쁨을 위해 경전과 다른 자료들을 읽었다. 위스린 자매가 즐겼던 그 밖의 일에는 테니스, 뜨개질, 산책이 있다. 그녀는 또한 자신과 남편이 8 명의 자녀, 46명의 손자손녀, 그리고 49명의 증손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기를 즐겼다. ■

## 2007년을 위한 새로운 상호 향상 모임 주제 발표

2006년, 교회 청소년들은 상호 향상 모임 주제인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네 빛이 얼굴을 위한 기가 되게 하라”(교리와 성약 115:5)와 관련된 활동에 중점을 두면서 재능과 간증을 나누었다.

2007년도 주제는 개인의 영적인 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상호 향상 모임의 새 주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서 가장 깊은 절망의 시간 속에 있는 동안 그에게 주어진 계시이다.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교리와 성약 121:45)

공동 성명을 통해 본부 청년 및 청년 회장단은 불안과 의심으로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상호 향상 모임의 새로운 주제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 면전에서 자신의 ‘진심’은 참된 자신감입니다”라고

## 엘리사 영 로저스 위스린 자매 서거

# 십

이사도 정원희의 조셉 비 위스린 장로의 아내인 엘리사 영 로저스 위스린 자매가 노환으로 2006년 8월 16일에 사망했다.

위스린 장로는 최근 연차 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자신의 영원한 동반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28쪽 참조) “아내는 저의 힘이자 기쁨이었습니다. 그녀로 인해 저는 더 좋은 사람이자 남편이며, 또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 저는 아내에게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완벽한 결혼이라는 것이 존재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의 결혼이 그러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사가 저의 가장 큰 기쁨이었듯이, 이제 그녀의 사망은 저의 가장 큰 슬픔입니다.”

네 자녀 중 막내였던 엘리사 로저스 자매는 1919년 6월 22일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태어났다.



엘리사 영 로저스 위스린 자매

그녀와 위스린 장로는 1941년 5월 26일, 당시 제일회장단 보좌였던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의 집행으로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위스린 장로는 1986년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위스린 자매는 유타 개척자의 직계 후손이다. 그녀의 부친, 올슨 매드슨 로저스는 1878년 유타 주에서 조직된 초등학교의 초대



리버티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이곳에서 그는 교리와 성약 121편과 122편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들을 받았다. 2007년도 상호 향상 모임 주제는 교리와 성약 121편 45절에서 발췌되었다.

성명은 전하고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자신감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누구의 주위에서도 자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호와와 중심을 보시기” (사무엘상 16:7) 때문에 생각이 유덕한 청소년은 주께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계신다고 확신하고 또한 더욱 더 유덕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본부 청남 및 청녀 회장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36550 320)에서 유덕한 생활을 하기 위한 길잡이를 찾을 것을 장려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그들의 생각을 어

떻게 덕으로 장식할 수 있을까?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제임즈 파우스트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덕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고결한 도덕, 올바른 행동 및 생각, 좋은 인격, 여성의 순결이 이에 해당됩니다.” (“얼마나 천사에 가까운 존재입니까?”, 성도의 벗, 1998년 7월호, 95쪽)

“미덕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라고 파우스트 회장은 말했다. “미덕의 단편적인 뜻은 순결이나 도덕적인 깨끗함이지만 미덕이 지닌 더 큰 뜻은 인격을 형성

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의로운 특성들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딸들이 지닐 미덕”,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108쪽)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워스린 장로는 의로움이 어떻게 우리의 확신에 영향을 주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는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데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도와 주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결한 성품”, 성도의 벗, 1990년 7

월호, 39쪽)

유덕한 생활을 하는 것은 성신의 동반을 가져다주고, 성신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감과 그분의 면전에서 자신감을 가져다준다.

2007년도 상호 향상 모임 주제를 발표하는 2006년 8월 1일자 서한에서 제일회장단은 청남 및 청녀 지도자들이 상호 향상 모임 개회 순서와 다른 청소년 활동에서 이 주제를 강조할 것을 권고했다.

이 주제에 관한 추가 자료들은 리아호나 2007년 1월호 및 *New Era*에 게재될 예정이다. ■